

建築士

■ 등록 1967년 3월 23일 ■ 등록번호: 제 11-26
■ 1985년 12월 31일 제 3종 우편물 나 급인가 ■ 우편번호: 137-070
■ 1990년 11월 15일 발행 ■ 통권 259호 ■ 발행: 대한건축사협회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카.

폴만을
일일뿐
커다란

과 노력
앞으로
스치로
겨, 보다
이마지

로 품은
용으로

! 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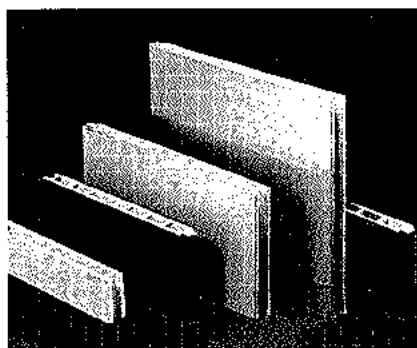
치로 폴 원료제조원

화학주식회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43 ● 784-1111
부산·남구 성감동 45-25 ● 783-1111



미려한 건축물을 계획하신다면 베이스판넬을 선택하십시오.



베이스란 시멘트를 주원료로 진공 압출성형하여 생산되는 경량의 조립식판넬로서 제품 내부에 이상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강도가 높고, 차음, 내화, 단열성이 우수한 내구성 자재입니다.

경량성 / M²당 무게가 50kg으로 건물의 구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 / 내동결 융해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아 영구적입니다.

안정성 / 고압 증기 양생하므로 시공후 수축, 팽창, 뒤틀림이 전혀 없습니다.

의장성 / 건물의 외관에 따라 판넬의 표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감성 / 타일, 본타일, 페인트등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내진성 / 이상적인 조립방법에 의해 시공되므로 지진에 의한 충격을 흡수합니다.

붕괴·전복등의 위험·판넬의 개단·도록변의 치단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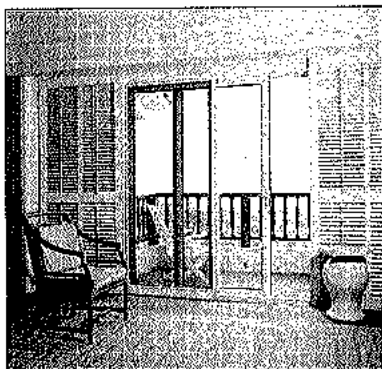
치밀한 고강도의 압출제품

벽산 베이스

명품창문 이견창호와 세계수준의 제주신라호텔이 만났습니다

제주도 중문에 본격 리조트호텔로 문을 연 제주신라
세계적 수준의 제주신라호텔 330개 객실 창문으로
이견창호 Royal Lift Sliding Series가 선택된 이유—

세계 10대 호텔로서 신라호텔의 명예가
제주신라를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호텔측이 창문 하나의 선택에 보여준
세심함은 컸다.
평상시 강한 바람은 물론,
여름에 특히 태풍이 많은 제주해안지역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과연 어떤 창문이 적합할까?
‘밀폐성이 강하고 부식되지 않는 창문’ —
이견창호 특유의 장점이 호텔측이 요구하는
기능에 그대로 일치되어 뛰어난 기능으로
건물의 품격을 높여주는 창문으로서
멋진 사례를 남기게 되었다.



설계: 실무 종합건축사사무소



뛰어난 기능으로 건물의 품격을 더해주는 이견창호

디자인·소재에서/기존 창호와 전혀 다른 개념의 소재 결합과 칼라의 조합으로
건물의 다양한 요구에 알맞게 주문 제작할 수 있습니다.

방음·단열에서/컴퓨터로 정밀 설계되고 밀폐성 높은 가스켓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방음, 단열 효과가 특히 뛰어납니다.

환기·개폐에서/특수 기어시스템에 의해 작동이 부드럽으며 환기만을 위한
특수 개폐가 가능, 환기가 편리하게 이루어지므로 쾌적한 실내가 유지됩니다.

안전·수명에서/특수 유리 and 고강도 소재 사용, 특수 배수 시스템에 의해
수밀성과 내부식성, 내풍압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태풍, 폭우 등의 악천후에서도
변형되지 않으며 독특한 잠금장치로 인해 도난, 침입의 우려가 없습니다.

시공에서/공장 완제품으로 시공되기 때문에 현장 작업이 간단하며 건식공법에 의한
깨끗한 마감 처리로 정기적인 보수 필요없이 영구 사용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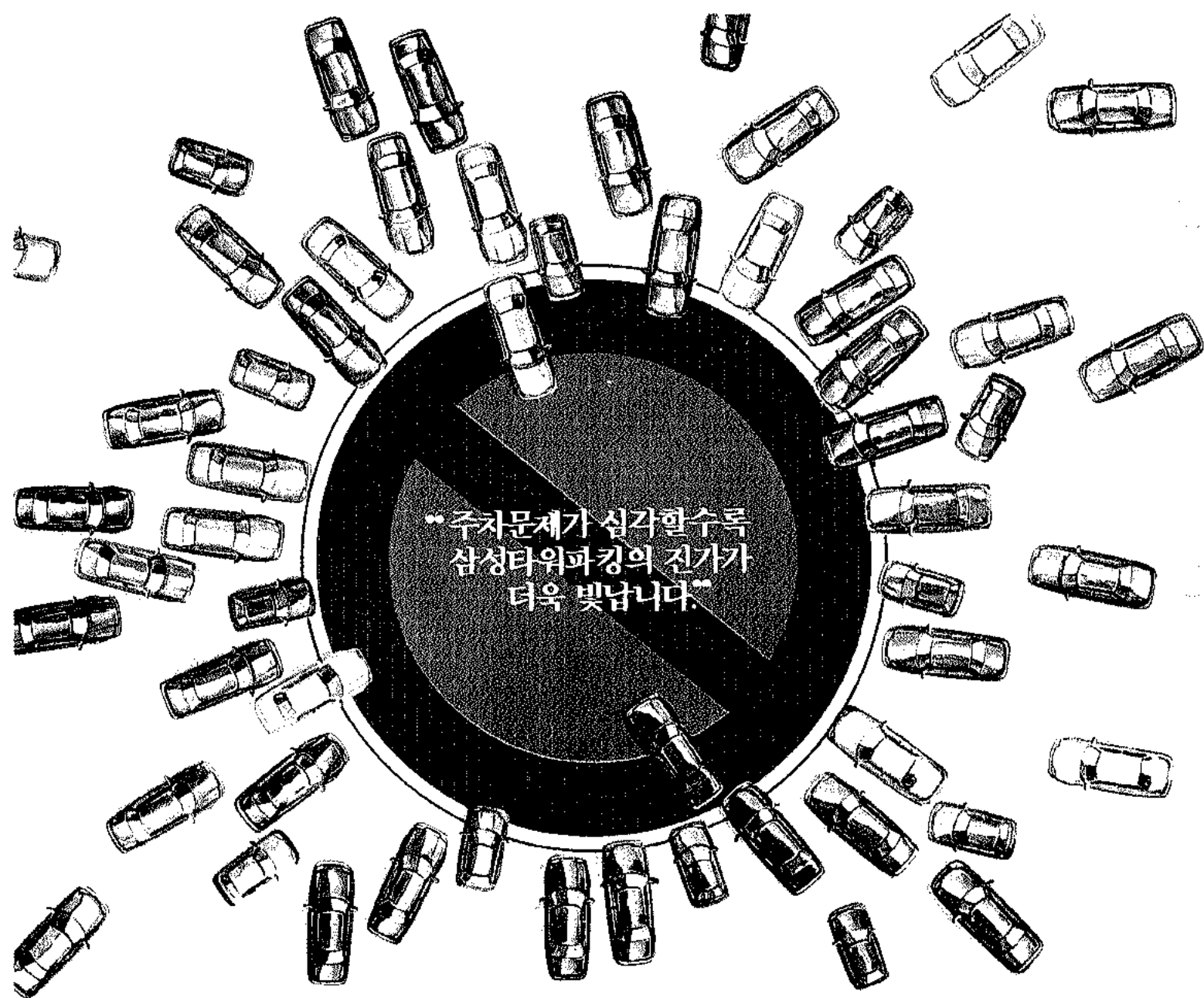
이견 시스템 원도우

■ 상설전시장 안내 위치: 강남구 논현동 58-7 태석빌딩 3층
전화: 540-2071~9 FAX: 540-2080
* 일요일에도 문을 엽니다.



이견창호

●이견산업주식회사 ●이견자원개발주식회사 ●EAGON FOREST PRODUCT INC.



삼성타워파킹

국내 처음으로 초고속형,턴테이블내장형, 이중탑재형 타워파킹 개발!

일찌기 15년전, 국내에 입체주차장을 처음 소개한 삼성은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과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여 대도시 주차난 해결에 선두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급기종

- 수직순환방식 : 초고속형,턴테이블내장형, 이중탑재형 ● 엘리베이터방식
- 다층순환방식 ● 2,3단 주차설비 ●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본 사 : (02)728-6431~3 FAX : (02)728-6214, 756-9358

창원공장 : (055)60-6382~3 FAX : (055)60-6767

부산지점 : (051)807-6814 FAX : (051)862-5375

대구지점 : (053)254-3004~5 FAX : (053)23-9244

광주지점 : (062)224-2174 FAX : (062)224-2173

대전지점 : (042)253-2252~3 FAX : (042)253-3988

三星立體駐車設備



삼성중공업
기계사업본부

축적된 기술의 크기만큼 선택의 폭도 다양한 삼성타워파킹

수직순환방식 : 대형채인에 차를 실을 수 있는 상자(Cage)를 매달아 순환이동시키면서 입출고하는 방식입니다.

엘리베이터방식 : 엘리베이터에 차를 싣고 오르내리면서 좌우의 주차구역으로 차를 입고하는 시스템(횡식, 종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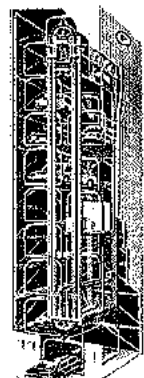
1. 초고속형 : 입출고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2. 턴테이블내장형 :

Cage 자체가 회전하여 전후좌우로 입출고 가능

3. 이중탑재형 :

파레트 하나에 2대를 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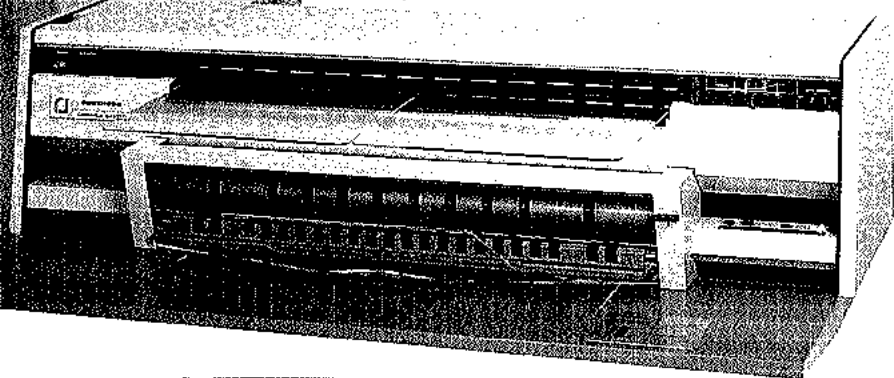




좋은 설계를
위하여는
신선한 공기가
필요합니다.

청사진 복사기 pd 11801
암모니아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습니다!!

Convenience Engineering
Copier with Automatic Original Print Separator



AMMONIA가 필요없는, 원도자동분리방식을 채택한
MECHANISM의 결정체입니다.

COPINICA PD 118은 종전의 AMMONIA를 사용하던
복사기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독특한 System인 1R, 2B, P
현상방식과 원도자동분리방식을 채택한 건식 청사진복사기
입니다. (복사폭 680mm)

지금까지 청사진 복사기의 최대 난점이었던 AMMONIA를
사용하지 않고 대기시간이 필요없이, 누구나 쉽게 스위치
한 동작으로서 작동되는 COPINICA PD 118은 어느 업종,
어느 장소에서나 효율적인 작업을 약속합니다.

Items

● Diazprinter

- Wide-width Plain Paper Copier ● Copy Paper
- PD Copier ● Film Sepia ● Tracing Paper
- Sensitive Paper (blue, black line, PD, etc.)
- ALL REPROGRAPHICS EQUIPMENTS



(株) 龜 映

The Pros in Reprographics in Korea.

■인슈그라스울파넬이란?

INSU GLASS WOOL PANEL은 내부단열재를 1급 불연재인 유리섬유를 사용함으로써 단열효과가 우수한 물론 화재시 불에 타지않는 불연성이고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화재의 위험을 극소화하며, 특히 유리섬유의 압자들이 음의 진동을 완충시켜주므로 차음 및 방음, 흡음 성능이 더욱 우수한 획기적인 소재입니다.

INSU
PANEL
SYSTEM

1급불연 단열파넬 탄생!

INSU

GLASSWOOL PANEL

인슈그라스울파넬은 내부단열소재가 1급불연재인 유리섬유를 사용하였으므로 기존단열파넬의 가장 큰 문제점인 화재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 날 수 있습니다!



(인슈그라스울파넬 방화실험장면)



주식회사 연합인슈



본사및공장 : 경기도 이천군 백사면 도림리 39-2

TEL : (02)745-0687, 이천 : (0336)32-46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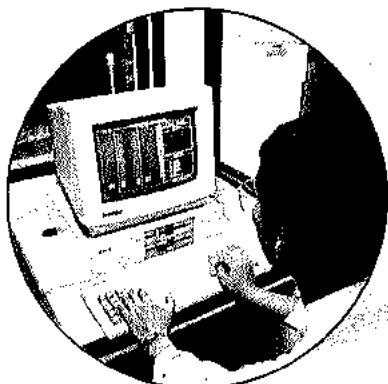
서울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3-6 연합인슈빌딩

TEL : (02)555-6891, FAX : 553-16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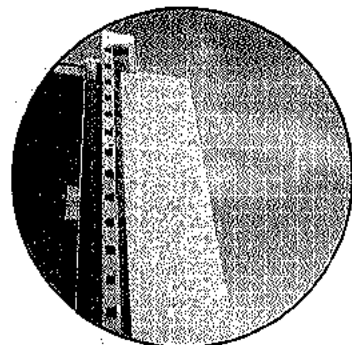
부산사무소 : (051)462-9554 · 대구사무소 : (053)53-4543

광주사무소 : (062)524-9779 · 창원사무소 : (0551)85-5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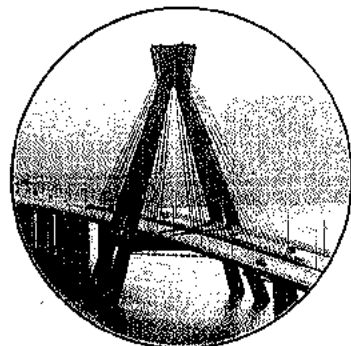
유원의 첨단기술이 탄생시킨 컴퓨터 주차타워



● 한국일보사신문 주차타워
컴퓨터 콘트롤 룸



● 현대해상화재보험
명동사옥 주차타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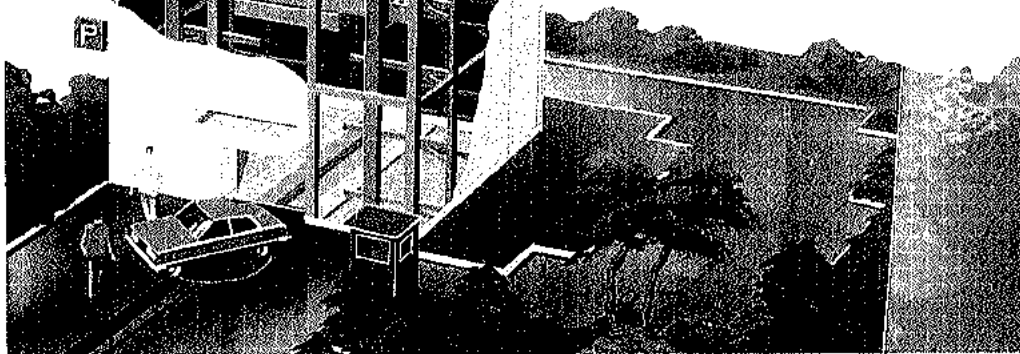


● 서울·올림픽대교

13평의 땅에 50대 주차 설비를 세운다.

올림픽대교를 건설한 유원건설이 첨단 기술로 탄생시킨 컴퓨터 주차타워. 유원은 한국일보사 신문 주차타워와 현대해상화재보험 명동사옥 주차타워 등을 완공, 현재 가동중에 있으며 지금도 서울 부산 등지에서 크고 작은 주차타워 설치공사를 수행,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유원은 국내외에서 쌓은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주차설비 분야의 기획업무부터 설계, 시공, A/S까지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원 컴퓨터 주차타워 시설의 특징

- 13坪에 50층 주차설비 시설가능
- 지상 지하에 동시 운행가능
- 트윈타입으로 설치원가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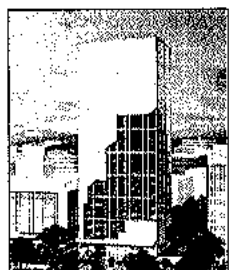
유원 컴퓨터 주차타워시설의 7대 장점

1. 경제성 - 저렴한 시공비, 최소의 운영관리비
2. 안전성 - 16가지 이상의 COMPUTER 안전장치
3. 신속성 - 상승속도 60m/min 이상, 1분내 입출고 처리
4. 간편성 - 차량번호만 입력, 자동으로 입출고
5. 정숙성 - 승객용 승강기에 버금가는 무소음 무진동
6. 다양성 - 대지형태에 따라 선택 가능한 다양한 기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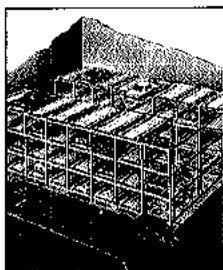
7. 독창성 - 국내 기술진에 의해 개발 100% 국산화

유원 컴퓨터 주차타워 시공 및 착공사례

- 한국일보 신문 : 2기 48대
- 현대해상화재보험 명동사옥 : 1기 40대
- 부산 고속터미널 : 3기 120대
- 사당 쇼핑센터 : 3기 150대
- 잠실 뉴스타관광호텔 : 1기 50대
- 평창산업주차타운 : 4기 200대



YOP-A 연립형



YOP-M형



상담전화 : (02) 756-9821, 9841 (02) 777-9821, 9841
FAX : (02) 754-8521
주차 플랜트부

ARRIS

ARRIS CAD 지원용 3rd PARTY APPLICATION SOFTWARE 공개!

ARRIS CAD가 획기적인 진보의 발을 내디딤니다.

서통 AI 사업부는 국내 유명 건축사무소인 (주) 우일종합건축사
사무소, (주) 정림건축과 협조하여 그동안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절실하게 필요로 하던 DETAIL LIBRARY, 한글단·복선체 및
구조일람표(철근, 보, 스라브, 기둥,
철골접합) 등의 Manual 및 SOFTWARE를 서통 AI사업부에서 공급
하게 되어 건축 설계 사무소의 CAD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1. DETAIL LIBRARY

Mock-Up작업으로 인한 도면작성

■ 상세도 종류

- 일반 DETAIL 상세도
- 실내마감 상세도
- 바닥 상세도
- 천정 상세도
- 단우설 기구 상세도
- 외부시설 상세도 (중450개)

2. 한글 단 복선체

한글 MENU화로 인한 손쉬운 조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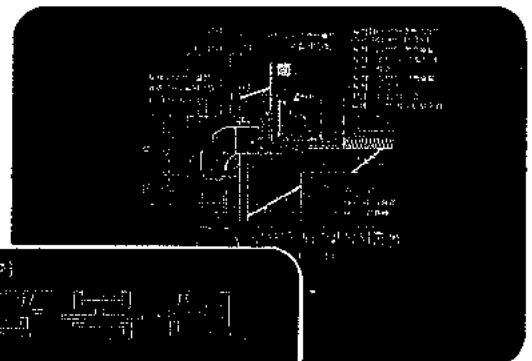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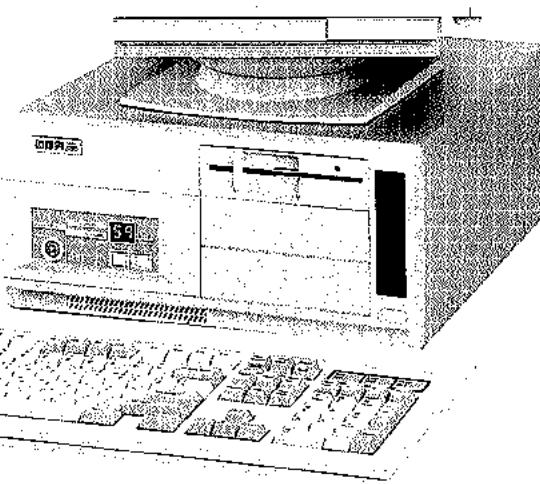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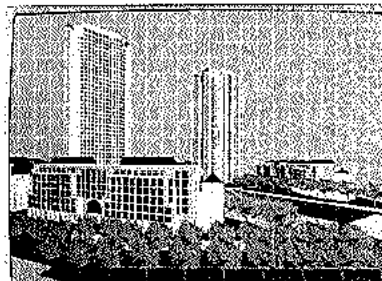
■ 기능

- 크기 조절기능
- 팽창기능
- 한글 컴머우가 기능
- 공간새우기 기능

3. 구조일람표(슬라브)

간단한 WORD PROCESSOR.

VI EDITOR사용
자동제도, 빠른 수정



▲ 1. 지중상세도면
▲ 2. 원골 복선체



▼ 3. 구조일람표 철골·스라브

ARRIS CAD지원용

3rd PARTY SOFTWARE의 특징

■ DETAIL LIBRARY SOFTWARE

1. 고임금, 기술인력난 해소

- 반복제도 작업의 전산화
- 기술인력의 전문성 향상
- 전문인력 활용의 효율화

2. 기술자료의 자산화

- 체계적인 등록 CODE제공으로 상세의 추가등록 용이
- 사용자의 수정이 가능하도록 편집
- 기술자료의 공유

3. 품질향상효과

- 실시 도면의 Quality 향상
- 시공주로 부터의 Claim 축소
- 표준화로 인한 회사 Q.C업무의 기준마련
- Quality향상에 따른 고객 확보

4. CAD도입사무소의 CAD 활성화 지원

- 간편한 조작
- 세계적인 표준화·실행방식제정으로 인한 인력 및 시간절감
- CAD SYSTEM의 올바른 활용방향제시

■ 한글단 복선체

1. 한글단선

- Dynamic 입력가능
- 한글+영문 혼용가능
- 타한글 코드와의 호환(AutoCAD 전한글, 행당등 5가지)
- 도표작성 가능
- 기타 사용자 편의를 위한 기능

2. 한글복선

- 정교한 글씨체(160×160 좌표분류)
- 크기, 가로, 세로 비율등 임의 조절
- 내부 칠(Hatching) 기능
- 한글 메뉴를 비롯한 사용자 편의를 위한 제반기능

■ 구조일람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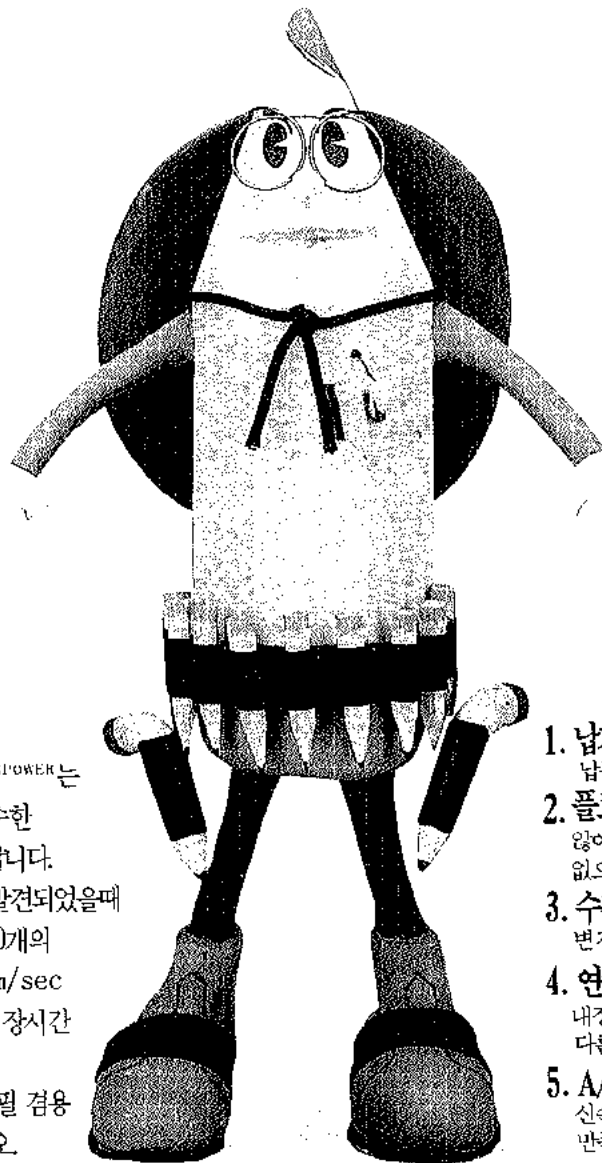
1. 철근-보, 기둥, 스라브

- 간단한 조작으로 입력
- Batch 처리기법에 의한 완전자동제도
- Data오류 사전점검기능
- 수정용이

2. 철골-접합상세

- 처리부재 - Column, Bracket, Girder, Beam의 임의 조합
- Editor에 의한 Data 일괄입력 또는 사용자 대화식 입력
- Joint 방법은 Bolt 또는 Welding
- Joint 부재계산은 사용자입력 또는 자동계산

“빨리뵙는다!”



펜과 연필을 함께 쓰는 플로터
MUTOH^{Sunpower}의
다섯가지 속사능력!

펜과 연필을 함께쓰는 플로터 MUTOH^{SUNPOWER}는 기존의 펜전용 플로터에서 볼수 없었던 우수한 기능으로서 플로팅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줍니다. 연필을 사용하기 때문에 도면에 문제점이 발견되었을때 일부분을 빨리 지우고 수정할 수 있으며, 40개의 연필을 장착하는 F-910E의 경우, 1131mm/sec (가속 5.7G)의 속도를 발휘하여 중단없이 장시간 플로팅이 가능합니다. 이제부터 다섯가지 속사능력을 가진 펜, 연필 겸용 플로터 MUTOH^{SUNPOWER}를 만나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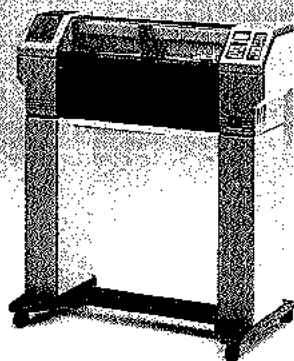
1. 납기 적정 재고를 항상 유지하기 때문에 주문즉시 납품이 가능합니다.
2. 플로팅 속도 연필 플로팅의 경우 잉크가 나오지 않아 생기는 펜 전용 플로터 경우의 SKIP 현상이 없으므로 초고속 플로팅이 가능합니다.
3. 수정작업 연필 플로터는 일부분을 지우고 설계도면을 변경하는 수정작업이 가능합니다.
4. 연속작업 플로터 내에 1MB 용량의 BUFFER가 내장되어 있으므로 플로팅 작업중에도 컴퓨터를 다른작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A/S MUTOH^{SUNPOWER} 전용 A/S 센터를 운영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A/S로 사용자 여러분께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펜전용 플로터의 문제점을 모두 해결한 **MUTOH^{Sunpower}** 플로터!

F SERIES PLOTTER

The F-910E Professional Plo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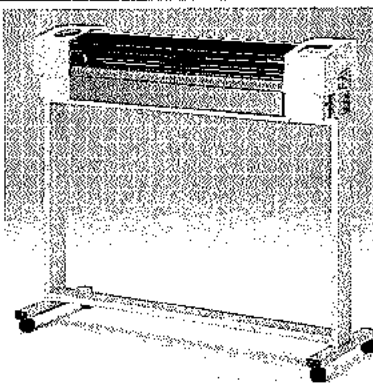
용지의 크기 : A1, A1, A2, A3, A4,
플로팅 속도 : 1131mm/sec
(가속 5.7G)
정확도 : 0.1% 0.25mm
해상도 : 0.01mm
비표 용량 : 1MB
사용 가능 펜수 : 8PEN
사용 가능 연필수 : 40 Pencil
interface 방식 : RS-232C/RS-442A
소비자 가격 : ₩10,250,000



IP SERIES PLOTTER

The iP-530EL iP-530E Plotter

용지의 크기 : iP-530EL, A0, B1, A1,
A2, A3, A4,
IP-530E, A1, A2, A3, A4
플로팅 속도 : 705mm/sec (가속 2.1G)
정확도 : 0.01%
해상도 : 0.025mm
비표 용량 : 1MB
사용 가능 펜수 : 8 PEN
사용 가능 연필수 : 8 Pencil
interface 방식 : RS-232C
소비자 가격 : iP-530EL ₩6,250,000
IP-530E ₩4,650,000



MUTOH^{Sunpower}

서통 시사업부 5140-3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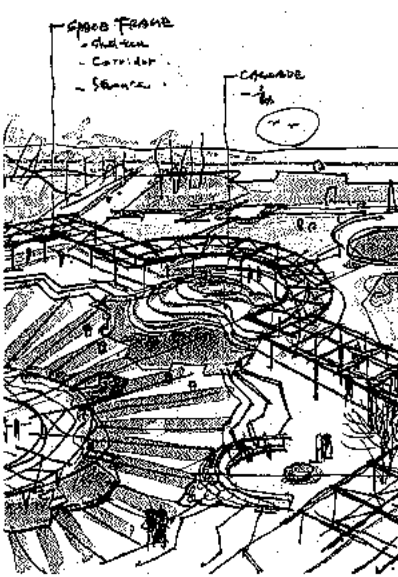
서울지역 A/S CENTER

서울 강남구 논현동 6-21 샌파워컴퓨터전시장
Tel. (02) 5140-386 (대) Fax. (02) 545-0296

부산지역 A/S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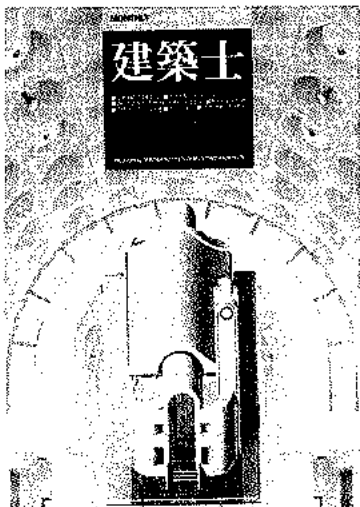
부산 중구 대창동 32-4 성림빌딩 태창캐드팩스
Tel. (051) 464-6450 (대) Fax. (051) 464-5344

서울 : • 나우시스템 797-5949 • 빌리언시스템 795-0618 • 준시스템즈 718-1103 • 평산엔지니어링 511-8616 • 화일시스템 588-0386 부산 : • 태창캐드팩스 464-6450



차례/1990년 11월호 통권 제259호

會員作品	김창숙 남서울 프라자/尹弘甲	12
	원불교 안암교당/金仁喆	16
	목동 제3공원/柳春秀	20
	한국전력공사 동부지점/金基雄	24
	남부 새마을유아원/李 馥	26
	전원예식장/宋健洙	28
나의 스케치	T연구소 계획안/李光萬	31
論 題	建築士 여러분께!/李麟求	34
알려야생각하며	연구비 0.1%유감/崔命喆	36
研 究	현상설계와 일본의 현대건축/金文德	38
	한국의 전통건축Ⅳ 朝鮮時代의 建築/張慶浩	50
	요든 옷존의 박스베드교회/朴賢燦	62
	韓國 傳統家屋의 再照明/李王基+朴明德	68
建築紀行	메소포타미아의 건축순례(4)/裴元泰	77
寄 稿	東歐기행/崔昌奎	82
자 료	건축법 시행령중 개정령 等	88
	1990년 9월분 도서신고현황	92
新入會員		91
協會消息/支部總會消息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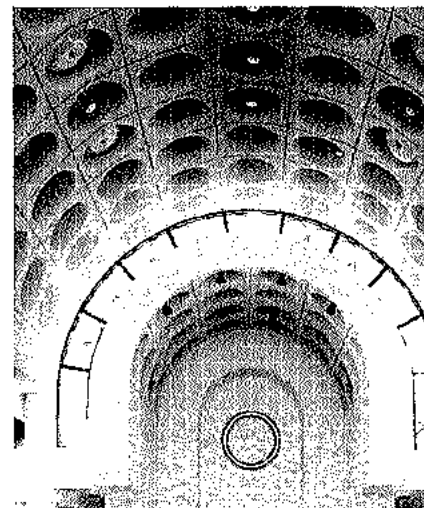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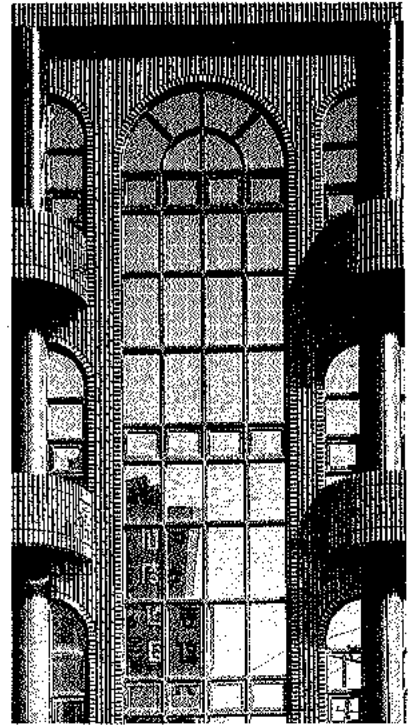
표지 : 원불교 안암교당
(설계 : 金仁喆)

發行人: 宋基德
 編輯弘報委員會
 委員長: 禹南龍
 委員: 董政根, 朴舒弘, 吳澤吉, 金基哲,
 趙聖烈, 崔正一, 鄭正治, 朴研心,
 崔命喆, 金周喆
 編輯: 出版事業部
 發行處: 大韓建築士協會
 住所: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 137-071
 電話: 代表 (02)581-5711, 581-5712~4
 팩시밀리: (02) 586-8823
 텔렉스: KIRAA 33550
 登錄番號: 서울 라-26(月刊)
 登 錄: 1967年 3月 23日
 U.D.C.: 69/72(054-2): 0612(519)
 印刷人: 全允珪/汎文精版社

Publisher: Song, Kee-Duk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Woo, Nam-Yong
 Member: Dong, Jeong-Keun/ Park, Seo-Hong/ Oh, Teak-kil
 / Kim, Kee-Chul/ Cho, Sung-Yul/ Choi, Jeong-Il/
 Jeong Jung-Chi/ Park, Yeon-Sim/ Choi, Myung-
 Chul/ Kim, Joo-Cheol
 Editor: Editorial Committee
 Assistant Editor: Publishing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d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1
 TEL: (02) 581-5711, 581-5712~4 FAX: (02) 586-8823
 TLX: KIRAA 33550
 Registered Number: Seoul Ra-26
 Registered Date: March 1967
 U.D.C.: 69172(054-2): 0612(519)
 Printer: Jeon, Yun-Kyu (Kwang Moon Printing Co.)

CONTENTS Vol. 259, NOVEMBER 1990

WORKS	Kim, Chang-Sook Nam-Seoul Plaza/Yoon, Hong-Gap	12
	Wonbuddism Anam Temple/Kim, In-Cheurl	16
	Mok-dong 3rd Park/Ryu, Choon-Soo	20
	Dongbu Branch of the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 Kim, Kee-Woog	24
	Nambu Saemaedul Kindergarten/Lee, Bok	26
	Junwon Wedding Hall B.D/Song, Kun-Soo	28
MY SKETCH	T Research Institute Project/Lee, Kwang-Mann	31
FOCUS	Dear Architects!/ Lee, In-Goo	34
ESSAY	Regretableness of 0.1% Research Budget/Choi, Myoung-Cheurl	39
REPORT	Architectural Competition & Contemporary Japanese Architecture / Kim, Moon-Duck	38
	Korean Architecture History of the Chosun Period/Chang, Kyung-Ho	50
	Jom Utzon's Bagsvaerd Church/Park, Hyoun-Chan	62
	Review of the Traditional House/Lee, Wang-Kee & Park, Myoung-Duck	68
ARCHITECTURE TRAVEL	Tours of Mesopotamia Architecture/Bae, Won-Tai	77
CONTRIBUTION	Travels of East Europe/Choi, Chang-Kyu	82
MATERIALS		88
NEWLY ADMITTED MEMBER		91
KJRA NEWS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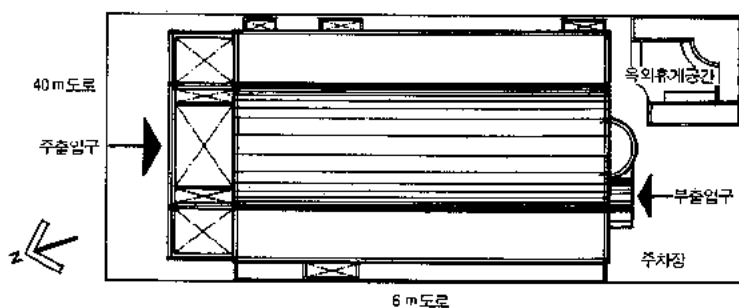


전국시도지부 및 건축실업실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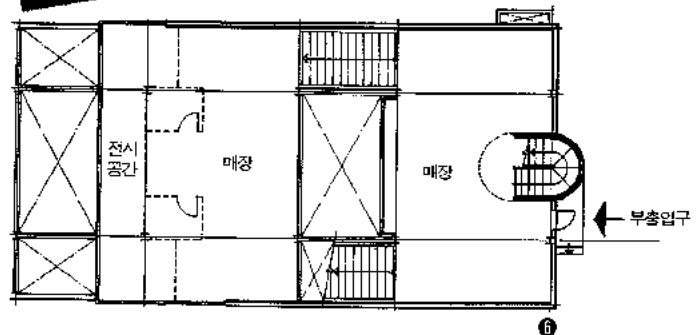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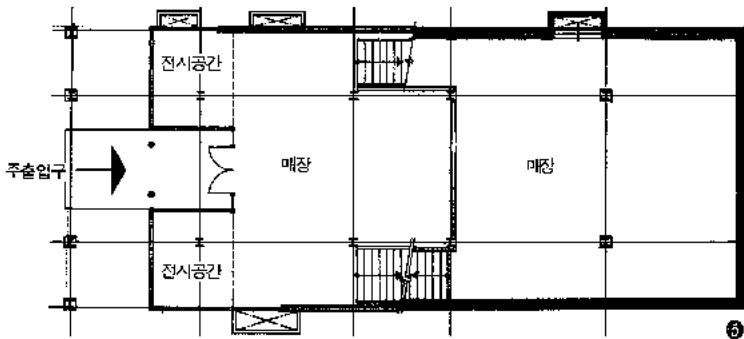
서울특별시지부 /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603-55, 581-5715~8 · 서대문분소 / 서대문구연희동169-25, 333-6411 · 관악분소 / 관악구신림동1422-17, 882-6744 · 노봉분소 / 노봉구수유동191-13, 903-3425 · 영등포분소 / 영등포구영등포동37181, 634-2143 · 강동분소 / 강동구성내동317-4, 484-6840 · 강서분소 / 강서구화곡동1105-05, 604-7168 · 성동분소 / 성동구구의동252-16, 446-5244 · 동대문분소 / 동대문구신설동101-7, 923-6313 · 종로분소 / 종로구청진동201-1, 738-5416 · 마포분소 / 마포구 성산동275-1, 333-5251 · 송파분소 / 송파구송파동50-12, 423-9158 · 송구분소 / 송구로 2가 49-11, 279-1415 · 용산분소 / 용산구원효로1가129-22, 712-7047 · 서초분소 / 서초구서초1동1623-1, 587-9760 · 은평분소 / 은평구북변동79-32, 352-6720 · 동작분소 / 동작구사당동206-6, 815-3026 · 강남분소 / 강남구논현동241-6, 511-8515 · 노원분소 / 노원구상계1동1049-79, 992-8076 · 양천분소 / 양천구신정동1027-9, 646-7172 · 중랑분소 / 중랑구목1동171-12, 973-4921 · 성북분소 / 성북구삼선5가110, 923-4401 · 구로분소 / 구로구구로동86-4, 853-4084 ■부산직할시지부 / 부산직할시중구동명동171(부산대퍼트네) (051) 246-6284~5 ■대구직할시지부 / 대구직할시수성구별이동3가H-8, (053) 753-8980 ■인천직할시지부 / 인천직할시남구간석1동558-1, (032) 424-0146, 5100(한국종합빌딩204호) ■광주직할시지부 / 광주직할시북구중흥동694-10, (062) 521-0025 (FAX) 521-0026 ■대전직할시지부 / 대전직할시중구대흥동437-1, (042) 254-2441 ■경기도지부 / 경기도수원시매곡로37124-5, (031) 47-6129~30 · 리항분소 / 경기도수원시매곡로37가H-8, (031) 42-6490, 7072 · 안양분소 / 안양시안양동719-9, (0343) 2-2698, 2-0012 · 부천분소 / 부천시원미동74-6, (032) 63-3144 · 성남분소 / 성남시신동5512, (0342) 2-5445 · 의정부분소 / 의정부시의정부동182, (0351) 2-1083 · 송탄분소 / 송탄시신강동21, (0333) 4-6153 · 고양분소 / 고양군원당읍우교리38동165로트, (0344) 63-8902 · 구리분소 / 구리시수택동408-2, (0346) 63-8112 · 이천분소 / 이천시이천읍중리216-8, (0336) 2-3396 · 평택분소 / 평택시철산동464-7, 682-2875 · 안산분소 / 안산시고잔동531-5, 82-2820 ■강원도지부 / 강원도춘천시옥천동39-5, (0361) 54-2442 · 원주분소 / 원주시인산동206, (0371) 42-3257 · 강릉분소 / 강릉시성내동6-14, (0391) 12-2262 · 속초분소 / 속초시동명동465-33, (0392) 133-5281 · 삼척분소 / 삼척시남양동55-43, (0397) 12-3106 · 영월분소 / 영월군영월읍영동1리960-12, (0372) 43-2659 ■충청북도지부 / 충청북도청주시북문로27116-168, (0431) 56-2752, 53-7342 · 충주분소 / 충주시백전동673-1, (0441) 12-3082 · 제천분소 / 제천시외림동8-8, (0443) 2-6253 · 옥천분소 / 옥천군옥천읍안양동222-206, (0475) 32-9997 ■충청남도지부 / 충청남도대천시죽곡대동473-1, (042) 256-4088 · 천안분소 / 천안시문화동160-1, 4, (0417) 2-4551 · 홍성분소 / 홍성군홍성읍오관리239-1, (0451) 32-2853 · 부여분소 / 부여군부여읍동남리703-1, (0463) 12-2217 · 대천분소 / 대천시대천동197-10, (0452) 34-3367 ■전라북도지부 / 전라북도전주시서노성동635-5(대북빌딩508), (0652) 87-6007 · 이리분소 / 이리시남중동1가77-22, (0653) 52-3304 · 군산분소 / 군산시중앙로17110-11, (0654) 12-4060 · 남원분소 / 남원시하정동106-2, (0671) 12-6002 ■전라남도지부 / 전라남도서구화정동83-23(추신회관) (062) 364-7567, 33-9944 · 목포분소 / 목포시대안1동1, (0631) 43-3348 · 순천분소 / 순천시장천동51-11(0661) 13-2457 · 여수분소 / 여수시판문동441번지, (0662) 64-7023 ■경상북도지부 / 대구직할시중구동인동1285번지, (053) 425-4904 · 포항분소 / 포항시죽동43-22, (0562) 44-6029 · 경주분소 / 경주시노동동42-2(0561) 13-3638 · 구미분소 / 구미시원정동964-264, (0546) 52-6351 · 안동분소 / 안동시서부동157-4, (0571) 2-5703 · 김천분소 / 김천시평화동280-1, (0547) 12-2541 · 영주분소 / 영주시효천2동295-2, (0572) 12-4566 · 점촌분소 / 점촌시중앙동280-3, (0581) 2-2706 · 상주분소 / 상주시남성동36-23, (0582) 2-4306 ■경상남도지부 / 경상남도마산시중앙동3713-47, (0551) 46-4530-1 · 울산분소 / 울산시남구산정동585-6, (0522) 74-8836 · 진주분소 / 진주시본성동7-20, (0551) 12-6403 · 창원분소 / 창원시서호동163-18, (0557) 143-3577, 2-7420 · 김해분소 / 김해시부원동24B-10L, (0594) 2-6114 · 밀양분소 / 밀양시삼문동184-108, (0527) 53-2110 · 거창분소 / 거창군거창읍중앙리274-3, (0598) 12-7090 · 양산분소 / 양산시양산읍다방리522-4, (0523) 184-3050 · 거제분소 / 거제군신현읍고현리139-2, (0558) 635-3432 · 삼천포분소 / 삼천포시사동동91-6(0593) 13-3591 ■제주도지부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도동1289-6, (064) 22-3248, 52-3248 · 서귀포분소 / 서귀포시서귀포동299-6, (064) 32-7777

김창숙 남서울 프라자

Kim, Chang-Sook Nam-Seoul Plaza



尹弘甲/(주)구조사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Yoon, Hong-Gap



대지위치/서울 강남구 청담동80
 지역지구/일반거주지역, 4종 미관지구, 주차장정비지구
 대지면적/351.2㎡
 건축면적/173.77㎡
 연면적/524.67㎡
 건폐율/49.47%
 용적률/127.75%
 규모/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철골조
 외부마감/알루미늄 복층판

- | | |
|---------------|----------------------|
| ① 전경 | ⑨ 계단실에서 본 주출입구와 1층매장 |
| ② 배치도 | ⑩ 지하1층 매장 |
| ③ 주출입구 상세 | ⑪ 주출입구측 장식철골격자 상세 |
| ④ 내부 연결계단측 상세 | ⑫ 연결계단 |
| ⑤ 1층평면도 | ⑬ 1, 2층 연결매장과 전시공간 |
| ⑥ 2층평면도 | ⑭ 배면상세 |
| ⑦ 2층 매장내부 | ⑮ 단면도 |
| ⑧ 서측외벽 상세 | |



8

■ 설계소요

김창숙 남서울 프라자는 여성 고급의상을 전시 판매하는 건물로, 소규모 건축물이 갖는 개성과 하이패션 매장의 성격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했고 내부 공간의 구성과도 상호 연관성을 가져야 했다.

소규모 건축물에서 건축가의 사상과 가치관이 절대적으로 표현된다는 점에서 건축주의 주문을 건물의 형태와 유기적인 내부공간 구성으로 유도하여 매장전측으로서 성격을 부각시키도록 하였다. 우선 채래 공법을 탈피하여 철골조+알루미늄 복층판+대형유리로 구성하여 3요소의 조화로 건물의 개성을 주었고, 동선 유도를 위해 전면에 장식 철골격자 구조물을 설치하여 전이공간을 형성하면서 정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이보리 알루미늄 복층판의 부드러움과 우아함이 장식 철골격자의 강인함과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지붕을 반원형으로 처리했다. 또한 정면과 모서리에 대형유리로 시선 개방에 의한 흡인력을 모색하면서 이를 통해 전시 공간이 외부로 확산되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면성을 고려하였다. 매장으로서는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개방적 개성을 강조하면서 단순한 형태로 계획했다.

외부에서 흡인된 동선이 내부에서도 원활함을 유도하기 위해서 Skip Floor 형 형태를 갖고 각층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공간을 구성했다. 그리고 충분한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시선에 의한 선택과 동선유도를 증대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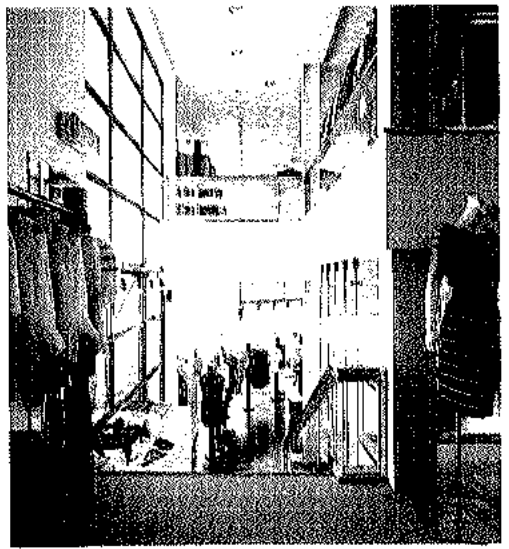
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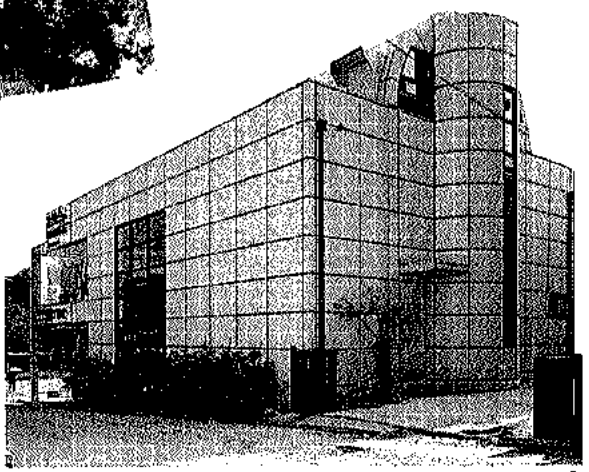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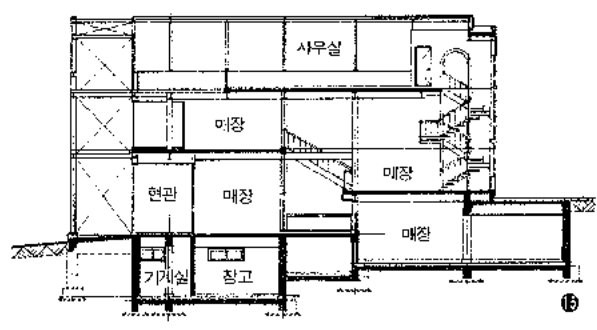
16



18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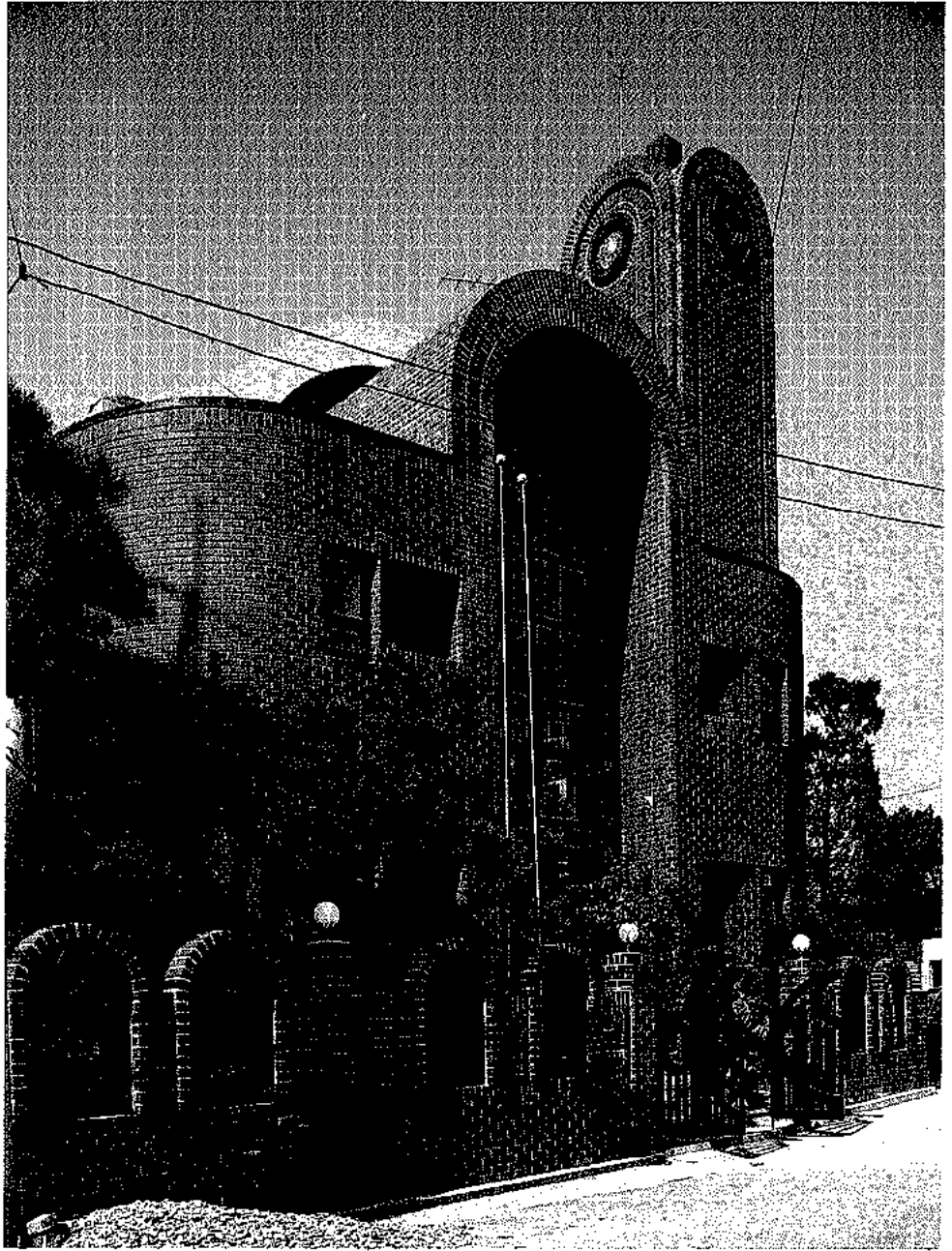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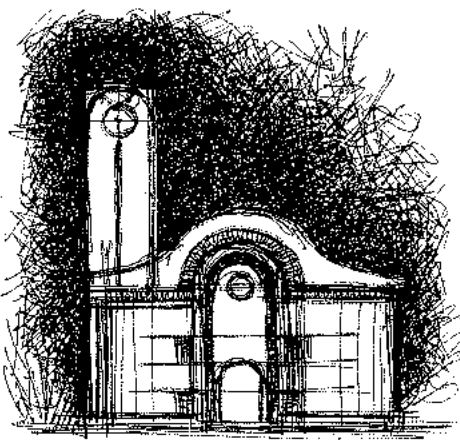
원불교 안암교당

Wonbuddhism
Anam-dong Tem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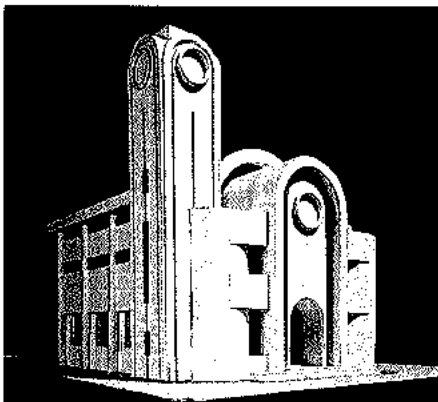
대지위치/서울 성북구 안암동 4가 41-21
지역지구/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대지면적/399㎡
건축면적/197.78㎡
연면적/583.05㎡
건폐율/49.57%
용적률/96.78%
규모/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주요마감/적벽돌 치장쌓기, 칼라 아스팔트형골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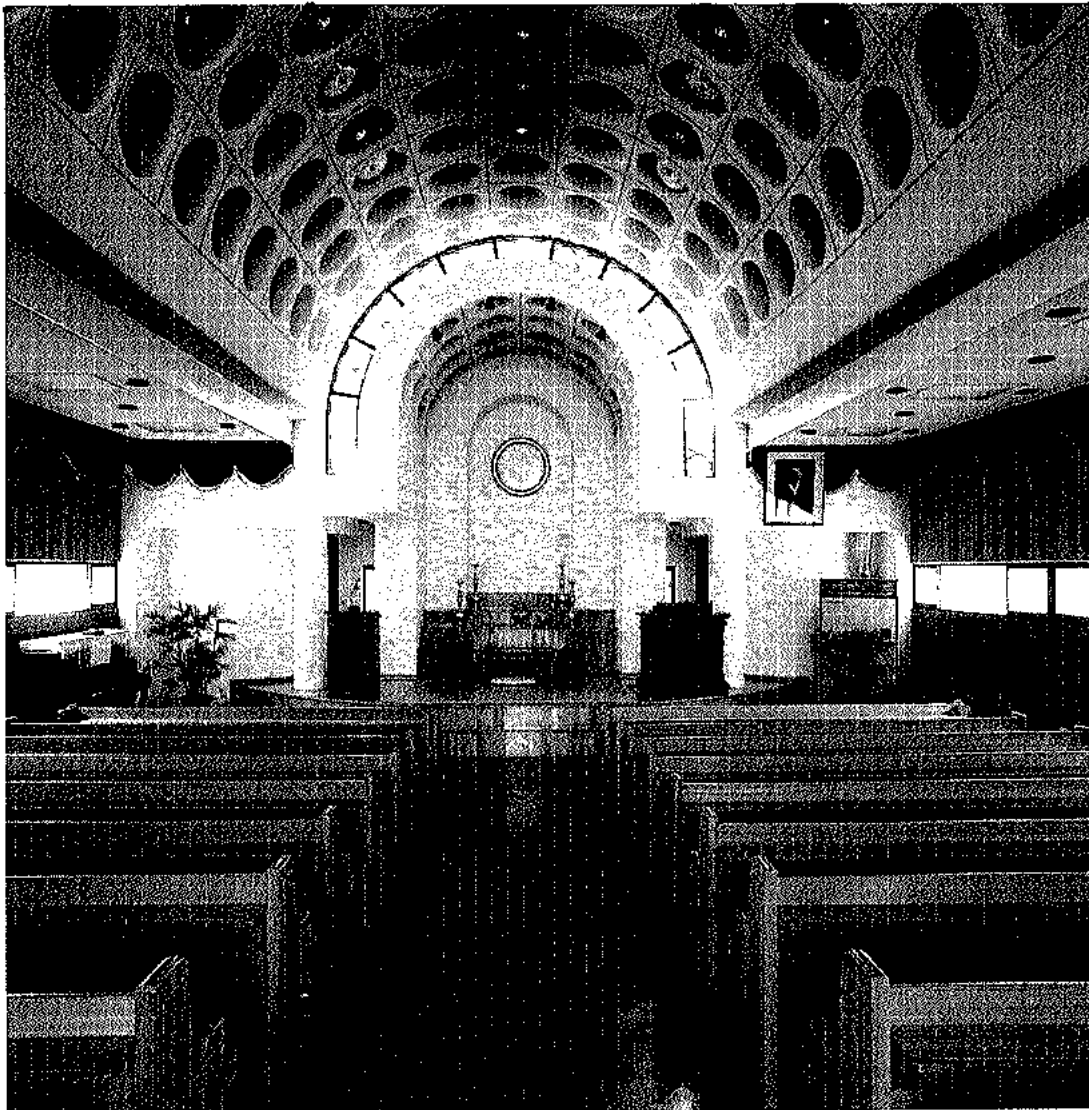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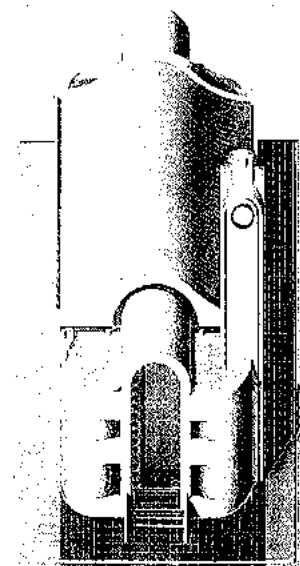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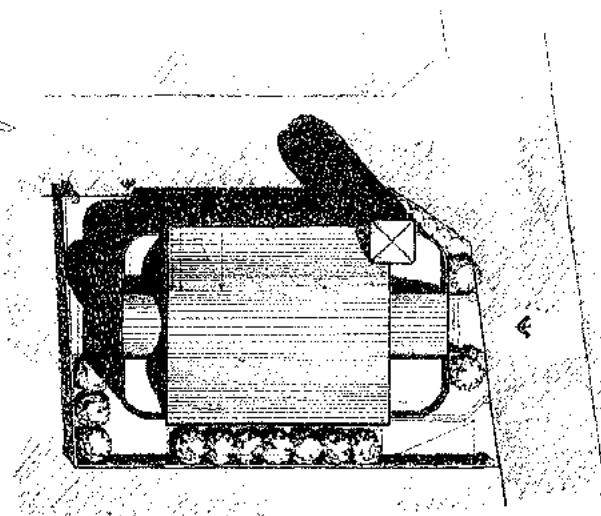
金仁喆/종합건축사사무소 인재건축
Designed by Kim, In-Che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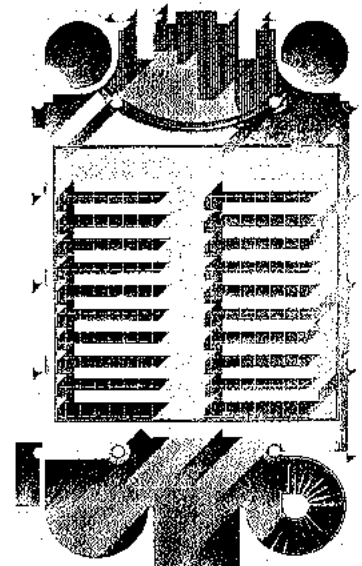
- ① 전경
- ② 초기안스케치
- ③ 스티티모형
- ④ 원경
- ⑤ 법당내부전경
- ⑥ 전경스케치
- ⑦ 배치도
- ⑧ 대법당 평면스케치
- ⑨ 연결계단 양각상세
- ⑩ 배면 외벽상세
- ⑪ 배면 부출입구측 전경
- ⑫ 측면 외벽상세
- ⑬ 주출입구 상세
- ⑭ 전면창호 상세
- ⑮ 종단면도
- ⑯ 1층평면도
- ⑰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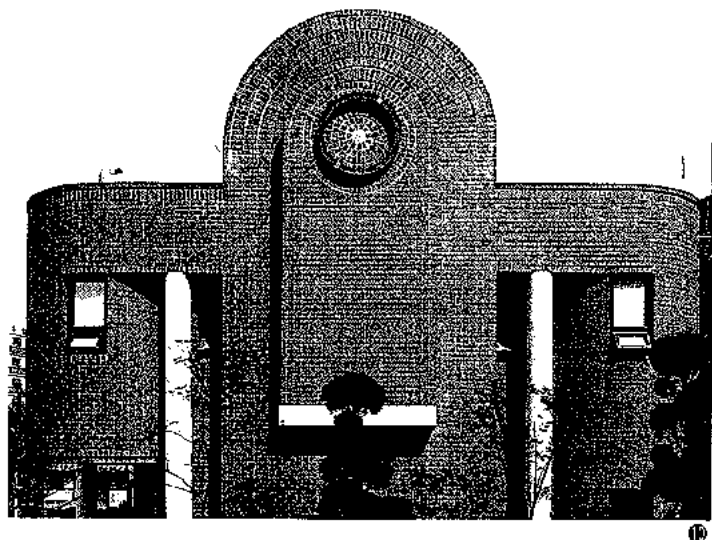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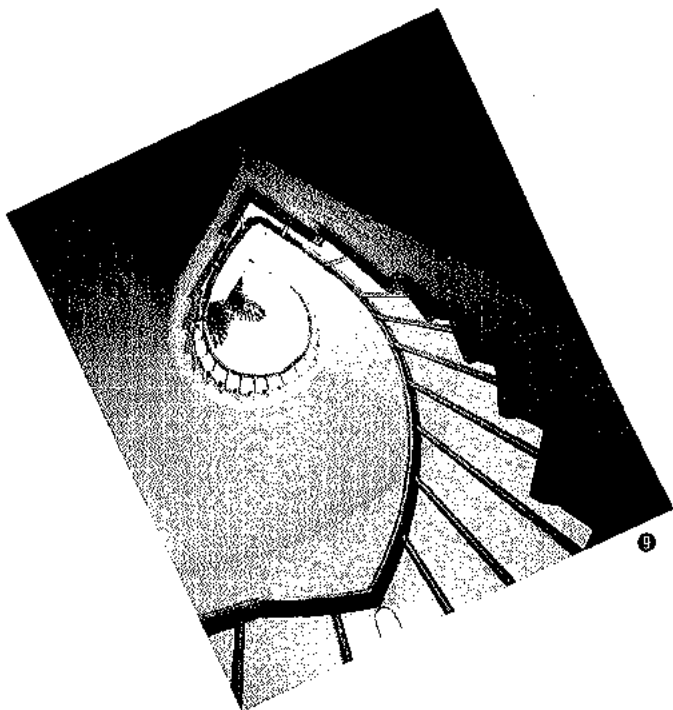
⑥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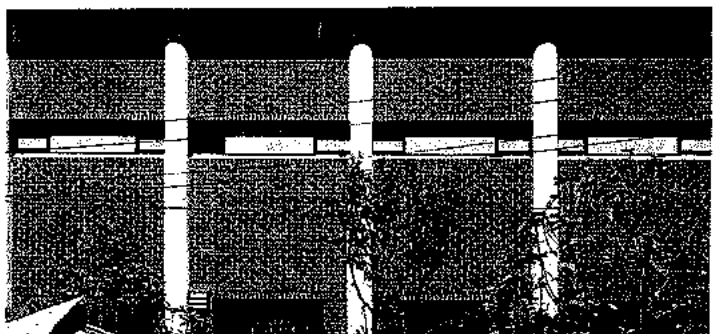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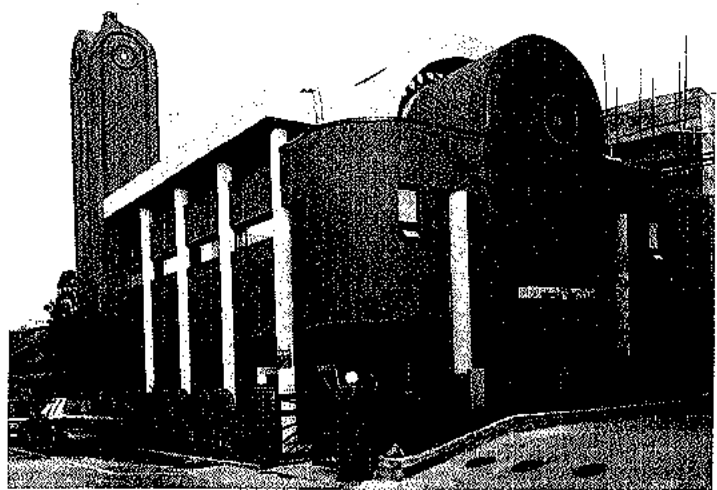
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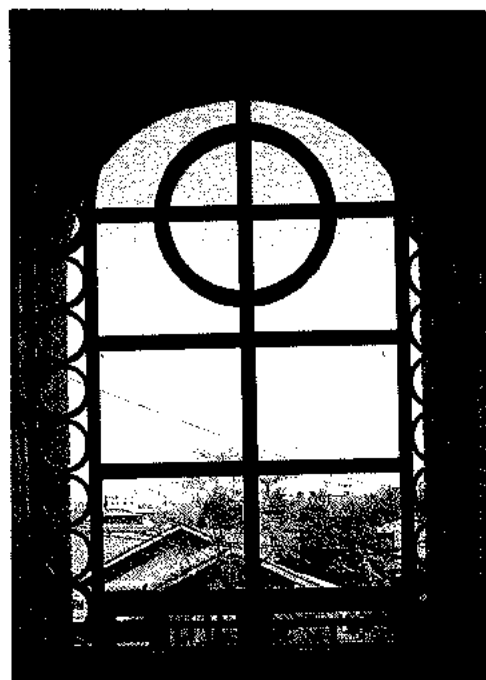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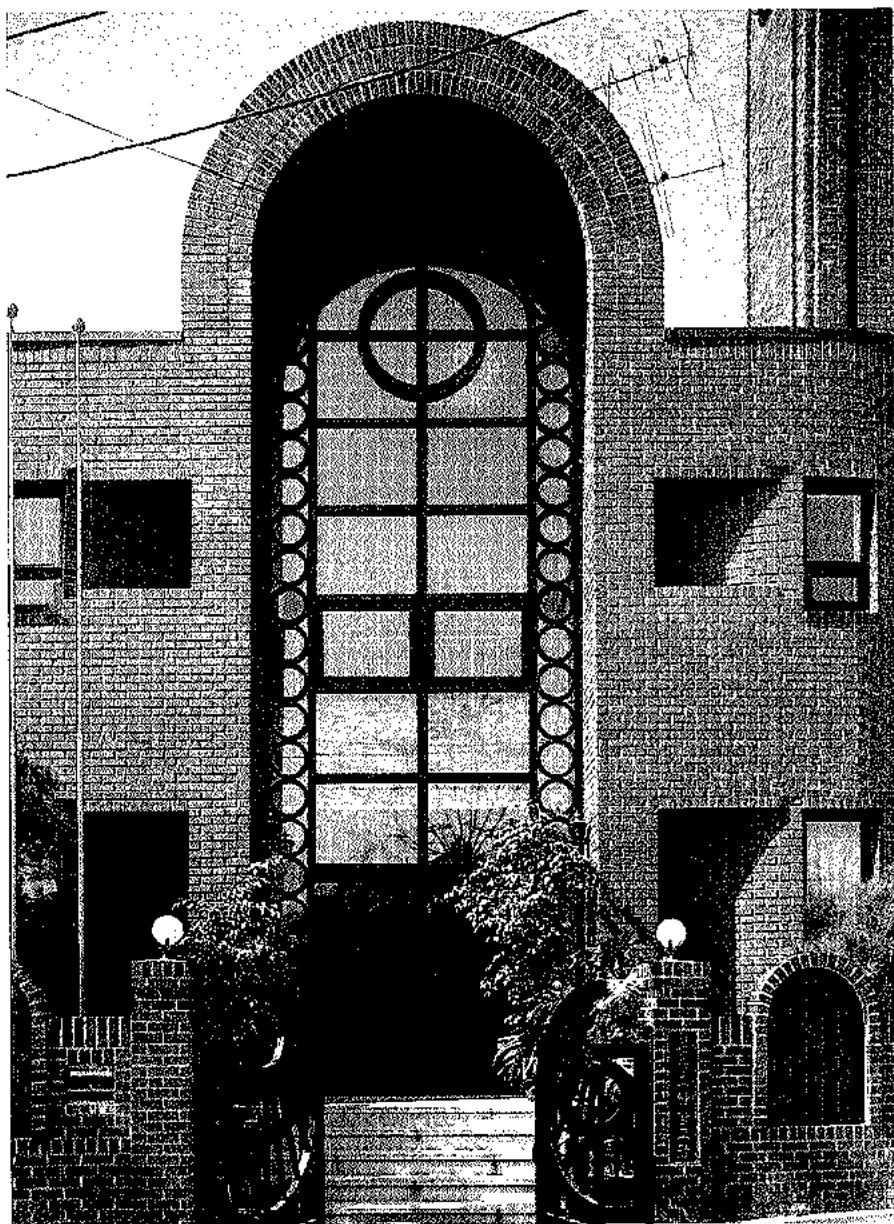


■ 설계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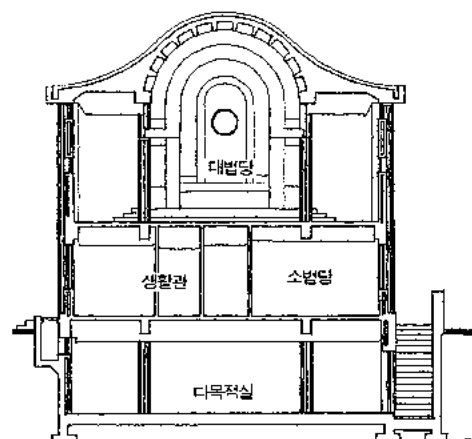
원불교의 교당으로는 강남, 경주에 이은 세번째 작업이다. 강남에 사무실을 차리고 얼마되지 않아서의 일이니까 꽤 오랜시간이 걸렸다. 처음 계획했던 대지는 제기동이었으나 공동지분의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페이퍼워크로만 끝나는 줄 알았던 것이 장소를 옮겨 앉느라 시간이 늘어났다. 강남과 경주의 연속된 과정으로 “원”의 건축적 표현에 관심을 두고 있었을 때였으므로 원의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 있다. 작업이 중단된 사이에 이어 만지게된 우이동 수도원, 소대산기념관, 청주교당의 계획에서는 원의 직설적인 표현보다 은유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으로 생각이 바뀌게 되었으므로 대지가 바뀌었다는 조건을 두고 다시 재확해 보려는 생각을 했지만 굳이 원래의 설계를 고집하는 주장에 밀려 대지조건에 맞추는 변형만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원불교의 종교적 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시각적인 요소로서 원을 사용하고 공간구성은 교회의 형식을 차용했던 것에 대한 반성이 원불교의 종교적 의미와 우리의 전통적 공간개념을 접목시키는 것에 싹마리를 잡아보게 하였는데, 인암교당의 경우는 결국 편하게 넘어가고 만 것이 되었다. 완공을 앞두고 현장을 오가면서 삼년전의 내가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되짚어 보게 됐다. 형태만 들기에 급급해 다른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리석음도 보이고 미처 정리하지 못하고 현장에 내보낸 설계의 설익은 모습도 보인다. 저질러놓고 후회할들 소용없는 일이지만 하지않은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으로 또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남의 능력을 빌어 나를 연습한다는 것이 부끄럽기까지 하지만 도리가 없다. 그럴 수밖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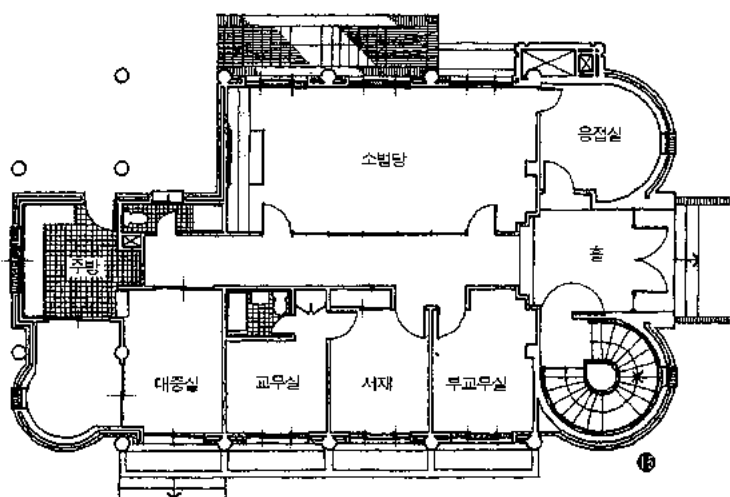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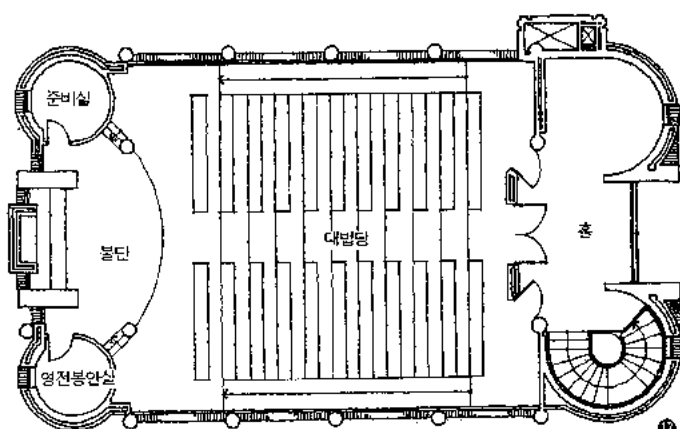
12



13



14



15

Mok-dong 3rd Park



2

Designed by Ryu, Choon-S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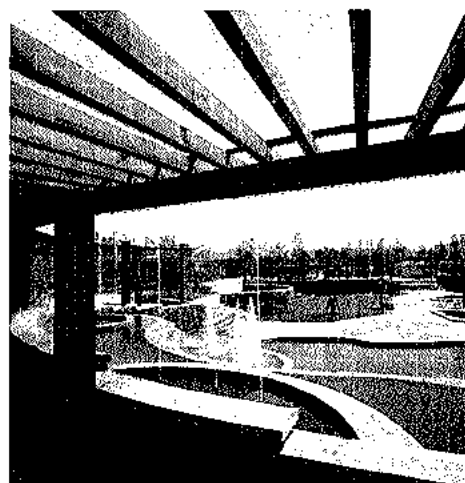
3



6



4



7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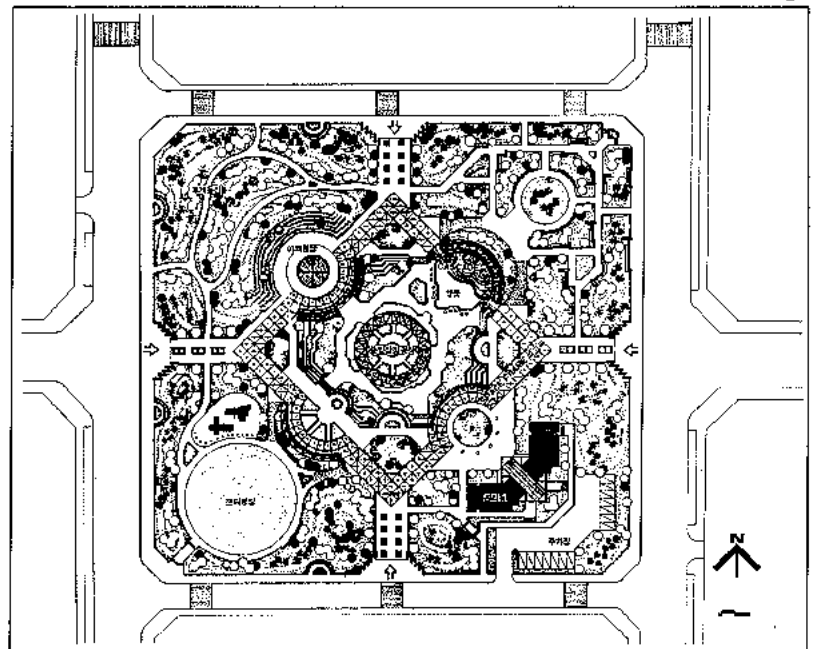
- ① 관리동 전경
- ② 공원 이미지 스케치
- ③ 관리동 주출입구 상세
- ④ 관리동 주출입구 내부현관
- ⑤ 공원 전경
- ⑥ 야외광장
- ⑦ 파고리에서 본 연못
- ⑧ 중앙상징광장
- ⑨ 연못 전경
- ⑩ 배치도
- ⑪ 중앙광장측에서 본 관리동 전경
- ⑫ 배치 개념스케치
- ⑬ 관리동 외벽상세
- ⑭ 관리동 평면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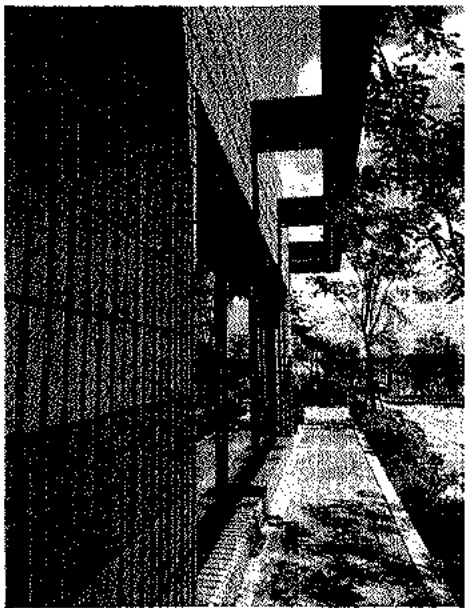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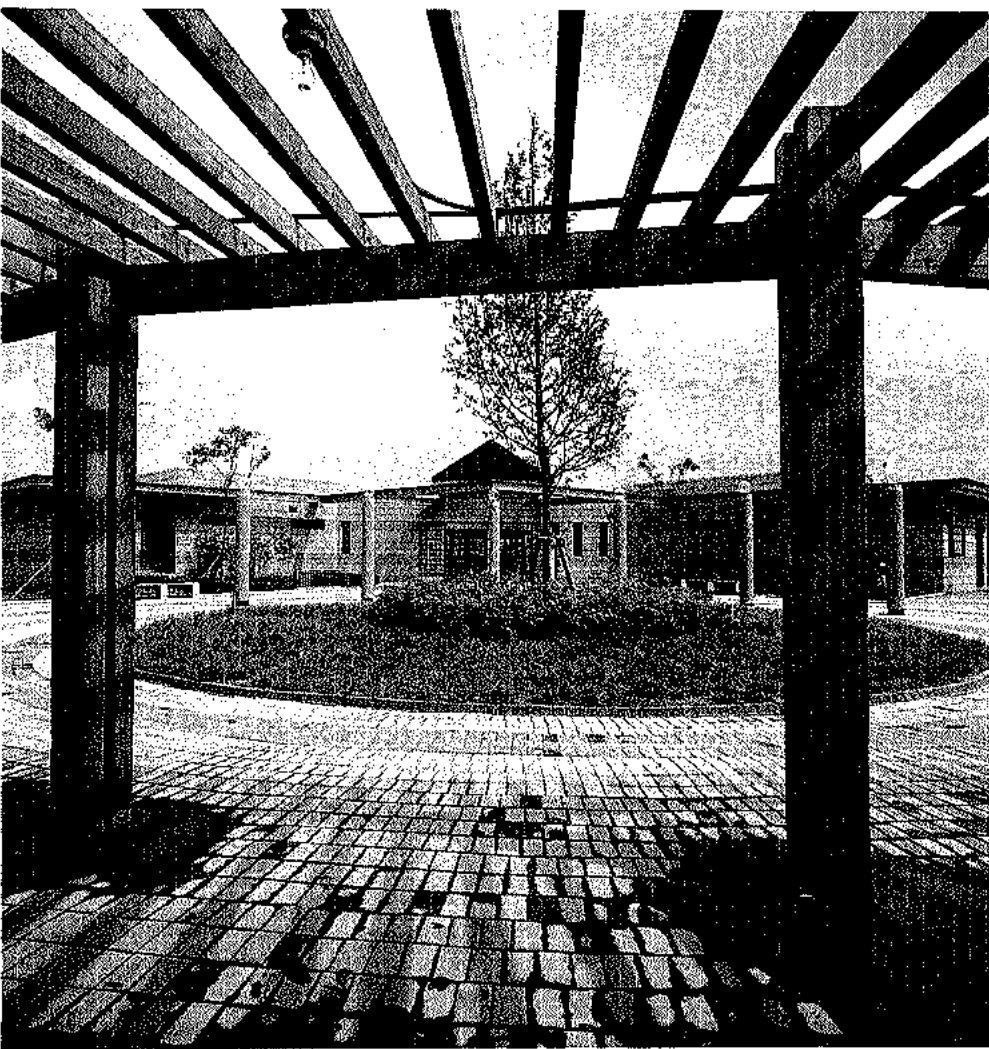


■ 설계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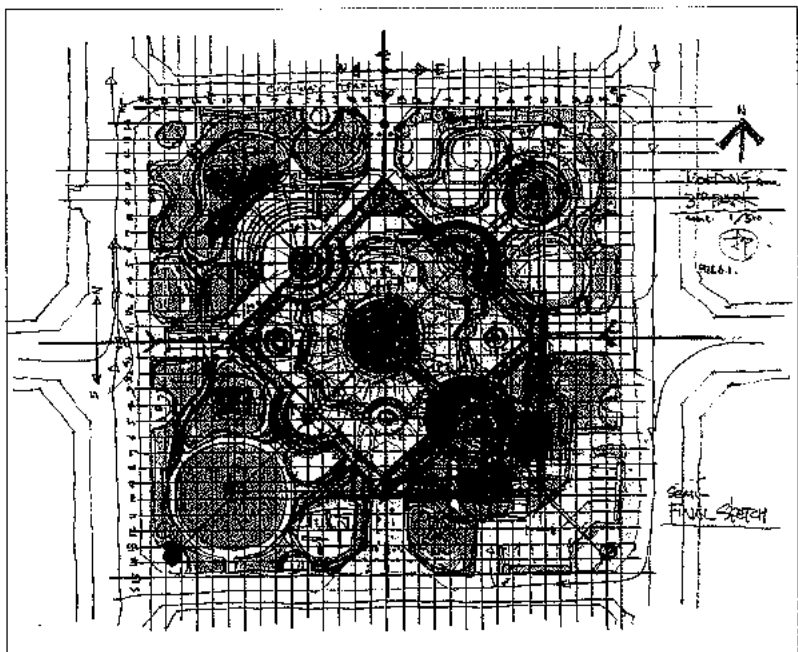
목동 신시가지 마스터 플랜상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강한 상징성을 띠고 있는 150m 정방형의 계획대지는 남·북측 도로에 인접해 들어설 문화회관 및 국제회의장과의 연계성, 주변 고층업무시설지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아파트주민 위주의 근린공원으로서 보다는 도시공원으로서 보이는 구태의연한 평면적, 정적 공원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기능과 계층이 수용될 수 있는 이용도가 높은 다목적 공원의 조성을 계획의 전제로 하였다.

도시설계상 설정된 대지 4면에서의 크로스형 진입을 지키면서 내부공간이 도식적으로 단순화되지 않도록 각기 다른 기능 및 형태의 공간이 다양한 고저차로 내부 보행로를 따라 유기적으로 펼쳐지도록 하였다. 또한 중앙의 상징광장 및 보행로 상부의 스페이스 후레임이 공원의 각 공간을 연계하는 조형적, 상징적 프레임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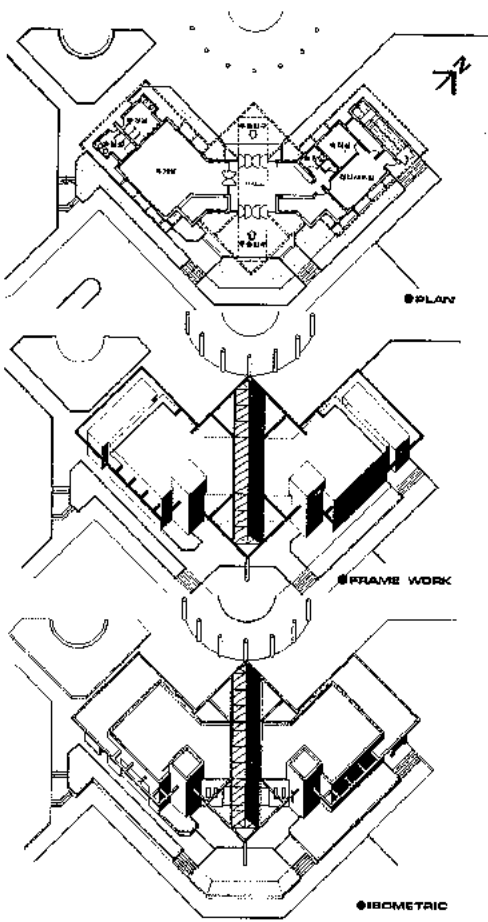




18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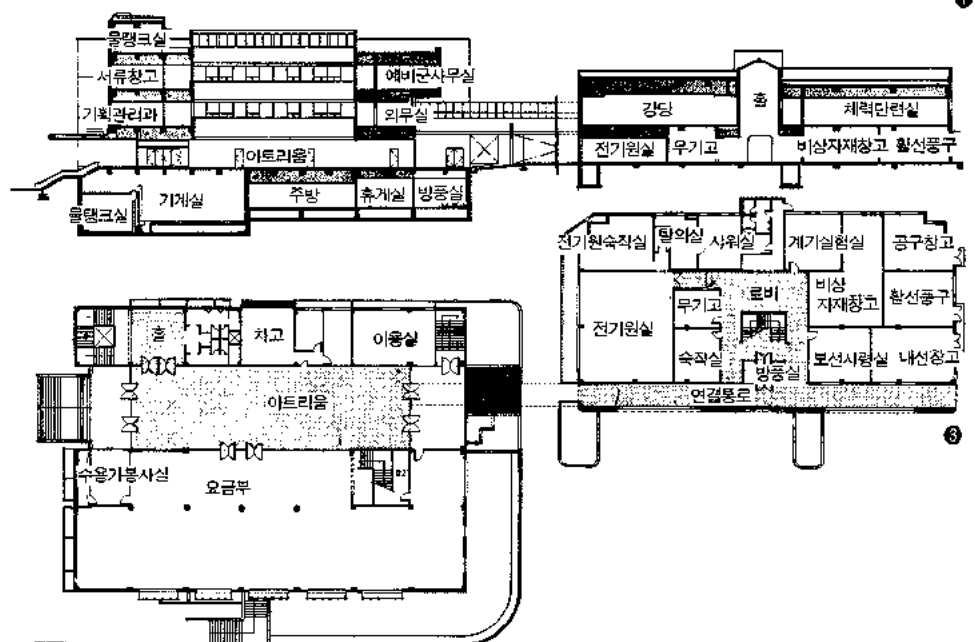
20

한국전력공사 동부지점

Dongbu Branch of the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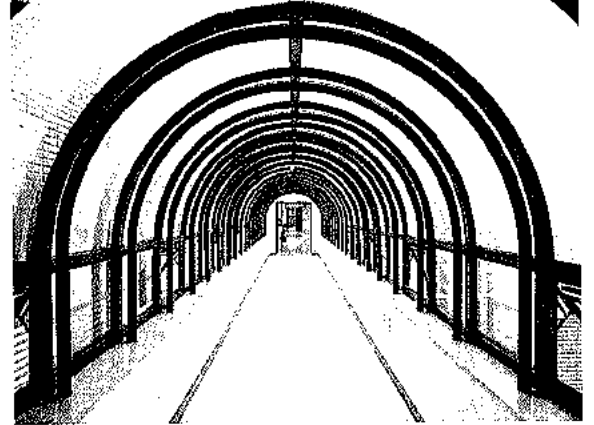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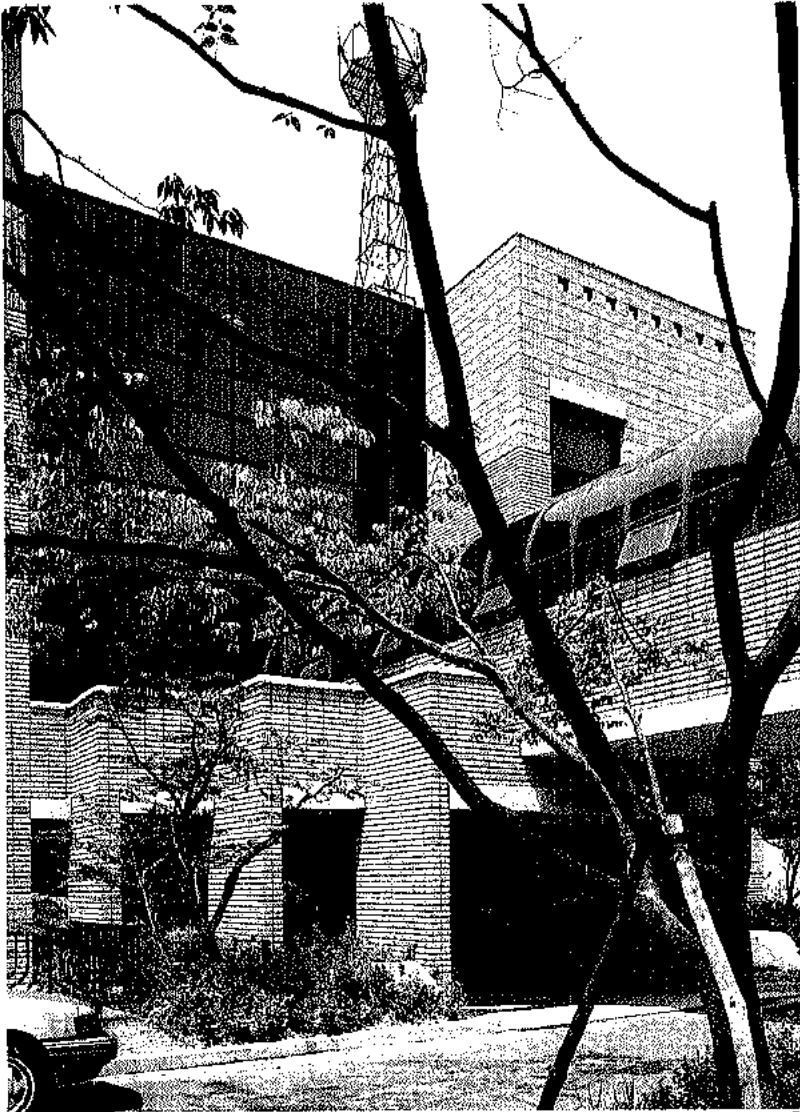


대지위치/서울 동대문구 묵동 128-56
대지면적/6,869.8㎡
건축면적/2,145㎡
연면적/5,933.47㎡
외장재료/석기질타일
구조/철근콘크리트
규모/지하 1층, 지상 3층
외부마감/석기질 외장타일



金基雄/(주)종합건축사사무소 삼정
Designed by Kim, Kee-Woong

- ① 서남방 주출입구측 전경
- ② 횡단면도
- ③ 1층평면도
- ④ 본관 연결통로 외부상세
- ⑤ 1층현관로비
- ⑥ 연결통로 내부
- ⑦ 배치도



설계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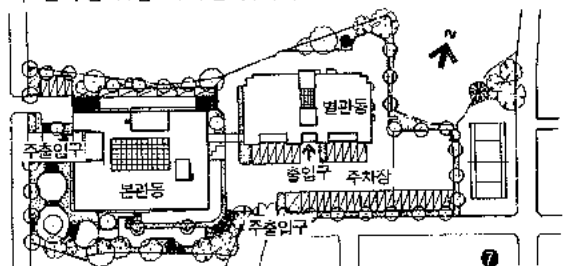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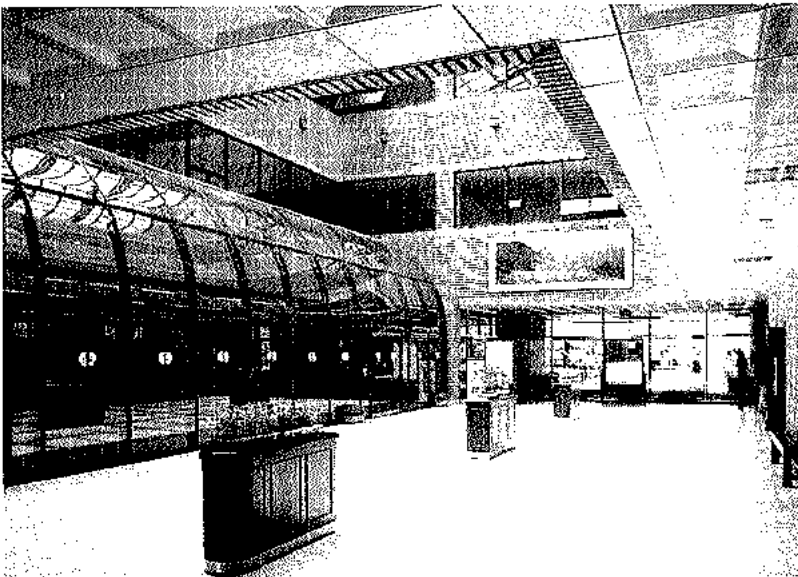
기존의 주거지 안에 사무실을 짓자면 대개 주변의 울창한 주택들에게 환경적 충격을 주게 마련이다.

땅지가 큰 건물이 자란 주택사이에 우뚝 섰을때는 심리적 충격이 대단할 뿐 아니라 자란 주택들에게 압력을 가하여 쫓아내려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이사가려고 집을 내놓게까지 되는 것이다.

작은 대지와 좁은 가로망으로 구성된 일단의 대지에는 주민들이 마실을 다닌다거나, 동네 아이들이 뛰어 논다거나, 출근길을 어디로 해서 큰길까지 나간다거나, 가게에 반찬을 사려면 누구집 앞을 통과해서 간다든가 하는 흐름들이 형성되어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통합된 큰 대지는 사실상 이러한 흐름들의 맥을 끊거나 뒤바꾸어 놓아서 동네에 혼란을 주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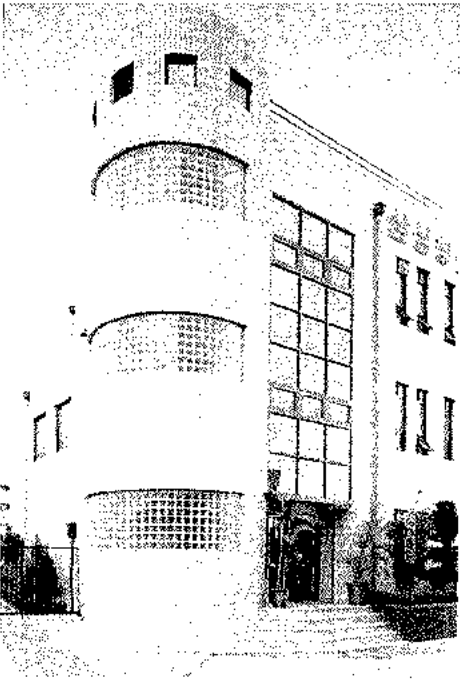
이 대지에 한전의 지점사옥을 배치할 때에는 바로 옛날의 흐름을 되살려 주기 위해서 대지내에서 "시각적 순통"을 띄워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온당한 일일 것이다.

또 이 대지의 형상이 주는 특성으로, 동서로 기다랗게 생겼기 때문에 서쪽 끝의 큰 길에서 동쪽 끝까지 어지간한 힘으로는 하나로 통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다시 말하면 동쪽 끝의 대지는 잘못하면 버려지게 될 우려가 있다는 말이다. 또 서쪽으로부터 지세가 상승하여 동쪽 대지 밖의 산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 상승감을 대지내에서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동서로 뻗는 강한 교통로(축)를 설정하였던 것이다. 이 교통로를 따라서 실제로 인원이 이동할 뿐 아니라 대지내의 건물과 빈터를 조직적으로 연결할 수 있으며 시각적으로도 옥내, 옥외가 연결되면서 대지의 구석까지 환기가 얻어질 것을 기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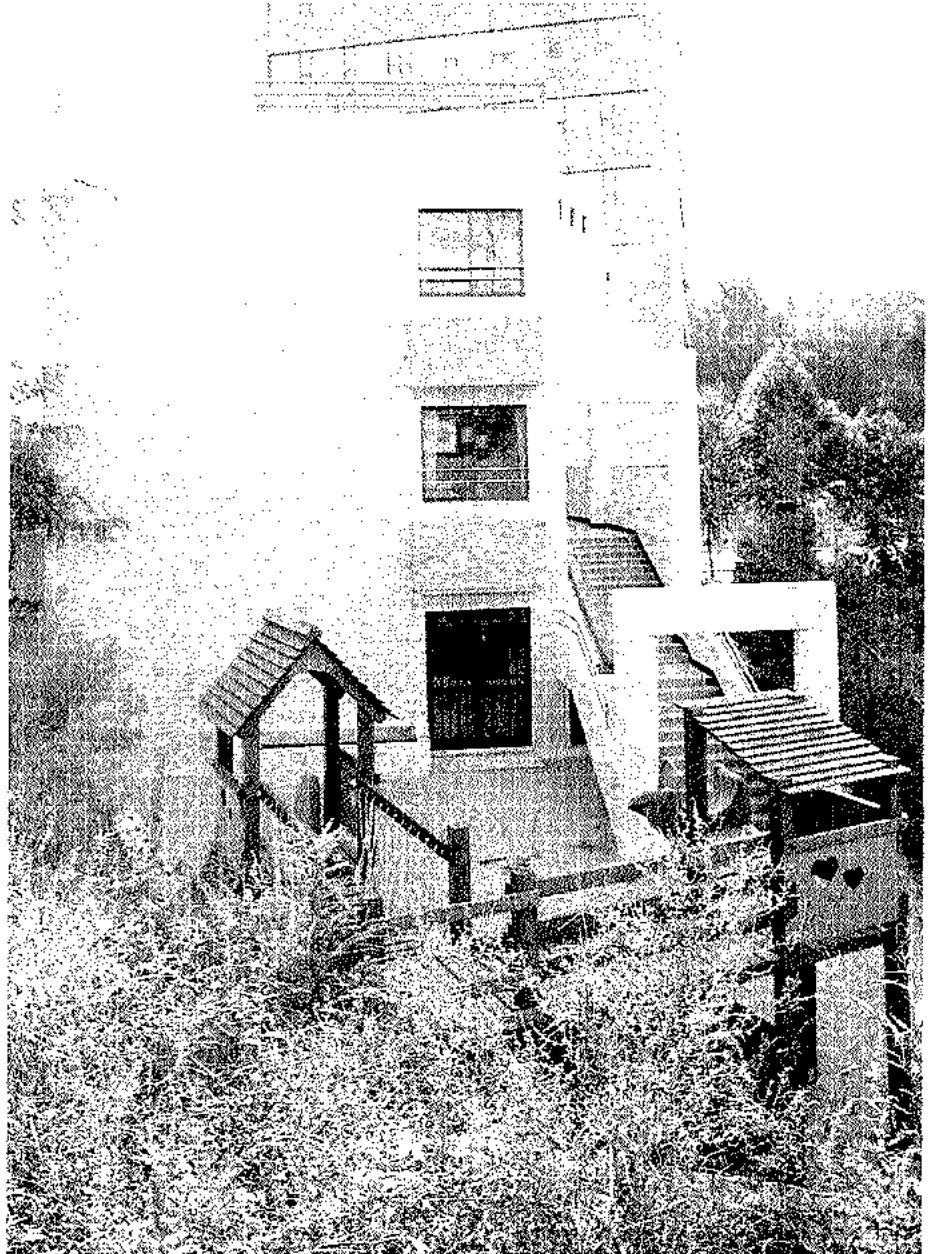
남부 새마을유아원

Nambu Saemaeul Kindergart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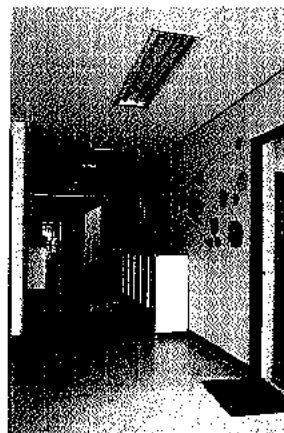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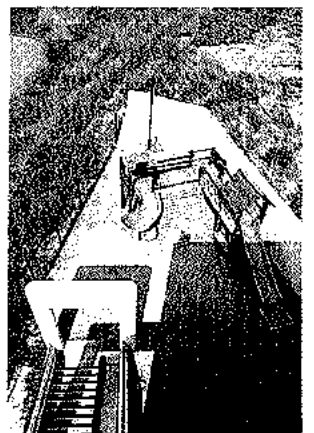
대지위치/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89-2
대지면적/682.1㎡
건축면적/259.91㎡
연면적/845.82㎡
구조/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규모/지하 1층, 지상 4층
외장재료/외장타일 및 외부용 세라믹페인트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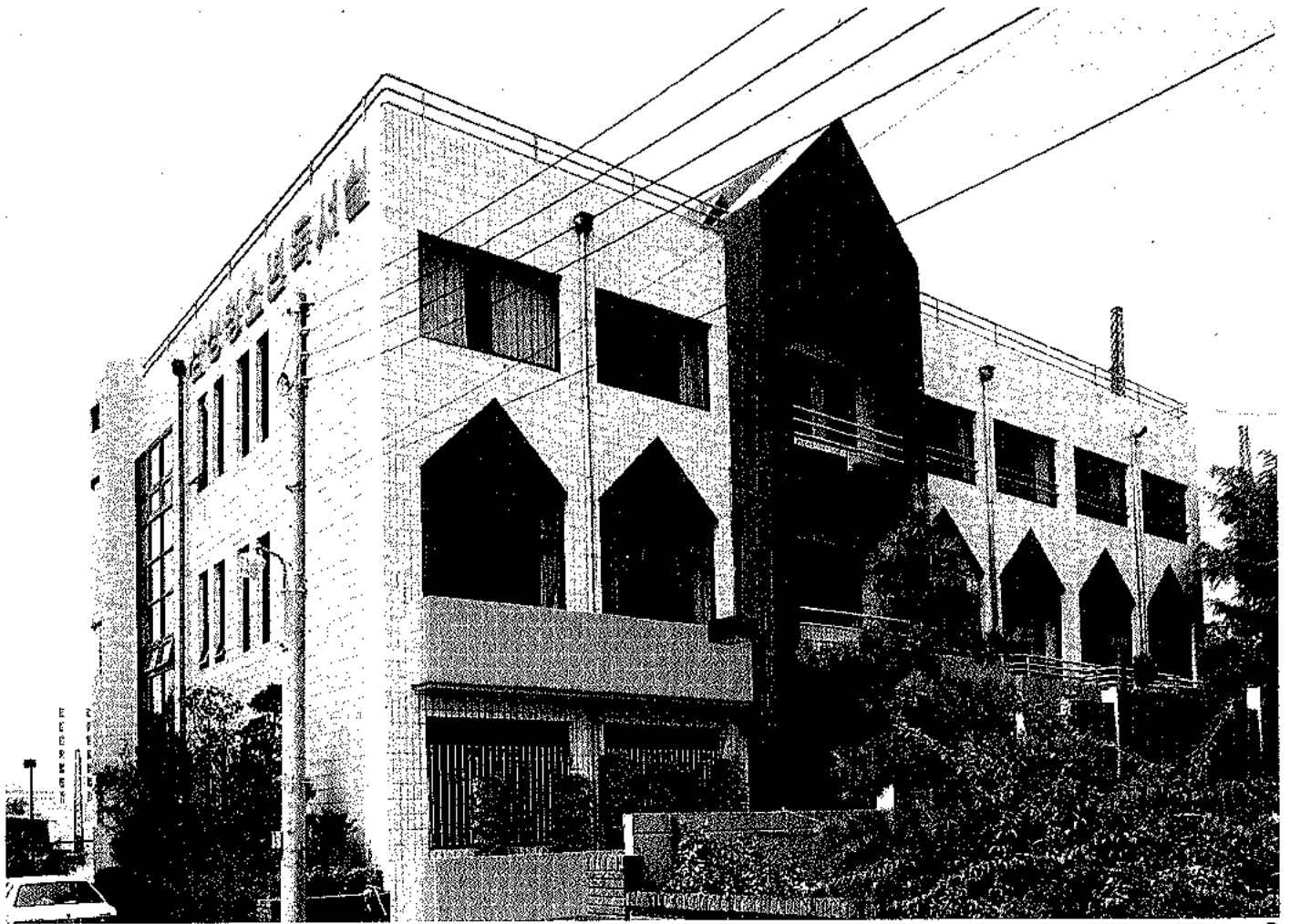


4



5

李 靚/창우·정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Bok



6

■ 설계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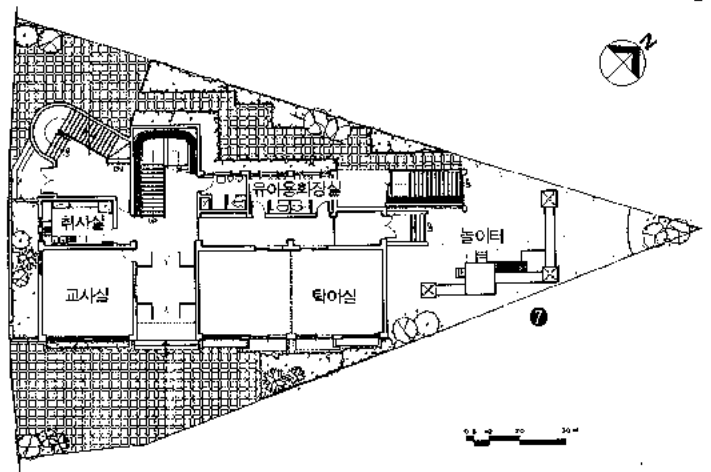
본 설계는 강남지역의 저소득층 자녀들의 조기교육과 청소년들의 학습의 장으로 계획되었다.

주어진 조건(대지의 형태, 한정된 예산, 규모)을 전부 수용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이 있었으나 협의과정에서 조정되어 큰 무리없이 시행되었다. 배치는 이용자에 따른 주출입구와 동선을 분리하였으며 유지관리를 위한 연결통로를 설치하였다.

유아들을 위한 옥외놀이 시설공간은 부족함이 있었으나 그 나름대로 확보코자 하였으며 특히 대지의 꼭지점 부분에 야외놀이 공간을 계획하였으나 시공과정에서 생략되어 섭섭함을 느끼게 하였다.

내부공간은 가변성이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특히 계단 옆에 경사로(마끄럼틀)를 설치하여 아동들이 이용토록 하였으며 청소년들이 학습하는 사이의 휴식을 위한 내부공간을 설치하고 지붕에 구조물로 Pagoda를 설치, 옥외 휴식공간으로 이용토록 하였다.

외관은 유아들이 태어나서 처음 시작하는 교육공간에 대한 거부감이 아닌 하고자 하는 외욕이 생기도록 칼리와 형태로써 변화를 주어 호기심을 유발토록 계획하였다. 초기에는 곡선을 이용하여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하였으나 협의 과정에서 직선으로 수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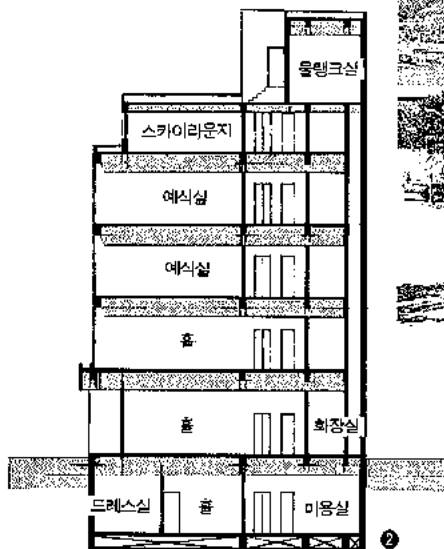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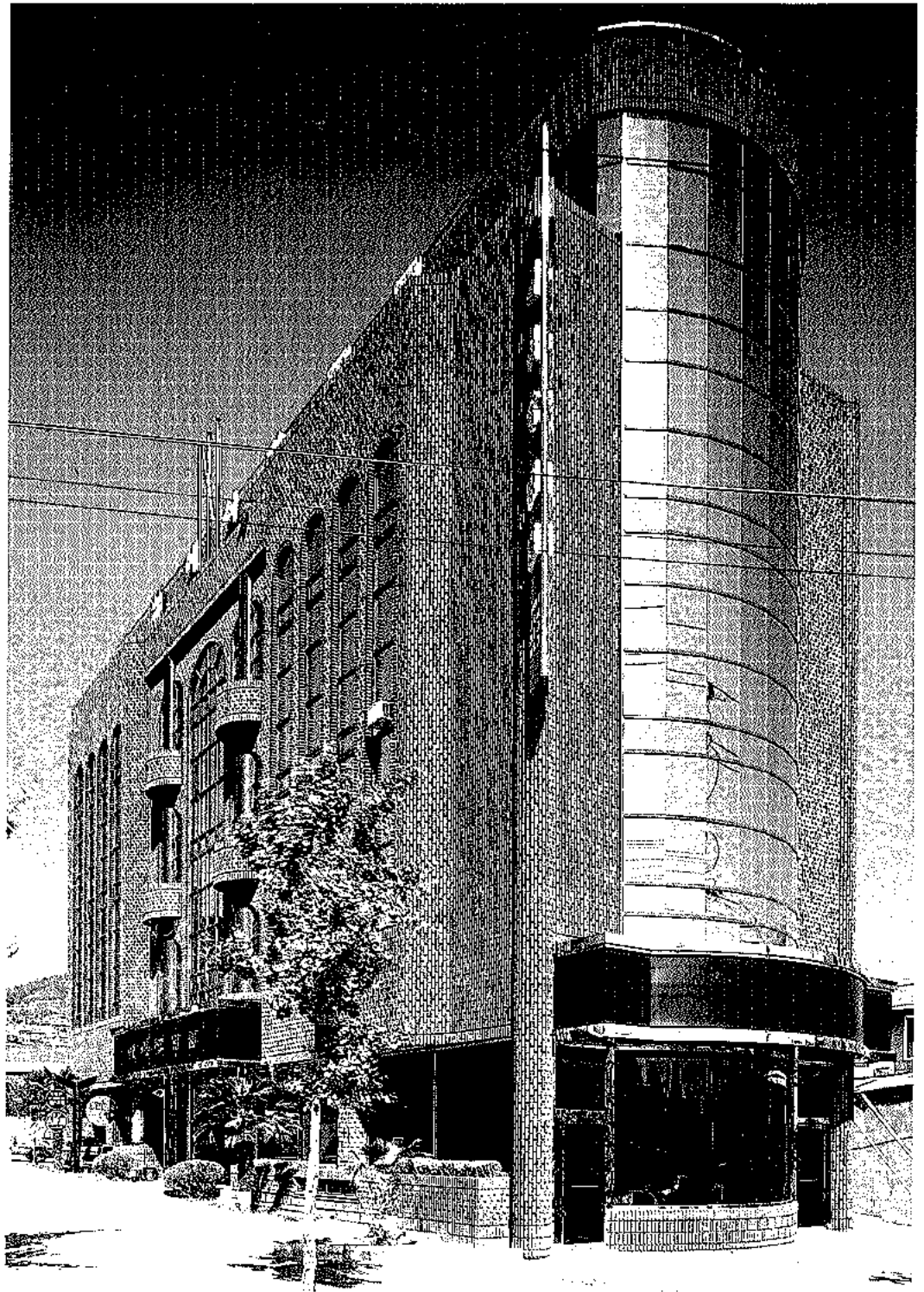


- ① 서측 주출입구상세
- ② 동측전경
- ③ 연결통로
- ④ 1층복도
- ⑤ 놀이터
- ⑥ 정면 전경
- ⑦ 배치 및 1층평면도

전원예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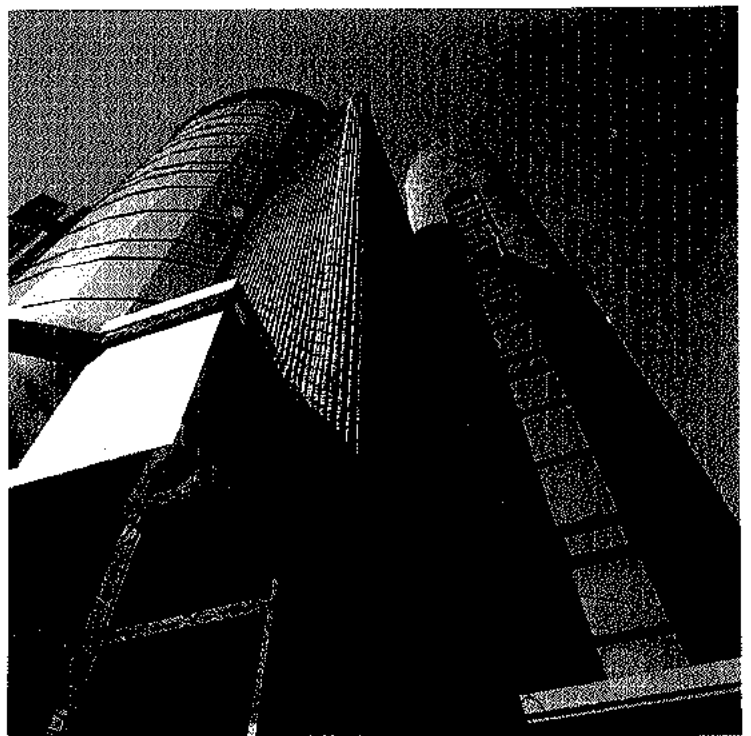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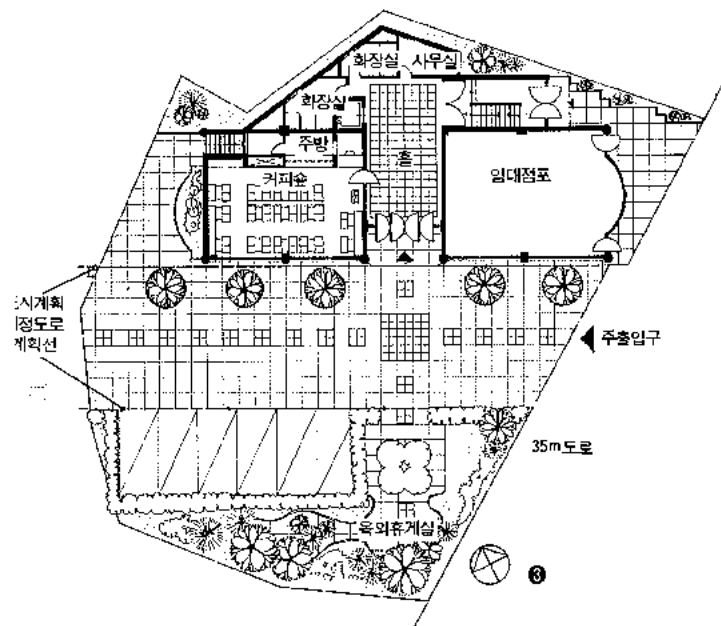
Jun Won
Wedding Hall
BD.

대지위치/전남 여수시 서교동 691
지역지구/상업지역, 방화지구
대지면적/396.40㎡
건축면적/286.35㎡
연면적/1,646.22㎡
건폐율/72.48%
용적률/343.06%
규모/지하 1층, 지상 5층
구조/RC조
주차대수/6대
외부마감/테라코타 외장타일+
반사유리 커튼월



- | | |
|--------------|------------|
| ① 전경 | ⑦ 5층스카이라운지 |
| ② 단면도 | ⑧ 예식장내부 전경 |
| ③ 배치 및 1층평면도 | ⑨ 1층커피숍 |
| ④ 부출입구측 외벽상세 | ⑩ 5층평면도 |
| ⑤ 전면주출입구 상세 | ⑪ 3.4층 평면도 |
| ⑥ 1층로비 | |

宋健洙/종합건축사사무소 靜因
Designed by Song, Kun-Soo



4

■ 설계소묘

도시의 가로 경관은 가로변 건물들에 의해 주로 형성되며 이는 도시환경을 좌우하게 된다. 도시의 건물들은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생성소멸 되는데 새로운 건물이 축조됨은 도시환경에 변화를 주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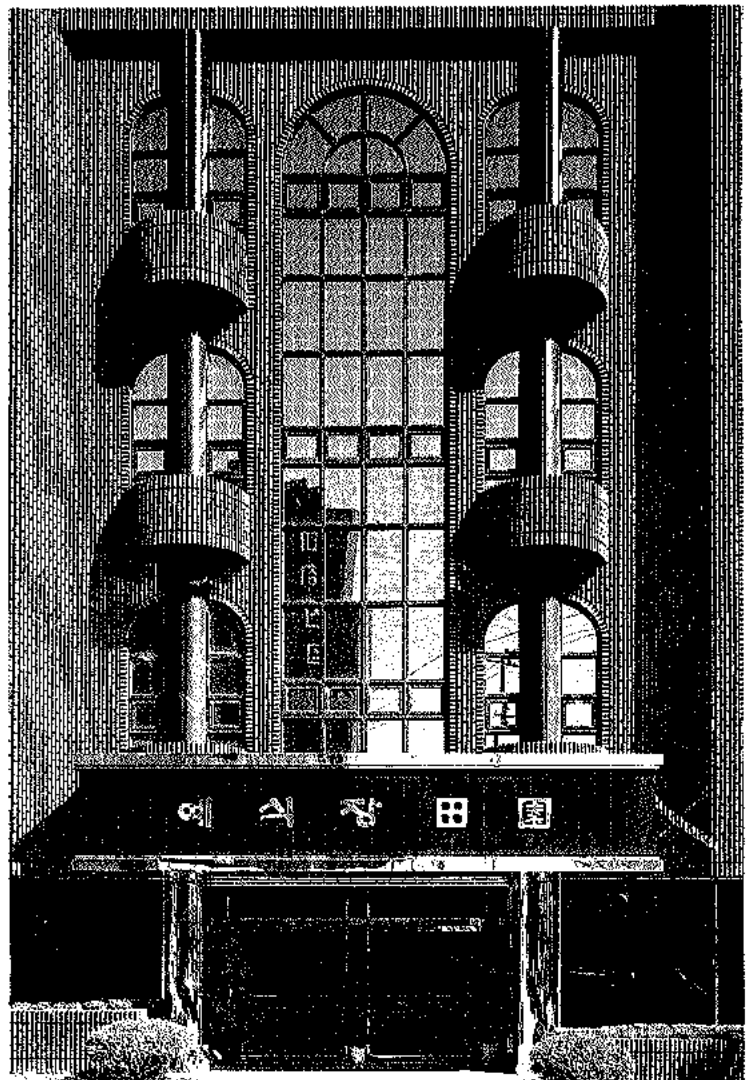
이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줌으로써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오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본 계획으로 인하여 새로운 도시공간 형성의 촉진제가 될수 있으면 하는 바램은 설계자의 과욕(?)은 아닐 것이다. 본 계획은 도시 계획적 측면에서 이러한 점을 초기 계획단계에서부터 감안하여 설계를 착수하였으며 • 새로운 도시 공간 형성의 Motive 제공 •예식장 건물로서의 Identity 확보 •문화공간으로 지역사회 기여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본 건물은 35m 대로변에 사선으로 구성된 대지의 비정형과 대지 중앙을 가로지르는 도시계획 예정도로에 의해 건물의 정면성 확보 및 진입방향 설정이 설계 초기시부터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예식장 전용 건물임을 감안하여 주진입을 대로변에 두지않고 남측 중앙부에 설정하여 주출입구 주변의 혼잡성을 피하고 부출입구를 전면주도로(35m)쪽에 둠으로써 동선의 원활성을 유도하였다. 주차장은 도시계획 예정도로에 의해 분할된 남쪽대지에 확보하였으며, 주차장과 함께 주변에 옥외휴게공간을 두어 예식장 주변경관 및 대지활용을 극대화하였으며, 도시계획 시행전까지 대지의 일부로 사용하여 예식장 전면의 Open Space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평면은 사업성을 감안하여 가능한 단순하게 구성하였으며 대지형태에 의해 생기는 사선부위를 Core 및 설비공간(duct space)으로 처리하여 면적의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5층 스카이라운지는 도로 사선제한으로 후퇴하게 됨으로 인한 Mass의 이색함을 해결하고자 꼭두의 커튼 월과 연결하여 연속성 있게 처리함으로써 외관이 자연스럽게 구성되도록 하였다.

외장 재료는 예식장 전용 건물임을 감안하여 중후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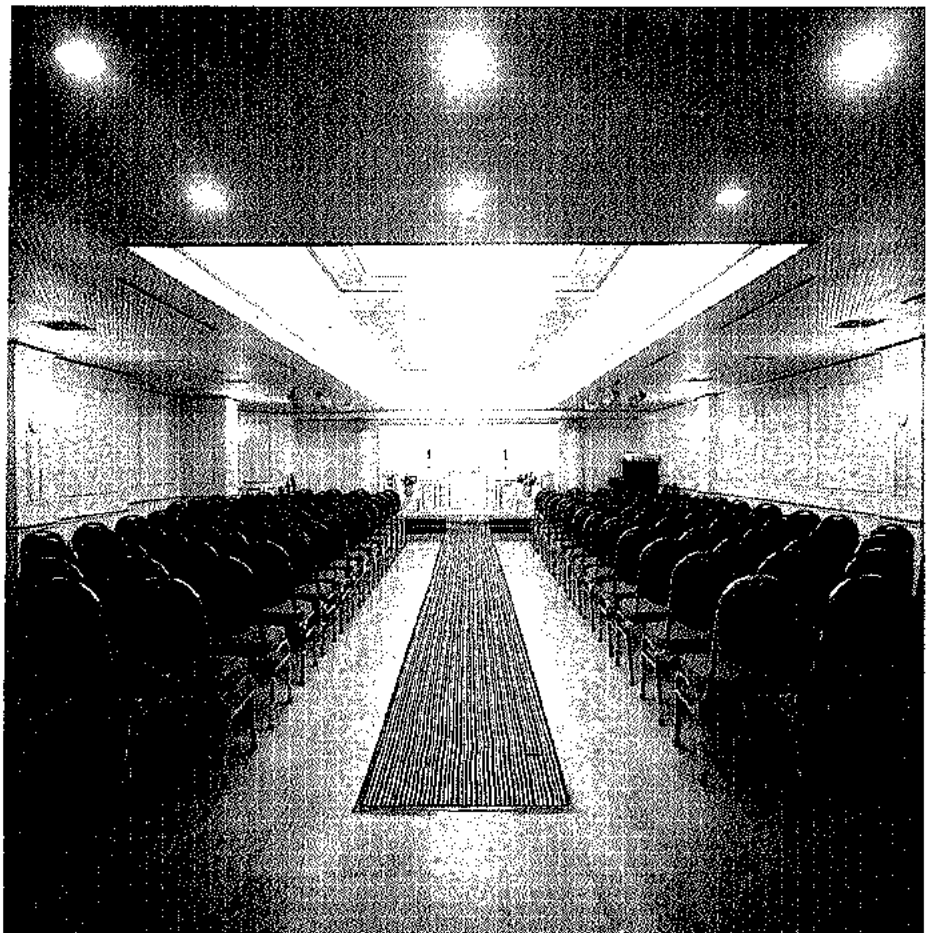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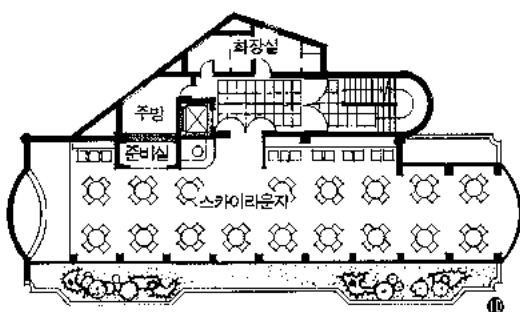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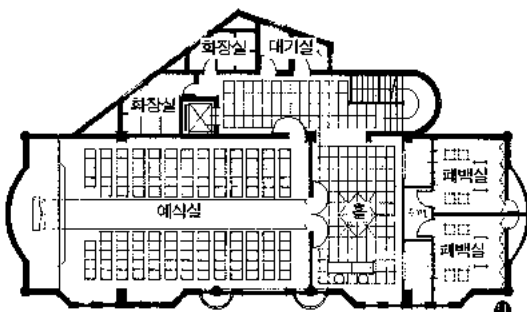
7



8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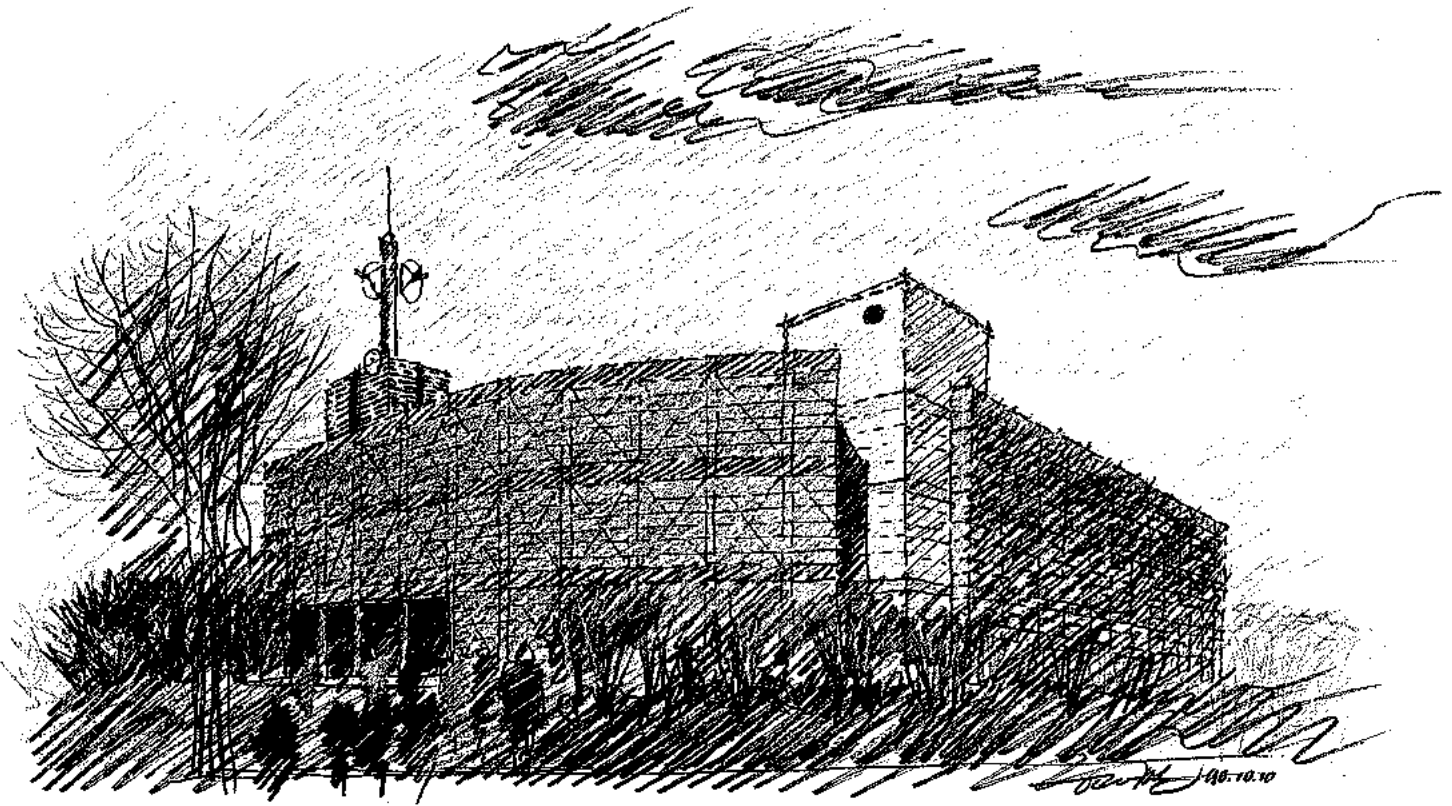
11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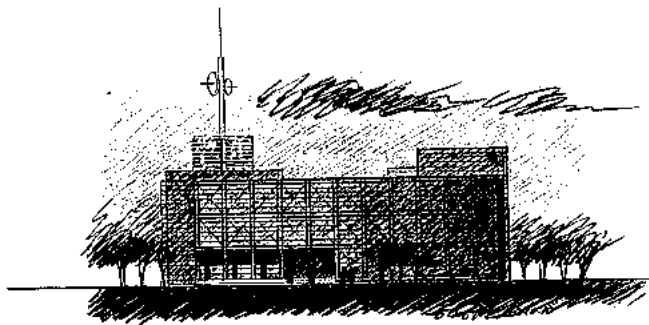
T 연구소 계획안

T Research Institute Project



건 축과정 속에 스케치는 건축개념 전달의 중요한 도구이다.
정신분열증으로 일어나는 많은 건축어휘를 스케치로 표현하는
것이 제약을 갖지만 건축가의 의지의 표시일 것이다.
건축스케치가 갖는 순수함은 즐거움을 갖게 된다.
T연구소 계획안은 계획 중간과정 속에 표현된 건축어휘
전달을 위한 스케치이다.

李光萬/(주)간 · 삼중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Kwang-Mann



本協會는 每年 가을에 開催하였던 建築士 作品 巡廻展과 新人・學生 建築設計公募展을 發展的으로 統合, 1991년부터는 「韓國建築展」으로 名稱을 變更하고, 全國建築士大會와 並行하여 開催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71年 '農村住宅 懸賞募集'으로 始作된 建築士 作品巡廻展은 그동안 우리나라 建築界 發展의 礎石이 되어 왔으며, 더불어 開催되어 왔던 新人・學生 建築設計公募展은 새로운 建築文化의 開拓者를 養成해온 産室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協會는 우리나라 建築文化 暢達이란 時代的 使命 아래 그동안 未洽했던 점들을 補完, 發展시켜 全 建築界의 盛大한 祝祭가 되도록 할 豫定입니다

특히 施賞 制度를 大幅 強化하여 會員 및 新人・學生들의 創作 意慾을 북돋우기 위해 그 格을 높이는 한편, 一般人들의 參與를 誘導하여 建築 底邊 擴大를 圖謀하는 立體的인 展示 計劃을 樹立하였습니다.

우리나라 建築文化의 새로운 氣風 造成을 위한 本協會의 努力에 建築界 모두의 積極的인 聲援을 바라며, 會員 및 新人・學生들의 폭넓은 參與뿐 아니라 “韓國의 建築을 새롭게 자리 매김”할 優秀한 作品과 斬新한 아이디어가 出品되어 우리 建築文化 位相을 한층 더 드높이는 契機가 되기를 바랍니다.

■ 開催時期

-1991年 3月の '91 全國建築士大會와 並行하여 開催
(1991년 4월부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주요도시 순회 전시)

■ 出品資格

- ◆ 建築士部門: 1991년 1월 現在 개업 建築士
- ◇ 新人部門: 日선 설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및 건축전공 대학원 재학생.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 제외)
- ◇ 學生部門: 대학 및 전문대학 건축전공 재학생

■ 施 賞

◆ 建築士部門

- * 大 賞(1)-國務總理賞: 상장 및 트로피
- * 最優秀賞(1)-建設部長官賞: 상장 및 트로피
- * 優 秀 賞(3)-協會長賞: 상장 및 트로피
- ※ 수상작품의 건축물에 수상기념패 부착

◇ 新人部門

- * 最優秀賞(1): 상금 300만원 및 상패
- * 優 秀 賞(1): 상금 150만원 및 상패
- * 獎 勵 賞(3): 상금 50만원 및 상패

◇ 學生部門

- * 最優秀賞(1): 상금 200만원 및 상패
- * 優 秀 賞(1): 상금 100만원 및 상패
- * 獎勵賞-市道支部會長賞(多數): 상금 30만원 및 상패
- ※ 수상자중 영어회화 능력을 갖춘 2명을 선발, ARCASIA 학생잡머리 파견특전 부여.

建築士 여러분께 !

李勝求 / 國會建設委員

오늘의 高度 産業社會의 특징은 多種多樣한 分業現象과 高度의 專門化가 잘 조화를 이룬 가운데 相互補充과 相互協力이 이루어지면서 善意의 競爭을 하면서 소위 先進化가 이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創造의 세계를 主導하는 여러분 大韓建築士協會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있는 존재요, 국가사회발전에 가장 先導的 貢獻을 하고 있는 團體요, 가장 큰 自負心과 矜持를 가지고 있는 단체요, 또한 가장 和合과 團結이 잘 되어 원만하고 民主的으로 운용되고 있는 단체라고 나는 믿고 있으며,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滿腔의 祝福과 激勵을 드리는 바입니다.

正規大學의 專門學科를 졸업하고 實務分野에서 5년 이상의 經歷을 쌓은 다음에야 비로소, 建築士 면허시험자격을 받게 되고 엄격한 國家考試를 치뤄야 建築士 면허를 획득하게 되는게 우리나라의 제도입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외부공무원등 선망을 받고 있는 여타의 特殊免許者와는 다른, 어렵고도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한 여러분은 분명히 우리나라 最上의 에리트 집단임을 自處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또한 5,000년의 가난과 전쟁으로 폐허가 되다시피했던 우리江山을 불과 30년에 世界 속에 뽐낼 수 있도록 건설한, 우리나라 發展의 “상순애비” 役割을 해낸 MVP는 분명히, 누가 뭐라해도 建築士 여러분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오늘날 政府와 社會로부터 應분의 尊敬을 받고 있다고 보십니까?

또 여러분은 각자 직업에 대한 愛着과 自尊心을 만끽하고 있다고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거미줄보다 더 잘 짜여진 각종 建築關聯法令과 規制 밑에서 과연 여러분의 創意와 創作作品이 실효를 能率的이고 進取的으로 發揮할 수 있다고 보니까?

現行制度와 감독관리의 便宜主義의 行政措置의 硬直性의 타성으로 여러분은 형사처벌, 면허취소, 영업정지등 生存權의 威脅을 받으면서 전전공공, 일을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는 다급한 처지에서 신음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특하면 行爲者는 구경만 시키고, 許可權者는 큰 소리만 치고, 監理者인 여러분만이 돌돌 책임을 지워서 무더기 犧牲羊이 되면서 오늘까지의 서울의 建築과 都市發展은 그런대로 억지충향식으로 解決해온 것이 (일부일지는 모릅니다만) 사실이고 여러분의 입장에서 억울하고 그늘진 면이 분명히 있다는 조사 자료를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한 몇가지 예를 들면,

1. 89년도에는 전국 建築士 전원의 15%가 영업정지, 등록취소, 면허취소, 경고처분을 받았고,
2. 특히 85년도에는 당시 2,367명의 建築士중 그 132%에 해당하는 3,119건의 처벌을 받은 사실은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고,
3. 83년부터 89년간의 7개년간에 평균 회원수 2,500명중 처벌건수는 10,650건으로서 회원평균 4번이상씩 처벌을 받았다는 統計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대로 운영한다면 살아남을 에리트가 몇이나 남게될 것입니까?

요령있는 건축사라면 形式과 節次의 行政에만 집착해야지 創造와 創作은 엄두도 내지 못할까 뻔한 것 아닙니까?

建築士여러분!

우리 國會 建設委員會에서는 지난 會期에 이러한 不合理하고, 不均衡하고, 非能率의인 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앞으로 綜合的이고 專問的이며 轉向的인 立場에서, 모든 제도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할 課業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도한 規制의 난발이나 운영의 硬直性은 여러분과 관련된 그때그때의 現實的이고, 實存하고 있는 亂脈相과 非理를 억제하기 위한 방편과 목적의 반사적 신물이라는 것도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며, 그러한 뜻에서 피급고 서럽겠지만 理解할 수 있는 것과 감내할 수 있는 것과 자각할 수 있는 것 등을 가려서 비판하고 수용해야 마땅하다는 충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建築士여러분!

눈을 해외로 돌려봅시다.

“우루과이라운드”라는 國際協約이 머지않아 여러분들에게도 무겁고 괴로운 試鍊을 보태줄 것이라고 나는 단정합니다.

우리의 우수한 建築設計技術이 해외로 진출하는데는 큰 구멍이 뚫려서 좋겠지만 선진외국의 建築技術과 物量攻勢가 여러분만이 영위하던 국내시장에 파고들어올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고 놀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用役社가 국내에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는 우리나라 국내법상의 면허를 받아야 가능한 것이 현행제도이며, 우리 國會는 여러분의 權益保障이 바로 國益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홀홀하게 그 벽을 할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걱정하신 綜合建設業法은 국회에서 절대로 통과되지 않을 것임을 본 의원은 단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애하는 建築士 여러분께 부탁이 있습니다.

政府와 國會는 여러분의 苦哀와 불만을 해소하는데 努力하는 使命을 다하겠지만, 그에 앞서 여러분들도 먼저 自體整理와 自我發展을 위한 刻苦한 姿勢定立이 그 어느때보다 요망된다는 것입니다.

즉,

1. 競争社會에서의 自律的인 調整과 和合,
2. 業界의 권리와 편의만을 주장하는 我田引水格 思考로부터, 國家社會와 未來를 걱정하는 普遍的 視野,
3. 國際競争에서 이기고 살아남 수 있는 自力的인 技術開發과 協同開發의 개발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람도 평생 建設에 종사하고 있는 建設人의 한사람으로서, 또, 네가 建設人의 한사람이라는 것을 無上의 矜持로 여기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建築士여러분께 최대의 愛着과 尊敬의 인사를 드립니다.

註: 본 원고는 지난 10월30일에 개최한 當會 서울자부 정기총회에 참석한 민경당 이인구의원 축사입니다.

연구비 0.1% 유감

崔命喆/종합건축사사무소 단우·모람

1. 변화

전쟁후 폐허의 상태에서 정치·사회·문화적인 여러가지 질곡을 겪어 오면서도 한국은 이제 경제적으로 衣, 食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국가경제 규모면에서는 어느 정도 중진국의 위치를 부여받고 있다. 이러한 물질적 토대의 안정은 한국의 역사상 중요한 전환기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각 부분별로 많은 변혁을 가져오고 있다. 더불어 작금의 세계사적 변환 또한, 정보화 사회로 대변되는 통신·교통등의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간 삶의 총체적인 변화와 과거 1, 2차 세계대전등 한 세기동안의 냉전국면에서 새로운 세계질서개편으로의 이행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그 시대의 사회상이나 인간의 총체적인 삶을 담아내는 물리적 장치로서의 건축 또한 여러가지 변화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로, 급격한 후기산업 도시화 과정에 따른 초기도시 건물유형(Building Task)들의 다양화와 이에 의한 도시기능의 재조정.

둘째로,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의료주거(Hospitel) 등 과거의 주거개념과는 시간적, 공간적, 기능적으로 다른 양태의 주거공간들의 등장.

세째로는 IBS(Intelligent Building System) 등 정보화 사회로 향한 건물 내부의 프로그램 변화.

그외 교통·공해·쓰레기 등의 도시환경 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공간의 변화등은, 과거의

도시공간이나 건축물과는 다른 근본적이고 새로운 21세기의 지표를 요구하고 있다.

2. 문제

현재 한국의 건축계는 최근의 부동산 가치급등과 미개발토지에 대한 세금중과에 따르는 건축비용으로 유례없는 '건축허가 제한'이라는 경우까지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외형적 풍요로움과는 달리, 표류하며 급변하는 도시건축에 관한 정책·제도와 설계시장의 예측키 힘든 변화 및 전문성이 상실된 설계조직의 와해등으로 내부적으로는 여러가지 위기감이 엄존하고 있다.

최근의 문제들을 살펴보면,

• 지방자치제 실시 등과 정책·제도변환

조석지변이라 할 수 있는 건축과 관련된 법규 및 제도의 개정은 투기장과 다름없는 부동산 건설 수요와 관련하여 건축계 자체를 뒤흔들고 있으며, 건축가로 하여금 이러한 널뛰기에 동조하게 만들면서 가히 허가방(?) 전성시대로 이끌어 가고 있다. 그동안 누더기와 다름없이 정치, 경제적 입김에 의하여 좌지우지되어 왔던 기존 법령의 문제들에 대한 새시대의 건축철학에 외가한 근본적인 개혁없이 수시로 덧칠되는 이러한 법개정은 지방자치제 실시 등 민주화에 부합되는 도시건축의 방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 우루과이라운드와 종합건설업면허

외국건축가의 전문성 및 국내 대재벌의 자본력에 대하여 피해의식까지 가지고 있는 국내 설계사무소의 입장으로는 전면 부정의 의사표시를 할 수밖에 없으나, 실질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한 용역업 개방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여겨지며 이와 관련하여 종합건설업면허제 도입 또한 전체 국가 경제면에서의 선택(?)이 불가피한 것 같다.

이러한 설계시장의 판도 변화는 기존의 설계사무소의 전문성 분배나 영세성에 심각한 변화를 예고한다 할 것이다.

• 설계조직과 전문인 행태

최근의 건축붐에 의하여 설계사무소 중간전문인들의 대거 소형사무소 신설은 설계사무소 노조의 등장과 더불어 설계=창조적 행위에 따르는 기존의 徒弟的 설계조직의 와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전술한 설계시장의 변화와 함께 건축가의 기존 사회적 위상조차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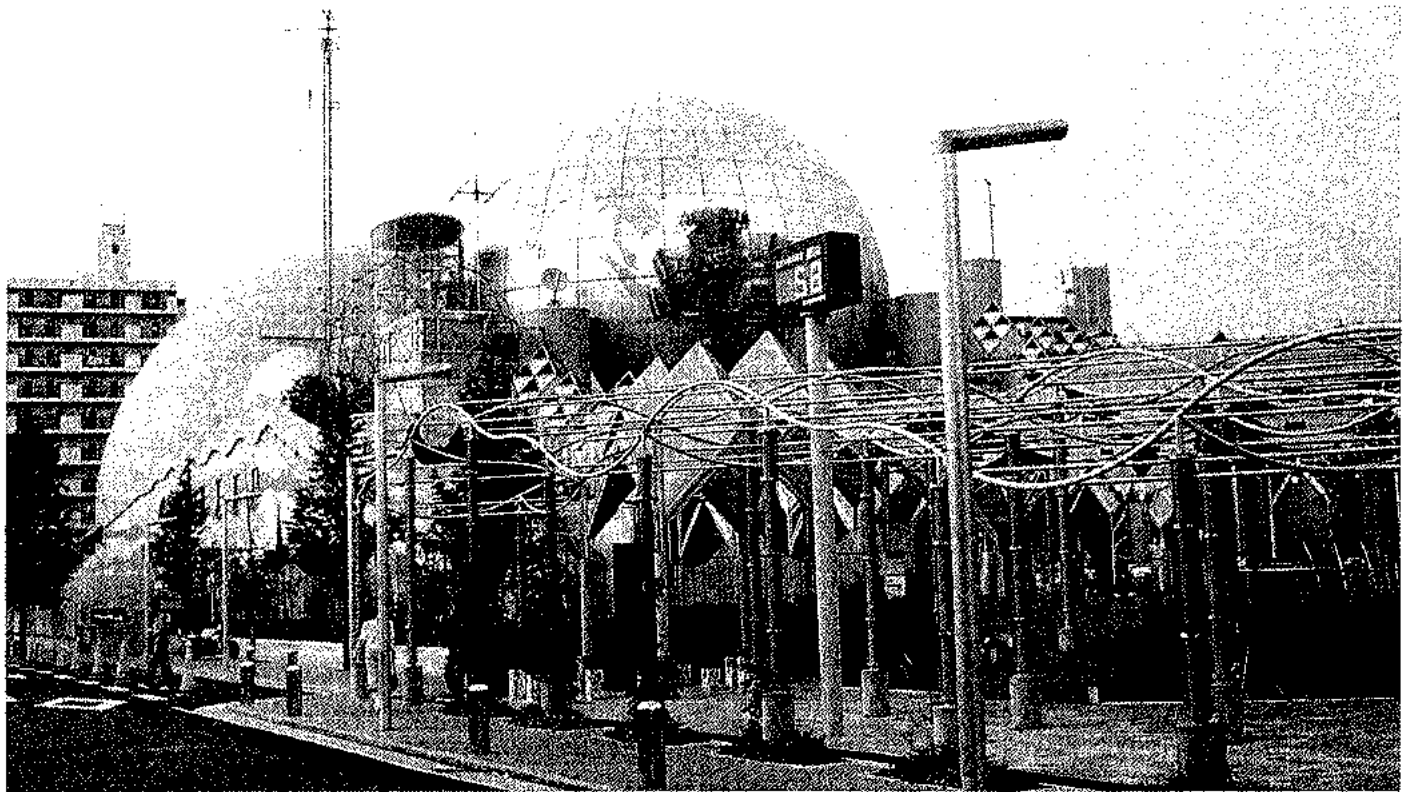
3. 연구

앞에서 개략적으로나마 거론한 '변화와 문제'들은 21세기를 준비해야 하는 대다수의 도시 및 건축 전문인들에게 수많은 과제들을 던져주고 있다. 그러나, 실상 건축계내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전환기에 대처할 수 있는 이론적 연구, 실천적 자세 및 설계조직이나

제도권의 탄력성 등이 미약한 상태이며, 따라서 거의 수동적으로 방관하며 남의 탓(?)으로만 치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눈을 돌려보면 한국의 기존 산업계들도 비슷한 실태인 듯하나, 최근 이러한 여건을 극복키 위하여 연구개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건축계의 경우 겨우 작년부터 출범한 건축사협회의 '법령 연구소'가 고작이며, 이 또한 건축사사무소 연간 예치비 가동규모가 1천억원 가까이 되는 점을 살펴보면 겨우 0.1%에 지나지 않는 예산의 연구소이다. 일년 금리를 10%라 하더라도 그 이자의 1%에 지나지 않는 예산으로 무엇을 연구할 수 있을지 가히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결론적으로 사협회는 이러한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여 과감한 발상의 전환으로 건축인의 주체의식을 가지고 전술한 모든 '변화'와 '문제'들에 능동적인 입장을 표방하고, 현재까지 이루지 못한 수 많은 과제들에 대한 연구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다가올 21세기의 도시환경문화를 주도적으로 창조해 나가야 하겠다. 더불어 건축인들이 지금까지 참여치 못하고 지나쳐온 과거의 Olympic 시설 문제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당등 신도시 개발문제, 심각한 주택문제, 교통·공해·쓰레기 등의 도시 환경문제 및 대전 국제무역박람회등 국가적 건축이벤트에 정당하게 참여하여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상설계와 일본현대건축

Architectural Competition & Contemporary Japanese Architecture

“쇼난다이 문화센터의 첫 인상은
기모했지만 자세히 보았을 때 고감도의
것이 보였다. 「예상외」라고 말하는 것이
키워드(key word)라고 생각한다”
—피터 쿡(Peter Cook)—

金文徳

전국대학교 실내디자인과 교수

by Kim, Moon-Duck

1. 일본의 현상설계 러시

80년대 이후 일본건축계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현상설계 붐이 조성되고 있다.
물론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국가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제현상설계 러시에는
못미치는 실정이나 동양권이라는 영역으로만
한정해 본다면 가장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제현상설계만도
제2 국립극장(1986), 오사카 간사이(關西)
국제공항(1989), 도쿄 포럼(Tokyo
International Forum : 1989), 아오야마(青山)
제도전문학교(1989) 현상공모가 실시되었고
국내현상설계로는 단게 겐조가 당선된
도쿄도 신청사 지명현상(1985), 아라따
이소자키가 당선된 도쿄 조형대학 신캠퍼스
현상설계(1986), 마끼 후미히코가 당선된
일본 컨벤션센터(마꾸하리 메세 : 幕張
Messe : 1986) 지명현상 그리고 하세가와
이즈코(長谷川 逸子)의 案이 최우수안으로
당선되어 실현된 후지사와(藤澤)시
쇼난다이(湘南台) 문화센터(1986) 현상 등을
거론할 수 있다.

물론 이외에도 크고 작은 많은 국제 및
국내현상이 개최되어 일본건축계에 신선한

자극을 주었다. 또한 최근에 와서 국제현상에 있어서도 폐쇄적이고 형식적인 틀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들이 전술한 현상설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간사이 국제공항 현상에서 렌조 피아노(Renzo Piano)가 당선된 것이라든지 도쿄 포럼 현상에서 라파엘 비놀리(Rafael Vinoly)가 당선되었다는 점이다. 과거 국내의 경우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국제현상이란 이름아래 외국의 안들을 둘러리로 세워 치룬 현상설계가 있었던 사례를 고려한다면, 일본도 폐쇄적 틀에서 탈피하여 외국인 건축가의 안이라도 훌륭하다면 받아들인다는 개방적 자세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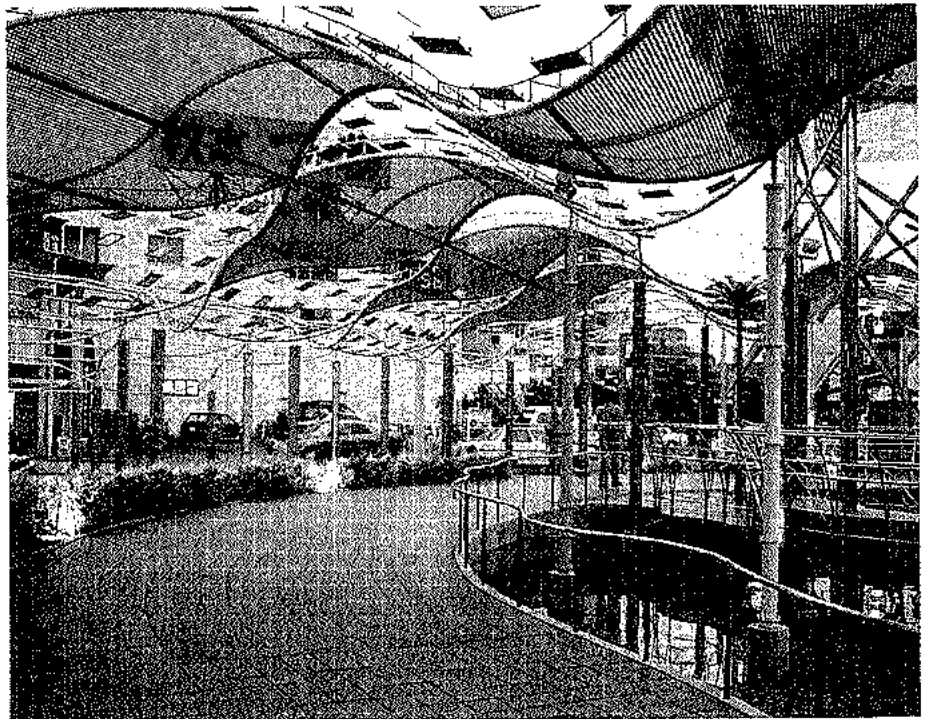
국제현상에서의 국수주의적인 폐쇄적 사례는 역사적으로도 그 사례를 들 수 있는데, 1922년에 개최되었던 시카고 트리뷴 사옥 국제현상에서도 2등안인 에리엘 사아리넨(Eliel Saarinen)의 안이 객관적으로 탁월하다는 평에도 불구하고 미국인이었던 레이몬드 후드(Raymond M. Hood)의 안이 채택되었던 사실이나 이탈리아 제노바의 카를로 페르체 극장의 리노베이션 현상설계(1981)에서 알도 로시(Aldo Rossi)와 이그나찌오 가르델라(Ignazio Gardella)의 공동안이 당선되는 과정에서의 잡음 등이 현상설계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건축에 있어서 현상설계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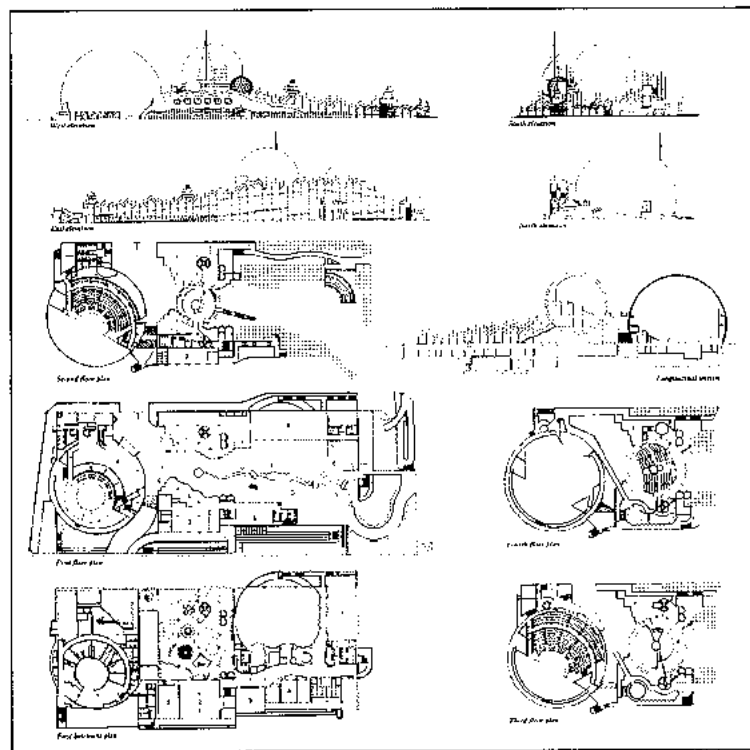
물론 심사위원들의 관점에 따라라도 달라지겠지만 당선안의 선택에 있어서도 보편타당하면서 우수한 제안의 선택이나 아니면 구로가와 가쇼오(黒川 紀章)의 말대로 이단자의 발굴이나 하는 관점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단자의 발굴이라는 혁신적 측면으로 본다면 홍콩 피크 현상(1982~83)에서 자하 하디드(Zaha Hadid)의 당선이나 라 빌레르 현상(1982~83)에서 베르나르 추미(Bernard Tschumi)의 안의 당선 등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기존관념적 제안에서 탈피한 전위적인 제안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런 전위적인 제안은 그런 안이 당선되었다는 점과 함께 그 안이 어떻게 실현되었을지 하는 점도 흥미거리의 하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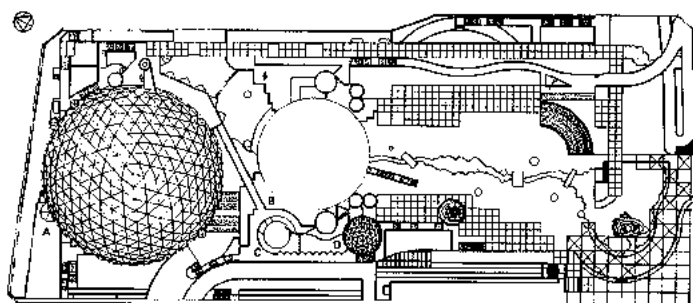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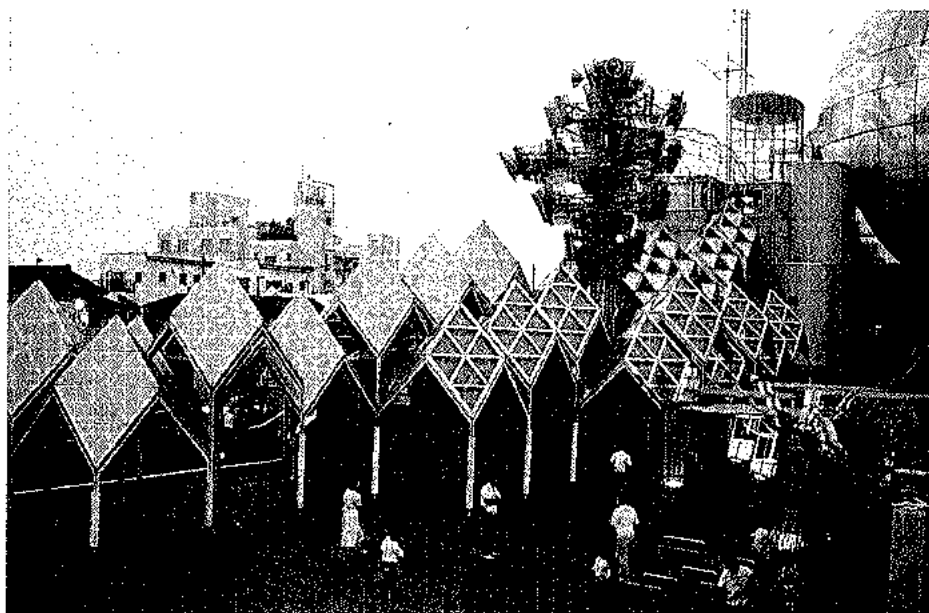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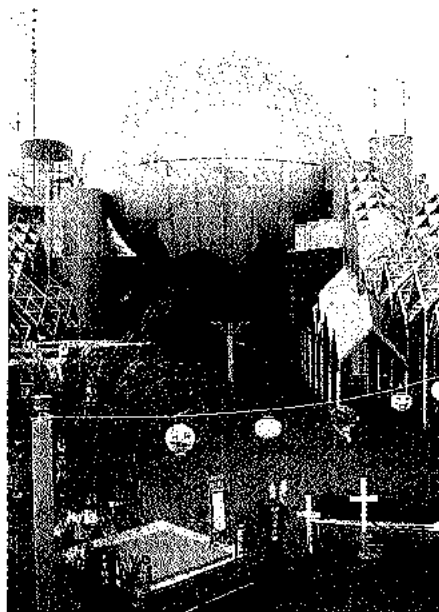
3

- ① 주출입구 측에서 바라본 쇼난다이 문화센터 전경
- ② 편칭메탈과 색유리트 어루어진 앤트런스 파골라
- ③ 각종 평면도



A UNIVERSAL GLOBE(THEATER)
B TERRESTRIAL GLOBE(PLANETARIUM)
C LUNAR GLOBE(ATMOSPHERIC OBSERVATION ROOM)
D FULLER DOME(RADIO ROOM)

- ④ 야외극장측에서 바라본 사무동
지오데식 돔의 무선실과 시계의 나무가 보인다.
- ⑤ 쇼난다이 연못에 있는 빛과 바람의 나무
- ⑥ 배치도
- ⑦ 야외극장측에서 바라본 지구의 형 프라네타리움



것이다.

80년대 일본건축계에서 행해진 현상설계 가운데 필자의 흥미를 끌었던 현상공모는 하세가와 이즈코가 당선된 후지사와 쇼난다이 문화센터와 와마나베 마코토(渡邊誠)가 당선된 아오야마 제도전문학교 1호관이었으며 이 국내 및 국제현상에 의해 채택된 안들이 보편타당한 안의 제안이라기 보다는 이단자적이고 전위적인 접근방식에 의해 당선되었다는 점에서 흥미가 배가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전술한 현상설계의 과정과 실현안을 통하여 일본의 현상설계를 조명해보고자 한다.

2. 후지사와시 쇼난다이 문화센터 현상

후지사와시는 도쿄에서 약 30km의 통근권에 위치한 주요 교외도시의 하나로 특히 최근에 들어 시 주변에 첨단산업체들이 이전하여 현재 인구는 22만 정도로 증가하였다.

이런 시의 발전추세에 부응하는 시의 명물인 새로운 건축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마끼 후미히코가 설계한 후지사와시 체육관(1984)과 하세가와 이즈코가 설계 완공한 쇼난다이(湘南台) 문화센터(1987~1989)가 그것이다.

이렇게 후지사와시의 명물이 된 쇼난다이 문화센터의 건립은 1985년 10월2일



8



9

현상응모의 공표에 의해 그 시발이 이루어졌다.

즉 10월2일 공표하여 10월25일 응모등록을 마친 결과 1,024명이 등록하였고 86년 1월13~17일까지 응모안을 접수한 결과 전국에서 215점의 안이 접수되었다.

응모한 215점의 안은 2월10, 11, 12일 3일동안 5차심사를 거쳐 행해졌으며 3차심사에서는 2차검사를 통과한 38개의 안을 시설기능, 현실성과 기술적인 면 등을 검토하여 21개안으로 추리고 다시 4차심사에서는 9개안으로 대상을 축소 검토, 최종심사인 5차심사에서는 입선3안과 가작5안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입선한 3안을 2월24일 후지사와시청에서 전위원 출석하에 3인의 입선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면접심사한 결과 하세가와 이즈코의 안이 최우수안인 당선작으로 결정되었고 아물프와 다까마쯔 신(高松 伸)의 안이 입선작으로 결정되었다.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인 세이게 기요시(清家 清)를 비롯하여 아라타 이소자끼, 마끼 후미히코 및 후지사와시의 시장, 교육장, 시의회 의장 등으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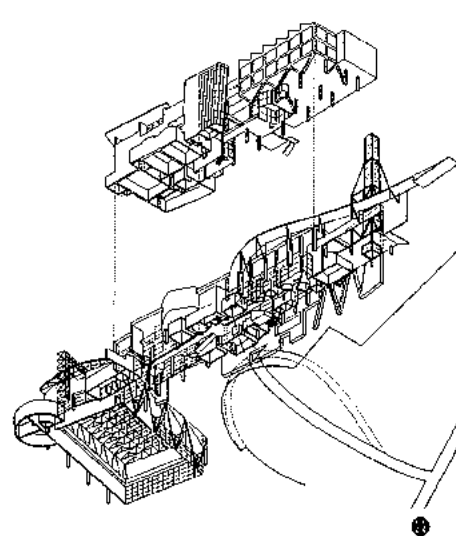
심사위원들의 응모안에 대한 강평을 보면 응모안들은 이 당시 건축디자인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컴팩트형, 환경중시형, 스페이스 프레임형, 포스트 모던형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었으며 특히 중점을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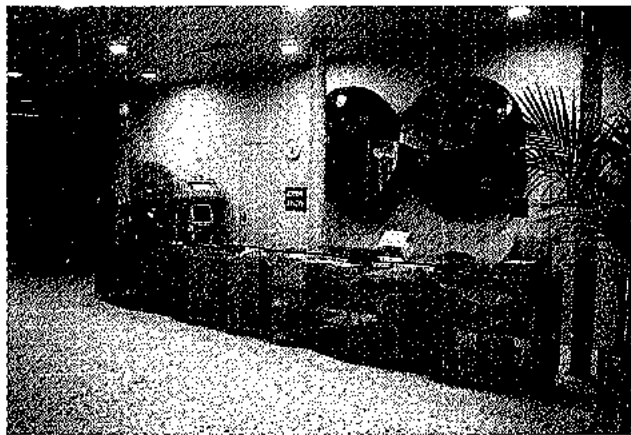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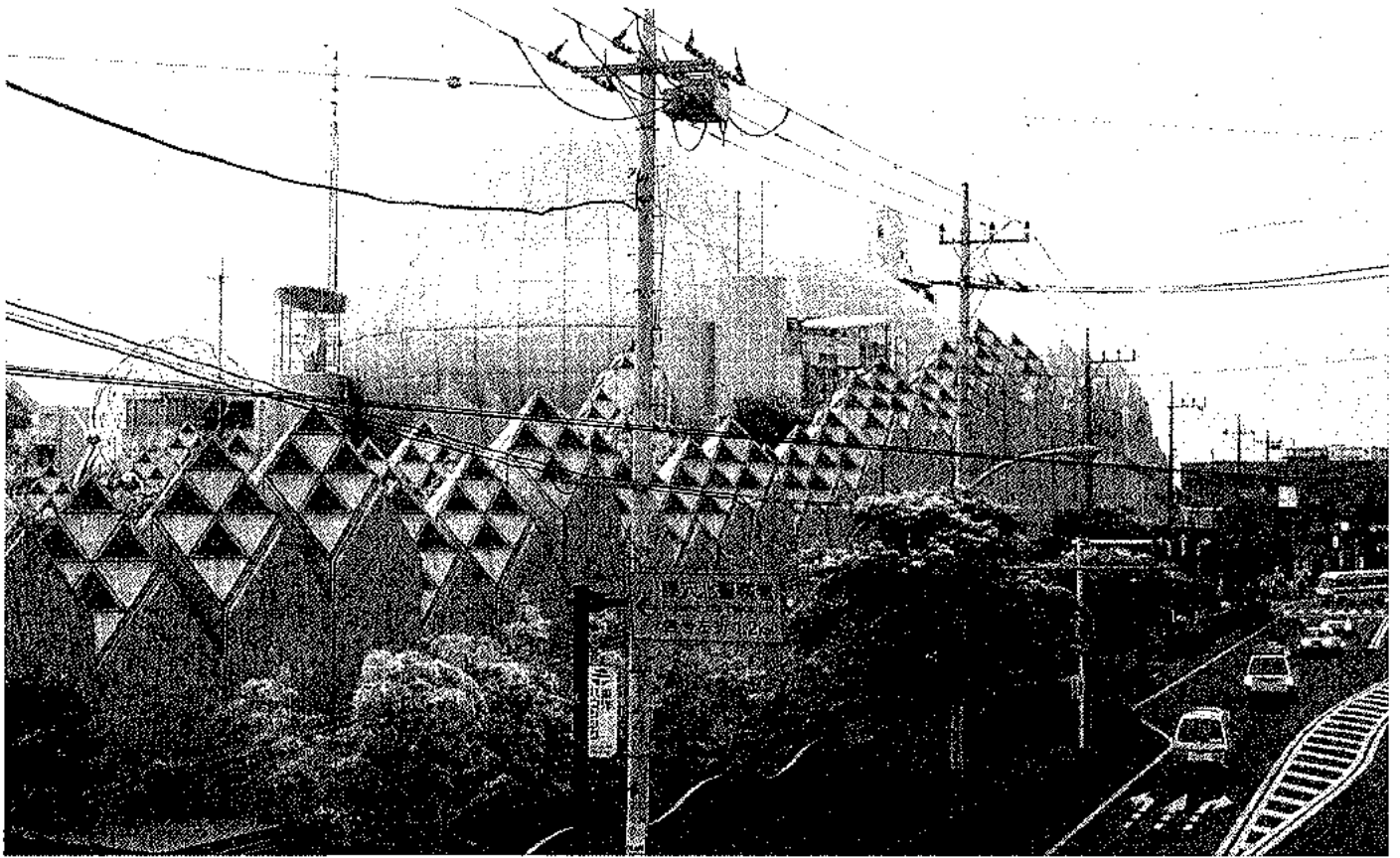
중심으로 한 활동성과 친근성을 추구하는 안과 남북의 축을 위하여 장방형의 대지를 비스듬한 사선축으로 분할 구성하는 안(아물프와 다까마쯔 신의 안이 대표적)도 상당수 제안되었다.

특히 이 문화센터 현상안에서 중점적으로 제기된 것은 기념성의 문제로 기능적으로 명쾌하게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기념비적 성격이 결여되었으면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 기념비적 성격은 권위주의적이나 종교적인 것이 아닌 현대시민사회의 센터에



11

- ⑧ 지구의 하부에서 바라본 사무동
- ⑨ 인공개천에서 바라본 지구의 형 프라네타리를 덕트와 다리등이 보인다.
- ⑩ 어린이회관 로비에 설치된 곤충조각
- ⑪ 엑소노메트릭



- ⑫ 쇼난다이 공원 속에서 바라본 쇼난다이 문화센터 측면
지붕의 단면을 벽에 표현하고 있다.
- ⑬ 어린이회관 로비 부분

적함하게 의도한 안을 최종안으로 채택하였다고 평하였다.

당선작인 하세가와 이즈코의 안과 입선작인 아돌프, 다카마즈 신의 안을 강평한 것을 보면

1. 최우수안(하세가와 이즈코)

장방형의 협소한 대지를 소우주로 구상한 이 안은 “인공 맥크, 개천, 다리, 피라밋, 숲,

산”등 자연계의 요소를 이 계획안에서 망라하려고 시도하였으며 문화센터를 무대장치화하여 불특정다수의 시민에게 공헌하는 문화의 장으로 의도한 것이 장점으로 작용하였으며 면접심사후 쇼난다이 공원과 연속성, 구형의 강당이 실험극장적 성격이 강한 점, 체육시설이 지하3층에 위치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나 배치계획에서의 매력과 새로운 시민사회에 상응하는 상징성과 실현에 대한 유연한 가능성, 그리고 즐거운 어린이회관으로서의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어 최우수안으로 채택되었다.

2. 입선안(아돌프)

환경에의 배려와 어린이들에게 탐험심을 고양시키기 위해 어린이회관을 지하2층에 위치케 해, 대계단을 따라 내려가게 하는 시각적 변화에 대한 고려가 재미있었으며 형태적으로는 바벨탑, 피라밋, 아크로폴리스, 로마의 수도교, 르네상스양식의 콜로네이드, 로톤다 등을 인용한 특이한 분위기의 표현이

이채로왔으나 이로 인한 혼돈된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었으며 어린이회관을 지하2층에 배치한 법규적 문제와 외관체제의 문제, 전체를 지하 3층까지 판 경비상의 문제, 외관의 강한 상징성에 비해 내부공간의 단조로움이 단점으로 지적되었다.

3. 입선안(다카마쓰 신)

탐상의 어린이회관의 랜드마크로서의 유효성과 상징성이 높게 평가되었으나 14개의 엘리베이터로 구성된 수직동선의 문제와 제 2기 공사와의 구분이 곤란한 점 등이 대두되었다.

상기한 최우수안, 입선안외에 가작으로는 하야가와 구니히코(早川 邦彦)의 안등 5개안이 가작으로 선정되었다.

3. 여류건축가 하세가와 이즈코의 현상안에 대한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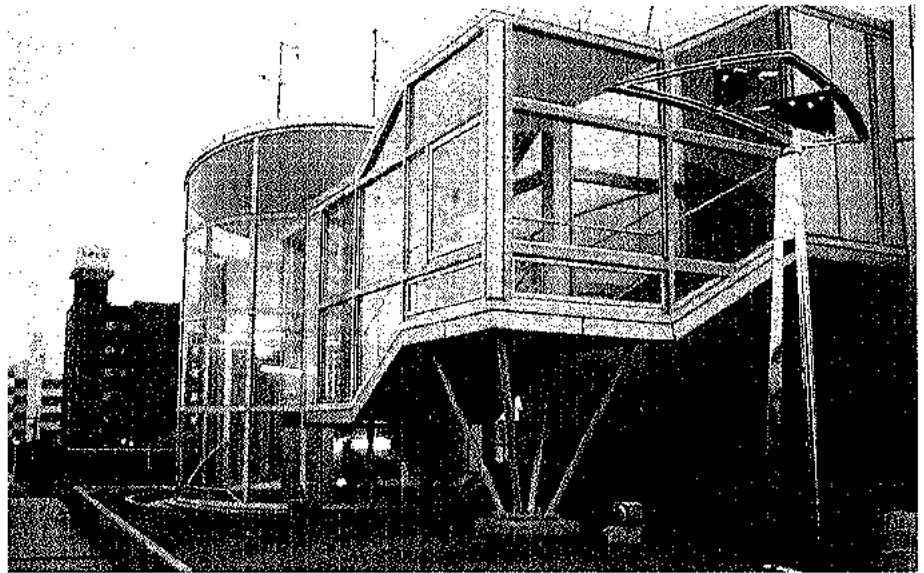
쇼난다이 문화센터의 현상은 일본건축계에 있어서 여러가지 의미를 부여한 현상설계라는 느낌이다.

우선 건축가인 여류건축가 하세가와 이즈코의 존재이다.

국내 및 일본 그리고 전세계적으로도 여류건축가의 존재는 최소가치적 측면에 있어서도 주목할 만한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여류건축가들이 아키텍토니카(Architectonica)의 로린다 스피어(Laurinda Spear), 벤츄리, 로취, 스코트 브라운(Venturi, Rauch & Scott Brown)의 데니스 스코트 브라운(Denise Scott Brown), 쿼터와 킴(Koetter & Kim)의 스지 킴(Suzie Kim), 아그레스트와 간델소나(Agrest & Gandelsonas)의 다이아나 아그레스트(Diana Agrest)처럼 설계사무소의 파트너로서 존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독립적으로 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는 희귀하며 더욱이 쇼난다이 문화센터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설계 완공하였다는 것은 여류건축가의 지위향상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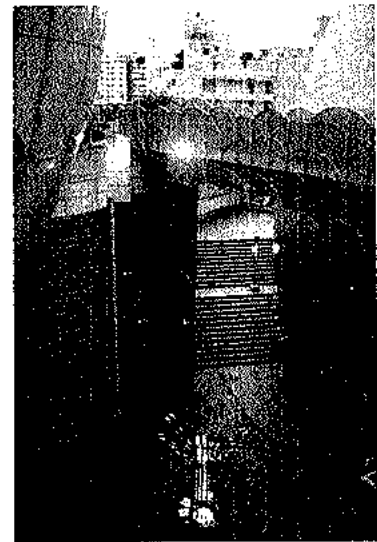
일본에서도 하세가와 이즈코의 무형의 역할에 힘입어 하세가와가 소속했던



13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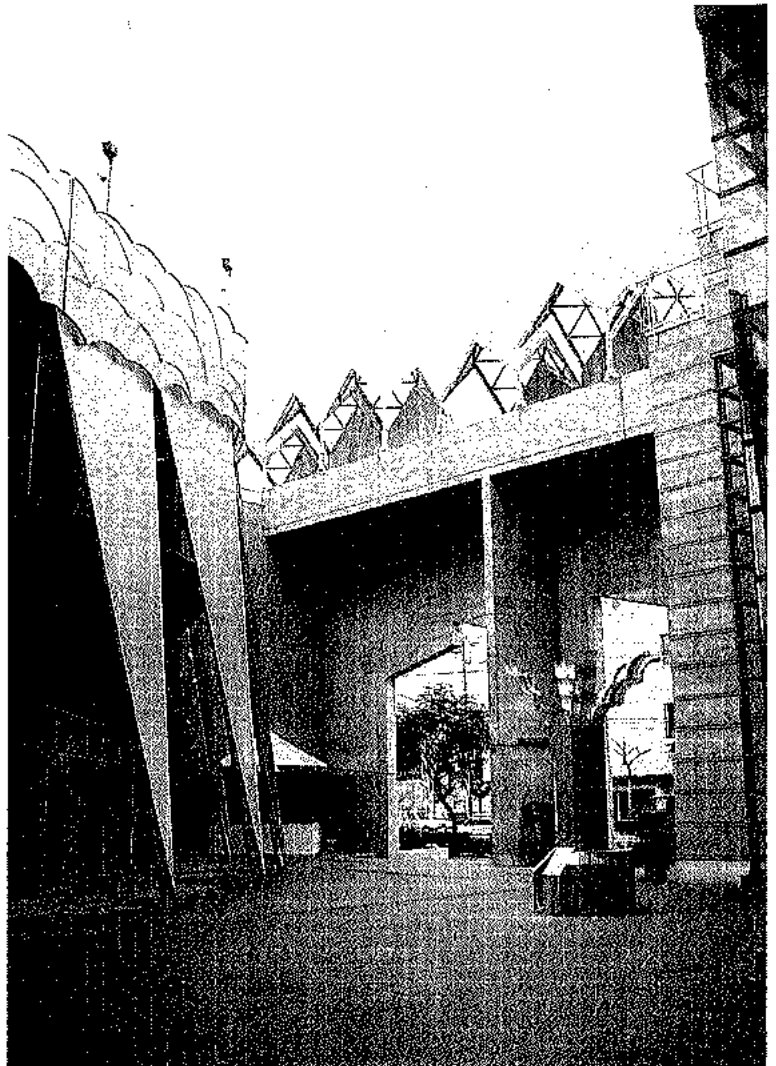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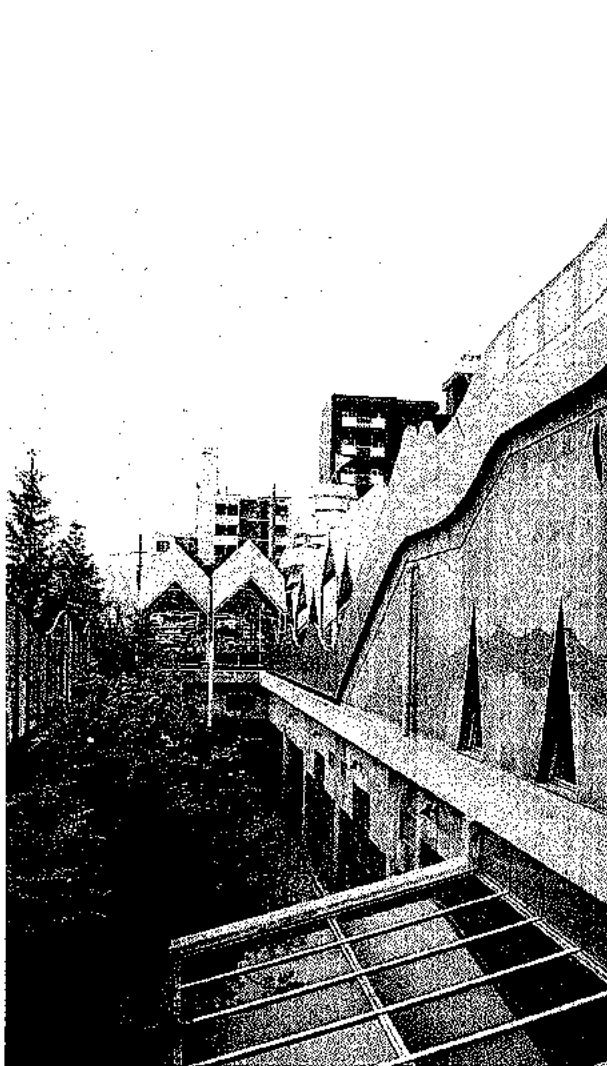


15

시노하라(篠原) 아쓰리에 출신인 다카하시(高橋 晶子)가 사카모토(坂本 龍馬) 기념관 현상설계(1988)에 당선되었다든지, 세이지마 가즈요(妹島 和世)같은 젊은 여류건축가들의 활발한 활동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그녀의 활동에 의해 촉발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하세가와 이즈코(長谷川 逸子), 1941년 시즈오카(静岡)현 출생, 1963년 칸도우(關東)대학 졸업, 1964년 기쿠다게 기요노리(菊竹 清訓)사무소 입소, 1969년

- 13 어린이회관의 옥상정원의 계단실
- 14 어린이회관측에 설치된 옥외카페
- 15 옥상정원에서 바라본 시민출 광장 상부에는 구름장식이 있는 브릿지가 보인다.



도쿄공업대학 시노하라 가즈오(篠原一男)연구실 입소. 1978년 하세가와 이즈코 건축계획공방 설립. 시노하라의 연구실 출신인 시노하라 스쿨의 멤버답게 알루미늄판넬의 가볍고 빛나는 무기적 표현이 장기인 그녀는 다른 시노하라 스쿨의 건축가 이또 도요오(伊東豊雄)처럼 알루미늄 편칭배탈을 즐겨 사용하나 좀 더 여성적인 섬세함이 잘 나타나 있다.

쇼난다이 문화센터 이전의 대표작으로는 마쓰야마·구와하라(松山・桑原)의 주택(1980), AONO 빌딩(1983) 등이 있다.

그녀는 70년대 야이즈(焼津)의 주택I(1972)이나 가모이(鴨居)의 주택(1975)등 소규모 주택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형태적으로는 단순한 상자형 구성을 취하며 공간적으로는 방이라는 개념에 집착하기 보다는 오픈공간에 의한 중심성이 없는 건축을 추구하였고, 80년대는 비잔(眉山) 홀(1984)이나 NC 하우스(1984) 등에서 소규모 프로젝트에서 탈피하는

동시에 연속하는 단위의 지붕을 가진 복합적이고 자유로운 형태와 공간을 추구하였다.

“초기에는 기하학적 형태를 직재하게 적용하여 그것이 물리적 의미로서의 주제도 되었지만, 차제에 형태는 단편화되어 명쾌한 골조위에 강한 도상성을 지닌 어휘를 중첩시키는 방법을 취하게 되었다.”는 그녀의 슬화는 그녀의 건축에 있어 7, 80년대 변화에 대한 변이기도 하다. 또한 80년대 들어 도시성의 추구하고 시적인 기계이미지의 추구 역시 커다란 변화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으며 전술한 80년대의 시도는 80년대 후반 완성을 본 쇼난다이 문화센터의 진주곡이기도 한 것이다.

그녀는 쇼난다이 문화센터 현상설계안을 설명하면서 그녀가 설계한 문화센터가 지향하는 목표를 「복합적 정신성에 입각한 지형으로서의 건축」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자연을 유추시킨 기호군으로 디자인되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즉 일본식 정원에서 바위는 섬으로, 고랑이 있는 모래밭은 바다로 축소 유추되듯이 이 문화센터 단지는 우주의 요소들을 축소하고 기술적인 장치를 통해 끝없는 자연풍경을 이곳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과연 그녀는 “『집은 좁으나 마음은 넓다』라는 속담을 아는가. 좁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안정되고 토끼장 같은 좁은 공간이기에 오히려 정신을 집중하여 넓은 우주를 볼 수 있는 ZEN (禪)의 세우침을 당신들은 체험했는가?”라는 귀절이 나온 이 어령의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읽은 것은 아닐까?

이 문화센터의 각 기능별 구성을 살펴 보면,

• 시민 홀(우주의)

구조: 프리페트 리브부착 스틸

삼각형 판넬 현장조인트

외피: 스테인레스 밀러마감

설비: 천장면의 단열을 위한 2중구성의

에어콘 설치, 차음 흡음효과도 고려.

• 프라네타리움(지구의)

구조 : CFRC (카본화이버)에 의한 PC 셸

외피 : 자기타일마감에 의한 지구의

• 공해관측소(월구의)

구조 : 공기막구조

외피 : 반투명 시트

• 새털라이트 스튜디오(무선실)

구조 : 아연도금 스틸프레임(지오데식 돔)

• 회유식 산책 갤러리

인공적으로 조성된 언덕과 경사로 및 브릿지를 이용한 산책로.

• 광장

구성 : 지구의 하부에서 우주의 사이의 야외극장, 지구의 하부를 흐르는 폭포, 개천, 다리, 연못, 지하층의 피라밋형 천장, 배기덕트.

• 시민센터

구조 : 지하건물(프리텐션 방식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에 의한 경비절감)

설비 : 자연채광과 통풍을 이용한 쾌적한 지하공간 추구

• 어린이회관

구성 : 연속하는 작은 지붕의 단위로 이루어진 작업과 전시공간, 식당, 시간공간 전시실, 생활 지역 정보전시실, 프라네타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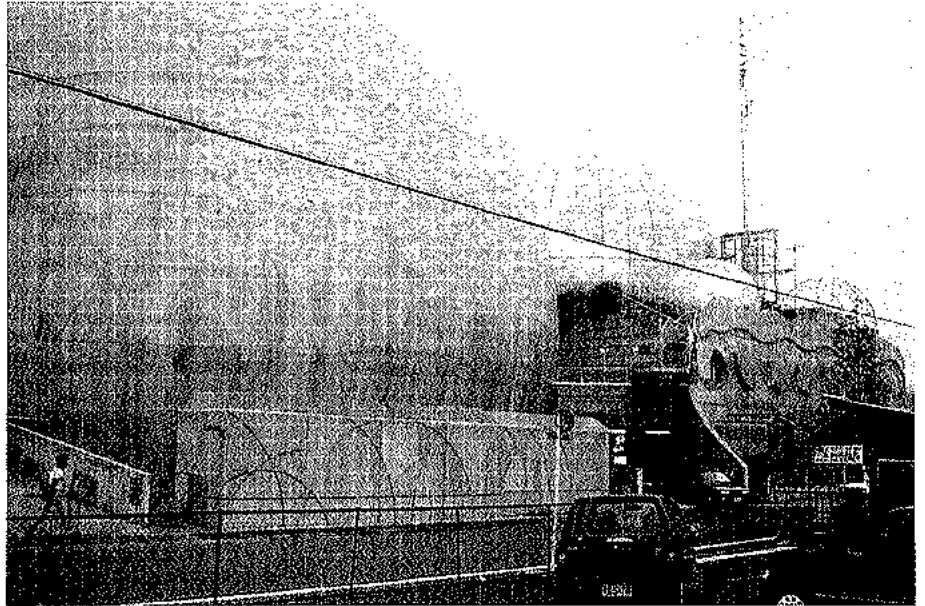
외벽 : 절단된 지층을 연상시키는 표현. 광장에 면한 식당, 전시실은 유리블록의 커튼 월.

그녀는 쇼난다이 문화센터가 지닌 복합적 기능의 성격을 숲과 산 그리고 신사에 있던 우주성과 종교성,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여 만들어 내는 신비성과 상징성, 동식물이 공생할 때 획득할 수 있는 다양성과 유동성, 마을이 만들어 내는 미로성 등으로 함축하여 표현하고자 시도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실현된 쇼난다이 문화센터

쇼난다이 문화센터는 지하철역인 쇼난다이역에서 4~500m 정도 떨어진 비교적 역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고 주변은 건물들이 들어서는 등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바로 동측에 쇼난다이 공원이 인접해 있는



19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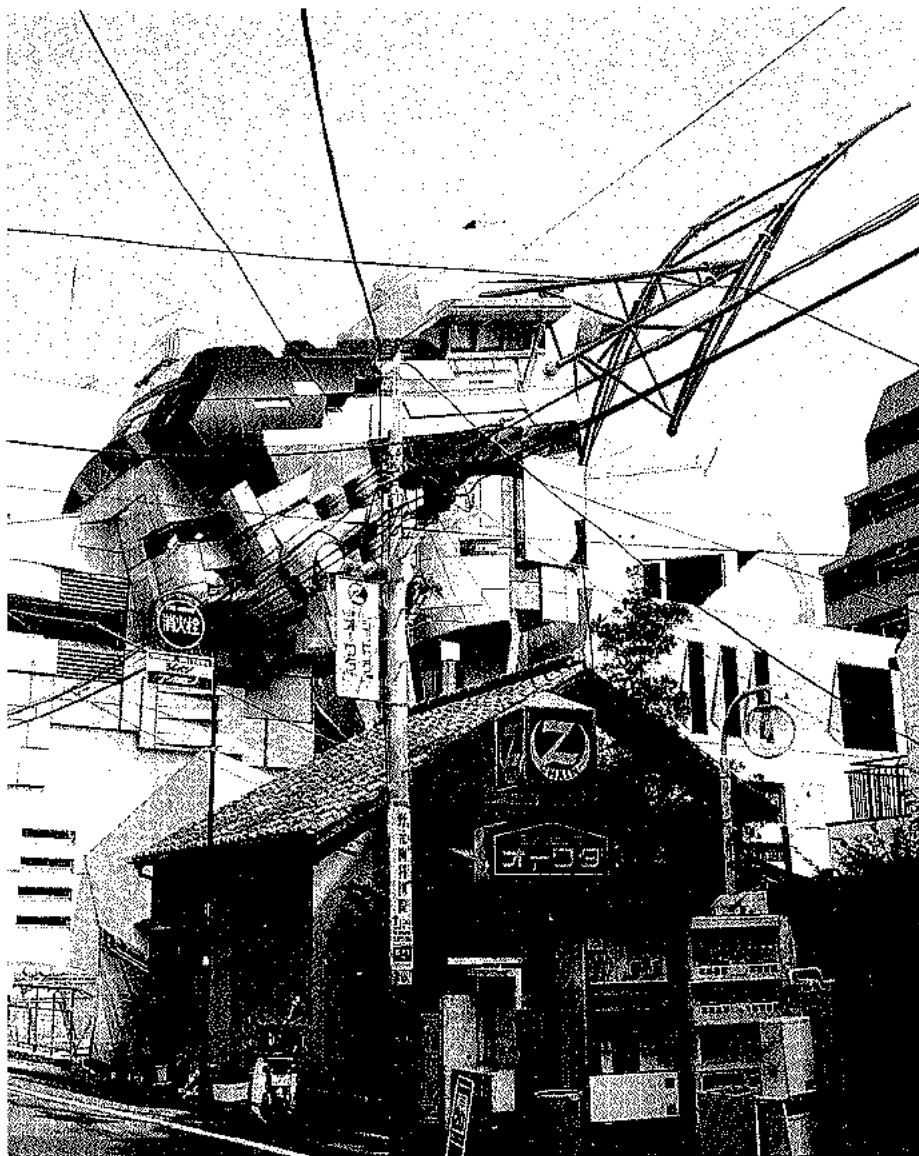
문화센터는 접근하기 전까지는 과연 이런 건축물군이 이곳에 존재할까 하는 예상이 불가능한, 주변의 도시문맥과는 상관없이 자립적 형상을 취하고 있었다.

제임스 스티어링(James Stirling)의 슈루트가르트 미술관을 이야기할 때, 파사드가 없는 건축물이라고 정의한 것처럼 이 쇼난다이 문화센터 역시 형식이나 구성은 다르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다.

물론 시각적 초점이 되고 있는 지구의형의 프라네타리움이 인상적이긴 하지만 각 시점에서 바라볼 때마다 각기 다른 면을 보여주는 천의 얼굴을 가진 건축물이라고 할까?

첫 인상에서 느낀 짐을 몇 년어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피터 쿡의 말처럼

- 17 시민홀 광장에서 바라본 문화센터 후문
 - 18 사무실의 채광과 조망을 위한 선관가든
 - 19 우주의(시민홀)측에서 바라본 문화센터 전경
 - 20 문화센터내 야외극장
- 아긴에는 야외극장에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어린이들은 환상과 동경의 세계로 여행하게 된다.



즉 모든 복잡하게 느껴지는 다양한 형태들 가운데 후면의 구형 프라네타리움과 시민홀이 시각적 형태적 중심점을 형성하면서 다양속에 통일감을 부여하는 구성인 것이다.

그리고 하이테크를 지향하는 첨단산업이 밀집한 후지사와시의 문화센터는 미래도시를 지오데식 돔으로 덮어 인공환경을 조성하려 했던 버킨스터 풀러(Buckminster Fuller)처럼, 하이테크 이미지로서 완전한 형태인 구형을 도시의 상징적 이미지로 치환시키겠다는 발상인 것이다.

과거의 상징성이었던 고전적인 대칭적 위계구성에서 탈피한 새로운 첨단사대에 걸맞는 하이테크 이미지 창출의 결과가 바로 쇼난다이 문화센터인 것이다.

장방형 대지의 남동측 주출입구에 서면 편칭메탈과 색유리로 상부구조가 이루어진 엔트런스 퍼콜라가 나타나고 이 퍼콜라의 통로 옆에는 인공적인 쇼난다이 연못이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종교건축물들에서 사용되었던 물을 통과해서 진입하는 형식과 같은 발상이다.

퍼콜라를 지나면 인공적인 개천과 다리가 있는 광장이 나타나고 우측에는 야외극장이 자리잡고 있다.

광장과 연못에는 편칭메탈의 인공적 나무잎으로 이루어진 시계의 나무와 빛과 바람의 나무가 서있으며, 아간에는 조명과 음향을 발신하면서 움직이고 있었다.

지구의의 형상을 한

프라네타리움(현상안에서는 자기타일 마감이었으나 현재는 알루미늄 패널로 마감됨)을 중심으로 어린이회관과 시민홀의 기능이 양분되고 외부에서 상징적으로 지구의인 프라네타리움으로 계단을 통해 진입하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외관상으로 떠있는 지구의 하부를 통과하면 다시 광장이 나타나고 시민홀 입구가 나타난다.

지구의 양측에 수정의 단위형상을 한 지붕을 실내부분에서는 천장으로 구성하여 실내에 채광이 가능토록 한 발상이나 외부에서 퍼콜라로 기능케 한 발상은 80년대초 비잔티움에서의 개념의 연장이지만 절묘한 아이디어라고 생각되었으며 전체적 형상을 단위형상의 집합에 의한 구성이라는 체계를 취함으로서 현상안이 실현되었을 때 공장생산에 의한 조립식 시스템을

「예상밖」이라는 단어와 「형태적 쇼크」 그리고 「다양성」이라는 단어였다.

신기함과 기묘함이 뒤섞여 마치 로보트라도 튀어나올 것만 같은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각 공간들의 다양성에 다시 한번 놀랐다.

문화센터를 한번 돌아보고 나서 전체적 구성을 머리속에 정리한 결과, 기본구성은 수정같은 단위형상의 지붕을 지닌 어린이회관이나 문화센터 사무실의 위계적 틀이 지구의 형상을 한 프라네타리움과 우주의 형상을 한 시민홀에 이르러 형태적 클라이맥스에 도달하는 구성으로 비록 복잡하기는 하지만 기능전결적 구성이 기본골격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고려했다는 것이 이 안이 실현화될 수 있었던 큰 이유라는 생각이 들었다.

즉 과거의 등식 조립식=확립화라는 기존관념에서 탈피해 조립식=다양화로 개념의 발상을 전환시킨 점이 특이하다고 생각되었다.

시민 홀 입구광장을 나와 공원측에서 바라본 측면은 절단된 지층을 표현하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으로 구성되어 있어 개념상 이미지에는 적합했지만 외견상 거친 느낌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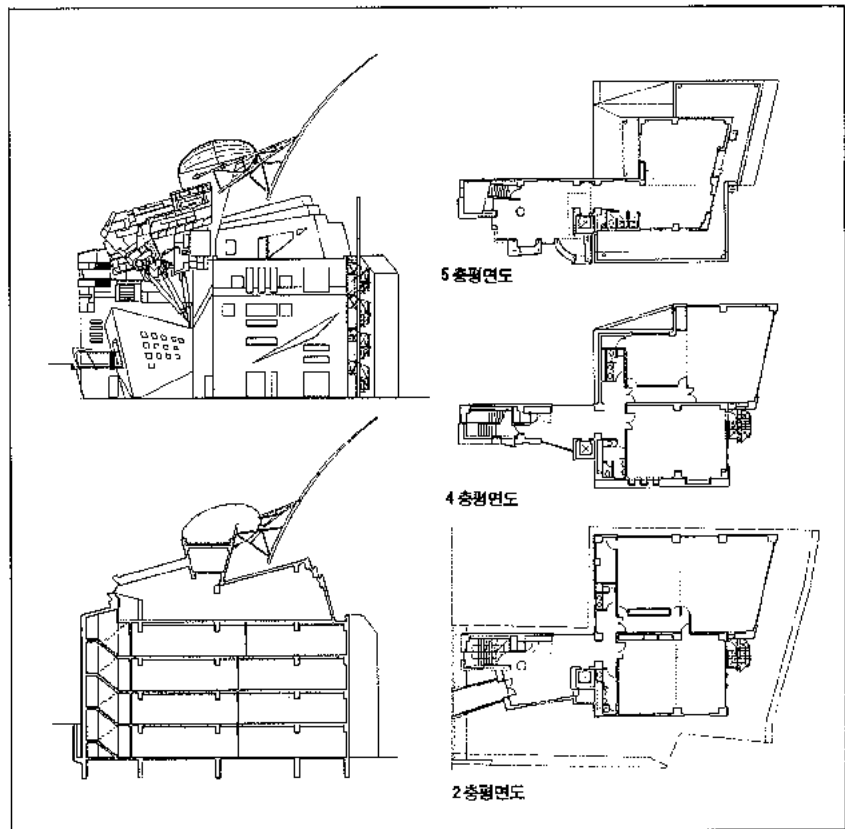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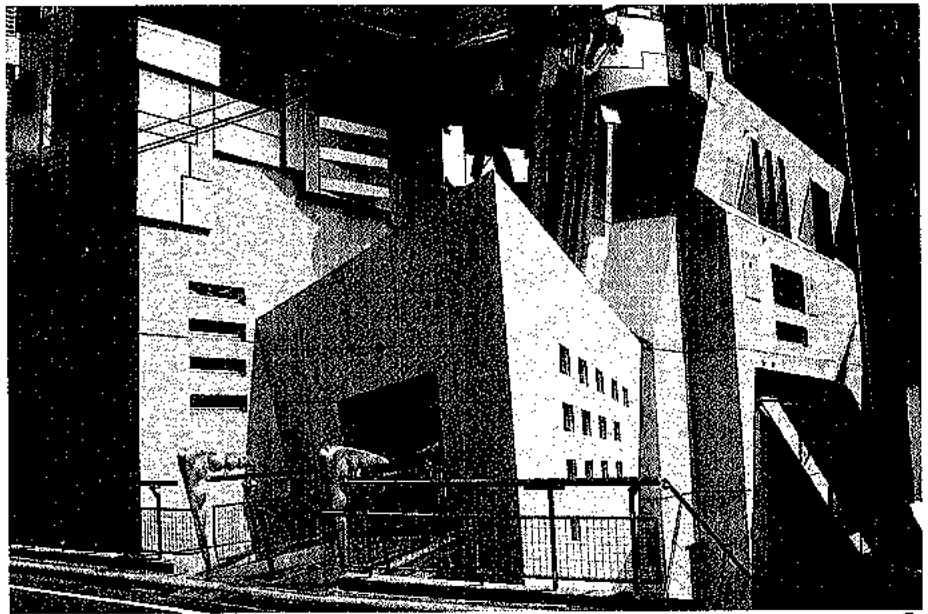
이외에도 어린이회관 실내에 커다란 곤충모양의 조각, 좌측 사무동의 엘리베이터 홀부분의 장님을 위한 바닥타일, 지하 사무공간을 위한 선문가든, 좌측의 인공언덕을 따라서 오르는 산책로와 브릿지(브릿지 측면에는 구름모양의 무늬장식이 부착), 엔트런스 퍼골라 바닥에 설치된 자기제 오브제 겸 벤취 등 다종다양한 요소들이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이 복합적 프로젝트를 진행시킨 하세가와 이즈코의 능력에 경의를 표하고 싶었다.

어두움이 깔리자 야외극장에는 단이 마련되어 아이들이 옛날이야기를 하는 아저씨 주위에 모여들이 환상과 동경의 나라로 꿈을 펼치고 있었다. 건축물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로서의 행사도 이 문화센터를 활성화시키는 큰 요인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녀가 주장하는 “건축에 있어서도 「여성원리」, 「여성적인 것」 혹은 페미니즘이 의미를 지녀야 한다.”는 말을 이 여류건축가의 쇼난다이 문화센터를 통해 새삼 재음미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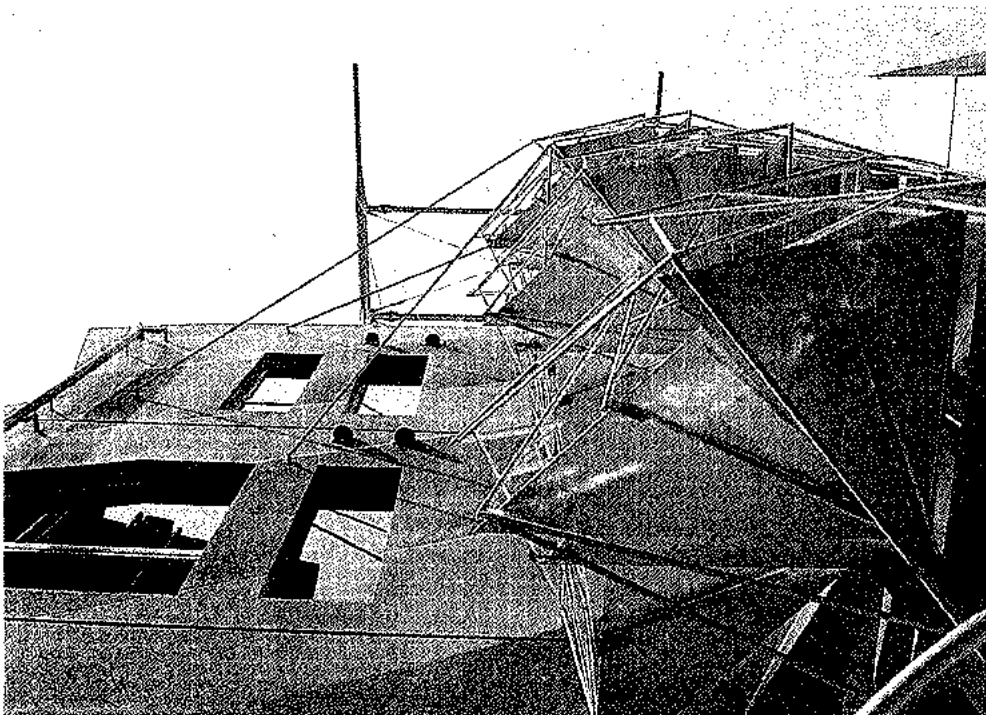
4. 아오야마 제도전문학교 1호관

쇼난다이 문화센터가 비록 여성이 설계했지만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비해 아오야마 제도전문학교는 젊은 남성건축가와 파나베 마코토(渡邊 誠)가 국제현상에 응모 당선하여 실현시킨, 쇼난다이에 비해서는 소규모 프로젝트이다.

여성 대 남성, 대규모 대 소규모 라는 대비적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프로젝트에 있어서의 공통점은 현상설계에 의해 실현되었다는 점과 그 안들이 혁신적이라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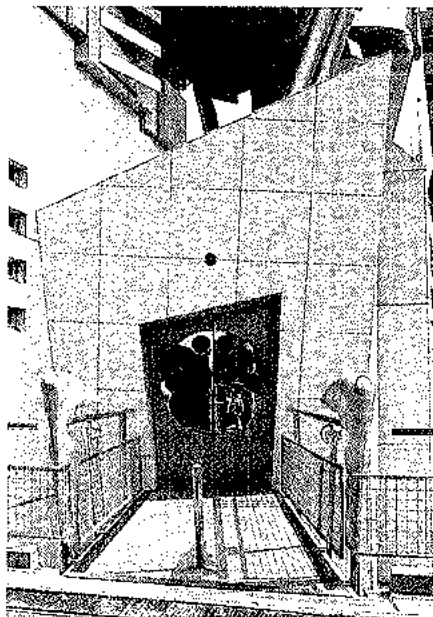
- ㉑ 아오야마제도 전문학교 1호관 전경
- ㉒ 브릿지를 통해 진입하게 되어 있는 입구
- ㉓ 단면도 및 각층 평면도



또한 쇼난다이 문화센터의 인공적인 시계의 나무에서 조명과 음향을 발신하듯이 아오야마 제도학교 역시 발신기치화한 형상으로 이루어 졌다는 점이 아채롭다고 하겠다.

도쿄 시부야역에서 멀지않은 곳에 위치한 아오야마 제도학교를 누구나 본다면, 앓! 하고 놀랄 것이다. 형태적 충격과 기묘함이 쇼난다이 문화센터와 막상막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계자인 와타나베는 1952년 요코하마 출생. 1976년 요코하마 국립대 건축과 석사과정 수료 및 오오다카(大高) 건축설계사무소 입소. 1979년 이소자키 아쓰리에 입소. 1984년 아키텍츠 오피스 설립 및 요코하마 국립대 대학원 비상근강사의 경력을 지냈다. 급진파 와타나베 마코또는 한스 홀라인(Hans Hollein)의 초기의 급진적 전시회용 프로젝트 항공모함도시(1964)를 연상시키는 제안을 꾸준히 전개해 온 건축가이다.

그러나 그의 전위적 성향때문에 오사카 평화자료관 현상설계 입선(1989), INEX (SD 리뷰 88 입상. 1898) 등의 입상실적외에는 현실적으로 건축화시킨 프로젝트는 이번에 거론할 아오야마 제도전문학교 외엔 설계사무실 개업후 전무하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행운의 여신이 그를 외면하지 않은 덕택에 그의 과격한—기계화된 곤충이나 오토바이의 엔진처럼 보이는—제안이 현실화하게 된 것이다.

이 현상안이 당선된 배경을 본다면 아오야마 제도학교=디자인의 첨단 제도학교라는 이미지로 레벨 업시키려는 의도와 부합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도 최근 디자인학원의 붐이 일고 있지만 학생들이 학원을 선택하는 기준이 그 학원의 평판과 함께 구체적 실체로 나타나는 건물의 디자인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건축주는 과감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선정이유는 적합성과 충격성이라는 말로 요약이 가능하다. 그것은 해답으로서 적합성이고 건축으로서 힘이 기대된다는 것이었다”고 술화하는 건축가의 말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는 그의 건축을 「확장건축」이라고 명명하고 있으며 그것은 현상설계에서 요구하는 8교실 400명 수용의 공간과 교육 및 전시공간이라는 공간적 요구나 설계기간 3개월반, 시공기간 10개월이라는 시간적 요구와 별도로 제도학교 상부에 자리잡은 기계적 곤충같은 형태 자체의 자율성 및 도직 구성과 관련된 건축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아오야마 제도전문학교 1호관은 형태의 가이함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강한 에너지를 발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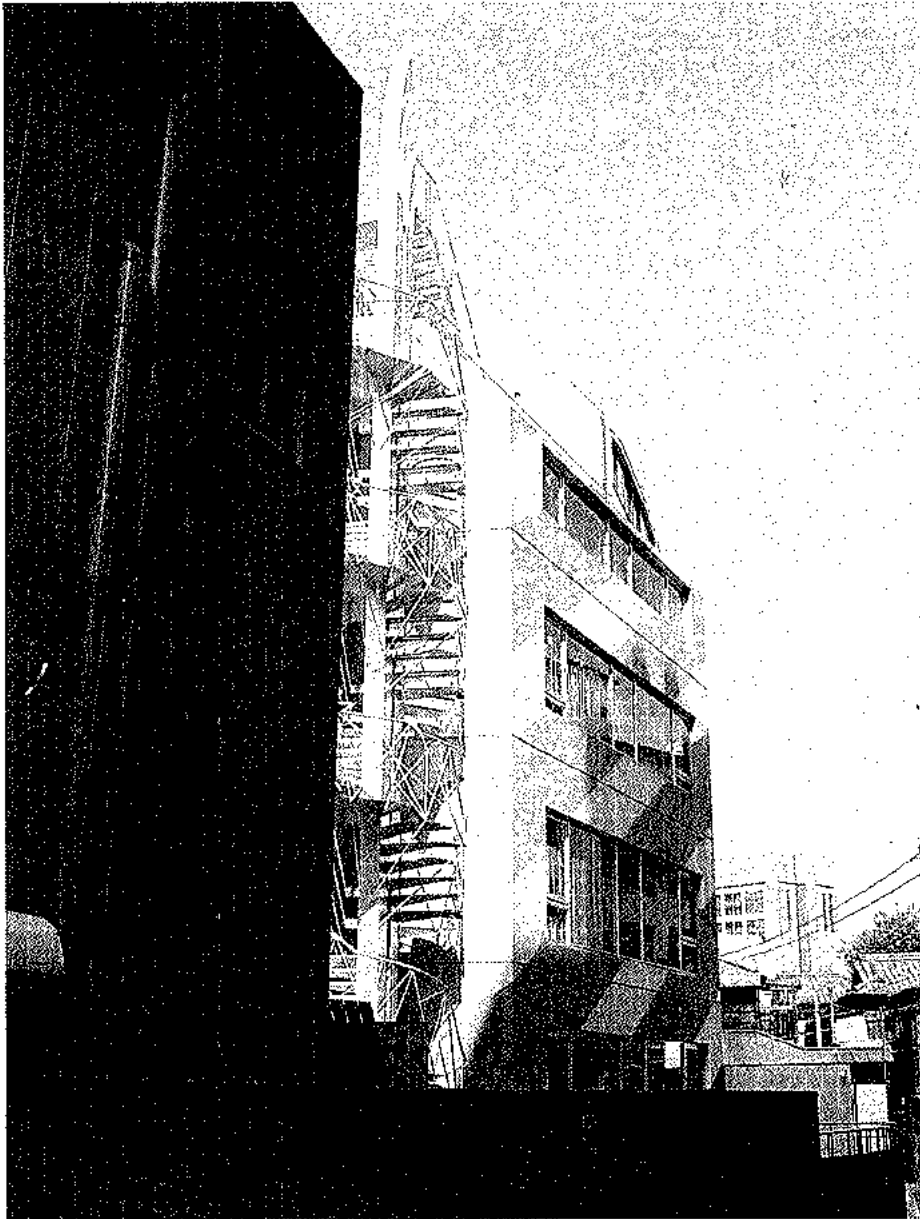
마치 엔진에 시동을 걸기만 하면 당장 움직일 것같은 잠재적 형태 에너지로 충만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터미네이터나 에어리언Ⅱ에서 보여지는 SF 적 환상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며 카프카적인 부조리와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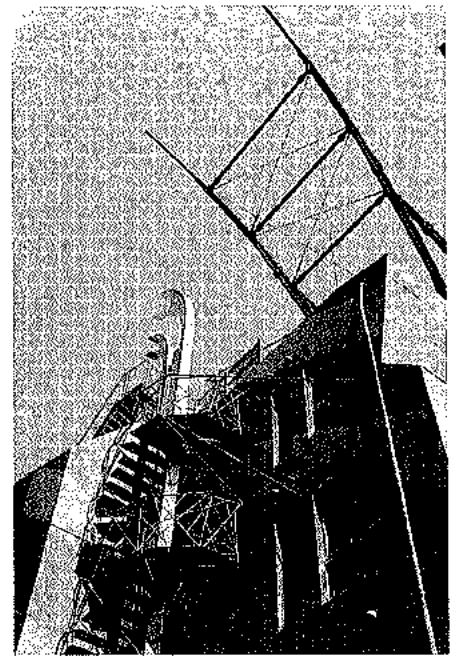
건축은 모순된 사회 속에서 더 이상 정태적인 형상으로 존재하기에는 사회가 너무 불합리하다는 항변처럼 이 건축가는 말하는 것 같기도 하다.

레벨차가 있는 대지에 세워진 이 5층 건축물은 4층까지가 교실, 5층이 라운지와 프레젠테이션 쏘룸 그리고 곤충의 머리같이 형상화된 부분이 고가수조이다.

실내공간 역시 일반적인 직교체계의 공간에서 탈피를 시도하고 있으며 정방형



- ㉔ 아래에서 위로 올라다본 계단실
- ㉕ 직교그리드체계에서 벗어난 입구홀
- ㉖ 건물내부
- ㉗ 계단실이 있는 후면 전경
벽면을 그래픽으로 처리한 다른 분위기이다.
- ㉘ 계단실과 피뢰침이 보이는 디테일 구성



창들이 규칙적으로 연속된 사선으로 기울어진 벽채, 강렬한 적색으로 도색된 기둥과 천장 그리고 노출된 보, 재미있게 디자인된 소파 등 일반적인 기존관념의 공간에서 이탈하려는 해체적 분위기의 실체인 것이다.

단기간의 설계기간과 공사비 등으로 인해 내부공간은 외형의 충격적 형상보다는 온건하지만 기존적 건축에서 이탈, 비상하려는 에너지의 충만함으로 느낄 수 있다.

후면의 계단실이 있는 부분은 밝은 인녹색과 황색으로 그래픽하게 도장

마감되어 전면에서의 분위기와는 또 다른 분위기를 표출하고 있었고 비상계단의 거미발같은 형상의 난간이 건축가의 노력의 흔적을 엿보이게 했다.

빈의 건축가 한스 홀라인이 한때 “모든 것은 건축이다”라는 명제로 전시회를 개최한 바도 있었지만 아오야마 제도 전문학교 1호관을 설계한 와타나베 마코토 역시 한스 홀라인, 다카마쓰 신 등을 잇는 전위적 건축가의 대열에 서서 건축의 영역을 모든 분야로 확장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학교 물탱크 상부의 피뢰침은 마치 이제부터 “건축은 정보이다.”라고 발신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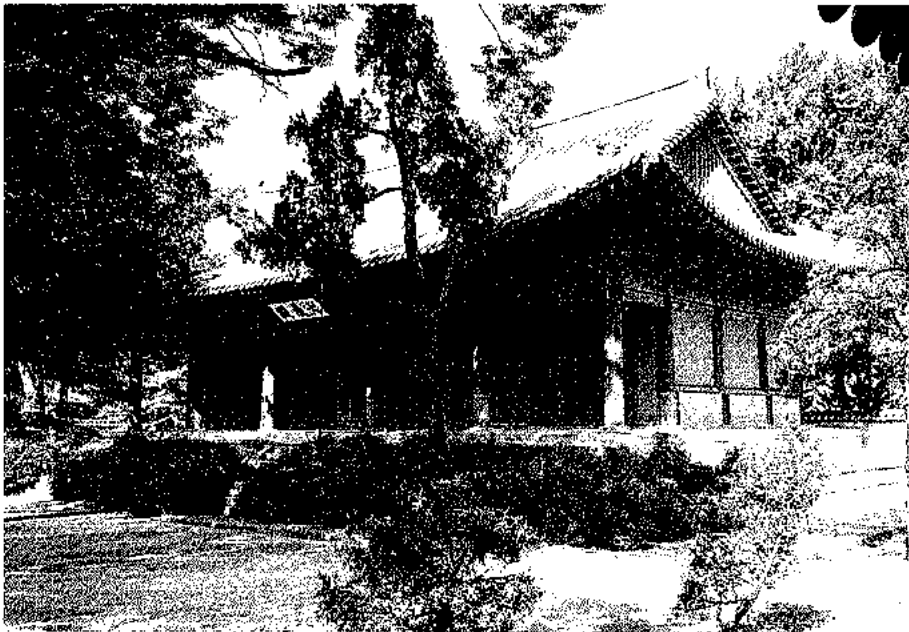
서있는 것 같았다.

註)

1. “長谷川 逸子” SD 특집 : (SD 85년 4월호), P. 80
2. “축소지향의 일본인” 李御寧(甲寅出版社, 1982), P. 177
3. “후지사와시 쇼난다이 문화센터 디자인 현상설계”(신건축 86년 4월호), P. 149
4. “아오야마 제도전문학교 1호관” 渡邊 誠(신건축 90년 6월호), P. 236

朝鮮시대의 建築

Korean Architecture History of the Chosun Period



朝鮮의 文廟 및 書院建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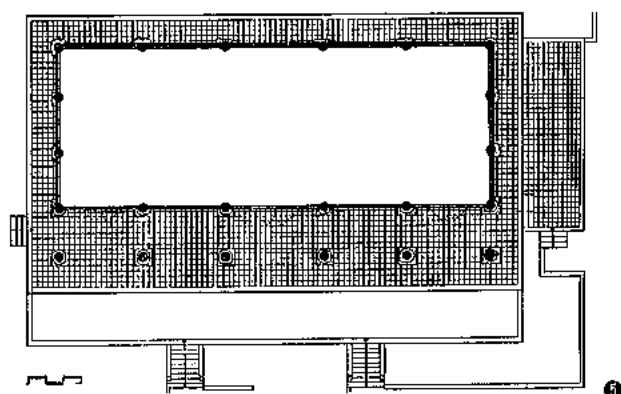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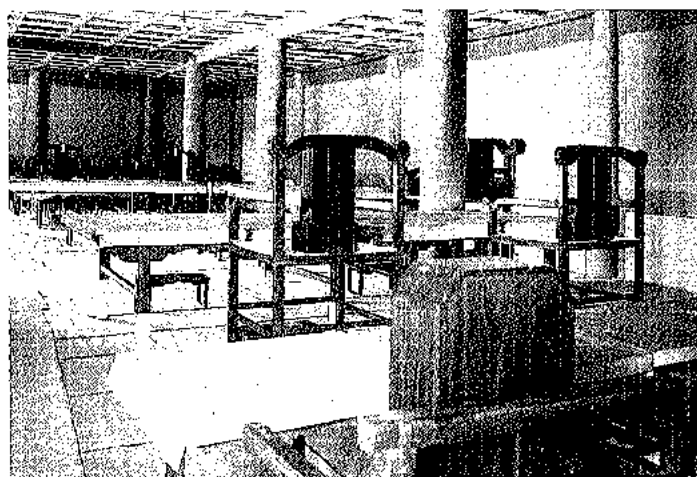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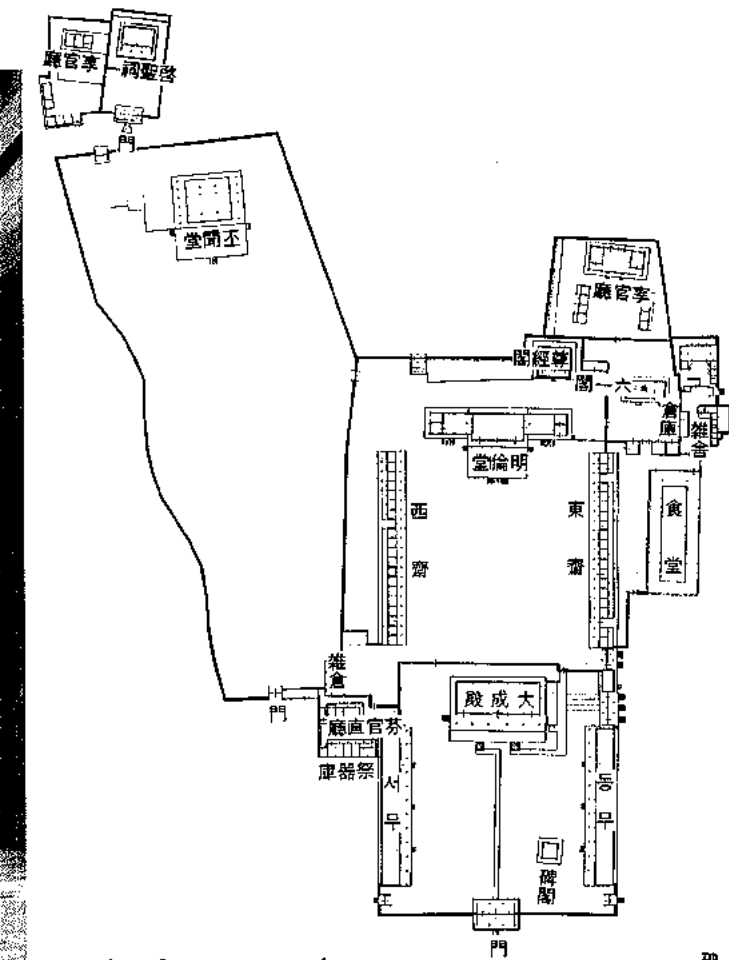
1) 文廟 및 鄉校

우리나라의 불교는 삼국시대에서부터 비롯하여 千餘년간을 國敎와 같이 信奉되어 사회제도 및 문화 예술등 공헌한 바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僧侶들의 지나친 재물의 축적과 寺塔의 濫發로 국가 제정의 낭비, 승려들의 국가에 대한 免役으로 노동력의 부족, 기타 승려들의 非行과 毆打 등으로 인하여 고려말기에는 세속으로부터 크게 비난을 받게 되었다. 그러다가 朝鮮이 鼎立되면서 抑佛정책과 함께 儒敎를 숭상하는 정책을 펴나갔으니 이에 따라 성리학의 발달과 공자를 奉祀하는 문묘가 서울을 비롯 지방에도 세워지고 〈朱子家禮〉에 의한 家廟도 세워지게 된다. 그러나 文廟나 지방 鄉敎 등에는 당시 교육의 기능을 겸하고 있어 明倫堂이란 강학의 건물을 겸비하였다.

張慶浩/문화재연구소장
by Chang, Kyung-Ho

그러므로 이들 교육기관은 당시 과거제도와 관련하여 四學과 鄉敎 등을 거쳐 최고학부인 成均館에 儒生인 進士나 生員이 되어 국가의 과거에 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官學 제도이고 당시 私學機關인 書齋나 書院이 양반들 사이에 과거준비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유학은 朱子學(性理學)의 영향을 많이 받아 발전되었는데 주자학을 처음 받아들인 이가 고려말 安珦이다. 그후 조선시대에 李晦齋를 선구자로 李退溪에 의하여 大成된 主理派와 徐花潭을 선구자로 李栗谷에 의하여 이루어진 主氣派가 형성되어 발달되었다.

서울 文廟는 朝鮮 태조 7년(1398)에 창건되었다가 1402년에 화재를 입고 1407년에 재건되었으나 한때(燕山君)는 유생들마저 이곳에서 쫓겨나 이곳은 놀이터화되었던 일도 있었다. 그러다가 중종때 다시 복구되었으나 임진왜란때에는 모두 불타 버린 것을 그후 1602년에 大成殿이 건립되고 1606년에는 明倫堂이 완성되었다. 그 배치를 살펴보면 대체로 南北 축을 이루어 남쪽에 大成殿 구역을 두고 북쪽에는 明倫堂 구역을 이루어 주위에 담장으로 구획을 이루고 있다. 대성전 구역에는 앞에 중문을 들어서면 대성전 바로 앞에는 배례청이 있고 그 좌우에는 東·西廡가 남북으로 길게 놓이며 東廡 앞에 碑閣이 놓여있다. 또 明倫堂 구역은 대성전 뒷쪽에 놓여 중앙후측에 명륜당이 있고 그 앞 左右에는 東·西齋가 남북으로 길게 놓여있다. 또 명륜당 뒤에는 尊經閣·享官廳 등의 부속건물이 있다. 원래에는 이 서북쪽에 丕闡堂과 啓聖殿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대성전은 정면 5칸 측면 4칸의 팔작지붕을 한 多包系 건축이다. 측면으로 보아 전면의 한칸통을 개방하여 退를 이루었다. 정면의 중앙칸과 左右 隅楹칸은 2각 판문을 두고 중앙 左右間을 불박이 살창을 하였고 기타는 모두 벽채로 막았다. 내부바닥은 塼을 깔고 천장은 우물천장을 짜고 공포는 內外 2出目の 쇠서가 내려치진 단순하면서도 견실한 古式의 포작을 이루고 있다. 기단은 다른 건물에 비하여 훨씬 높게 짜아 전면에만 한 단 낮은 月臺를 두고 계단을 그 전면 左右에 놓고 기단 서측면에도 계단이 있고 동측에는 덧댄 기단을 만들어 그 앞쪽에 계단을



두었다. 이 대성전에는 孔子를 비롯하여 四聖·十哲 및 宋朝六賢의 位牌를 봉안하였다. 건물의 단청은 원래 화려하지 않은 유교건축의 특성을 보여 기둥을 포함한 축부에는 石間朱칠을 하고 그 위의 包作과 서까래 등은 磊綠을 단조롭게 칠하였다. 大成殿 앞 東·西 兩 옆에 있는 東·서무는

각 11칸의 맞배지붕 익공집인데 內庭을 향하여 퇴칸을 개방시킨 건물이다. 여기에는 공자의 70 제자와 한국 및 중국의 諸賢 111위를 모신 곳이다. 每2칸마다 출입을 위한 판문을 달고 각 방에는 불박이 살창을 달았다.

대성전 후측 담장 밖에 있는 明倫堂은

- ① 서울文廟 大成殿 전경
- ② 전면
- ③ 내부전경
- ④ 서울文廟 배치도
- ⑤ 대성전 평면도(張起仁, 건축문화 3401에서 轉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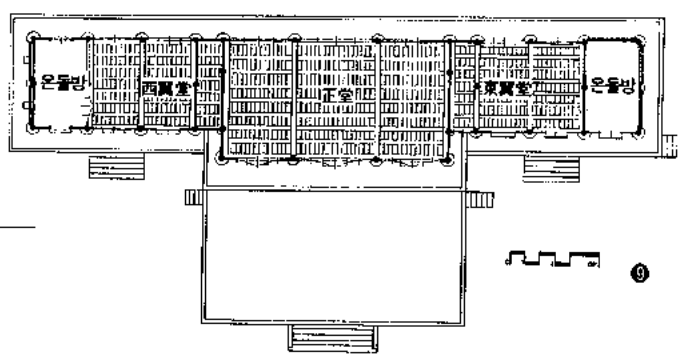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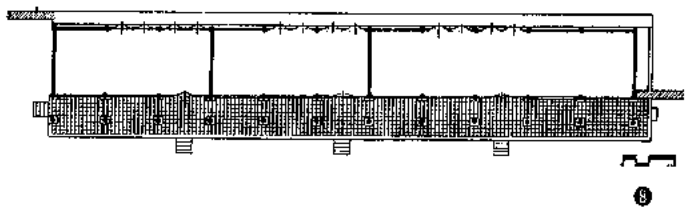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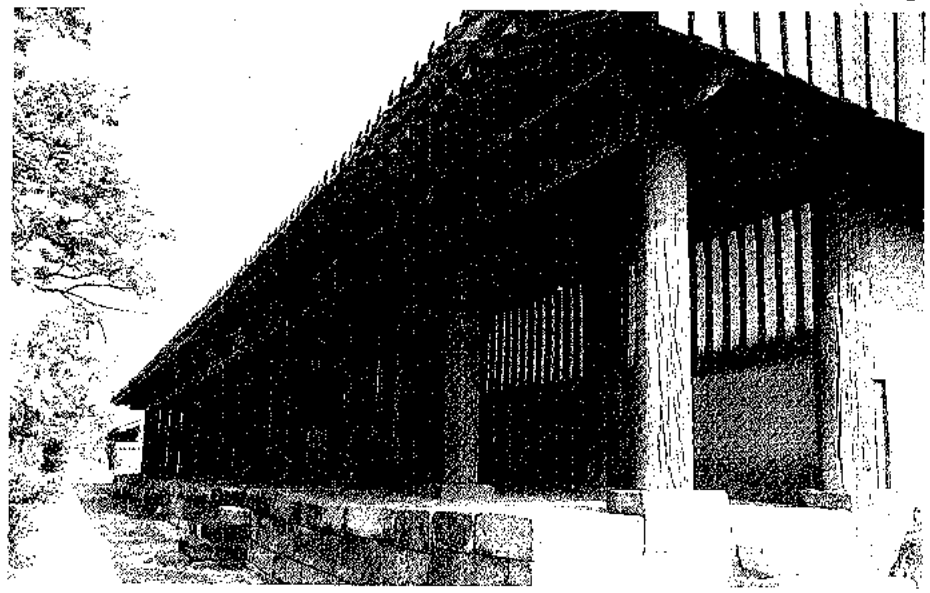


中央堂과 양측의 翼室로 꾸며졌는데 지붕은 맞배로 되어 양측 翼室은 중앙당보다 낮게 꾸미었다. 또 익실의 바깥쪽은 팔작지붕을 하였다. 中央堂의 주칸은 正·側面이 3칸씩이고 兩익실은 3칸과 2칸이다. 내부는 모두 마루를 깔았는데 원래 익실 양끝은 온돌로 꾸미었었다. 공포는 중앙당이 2익공이고 익실은 초익공으로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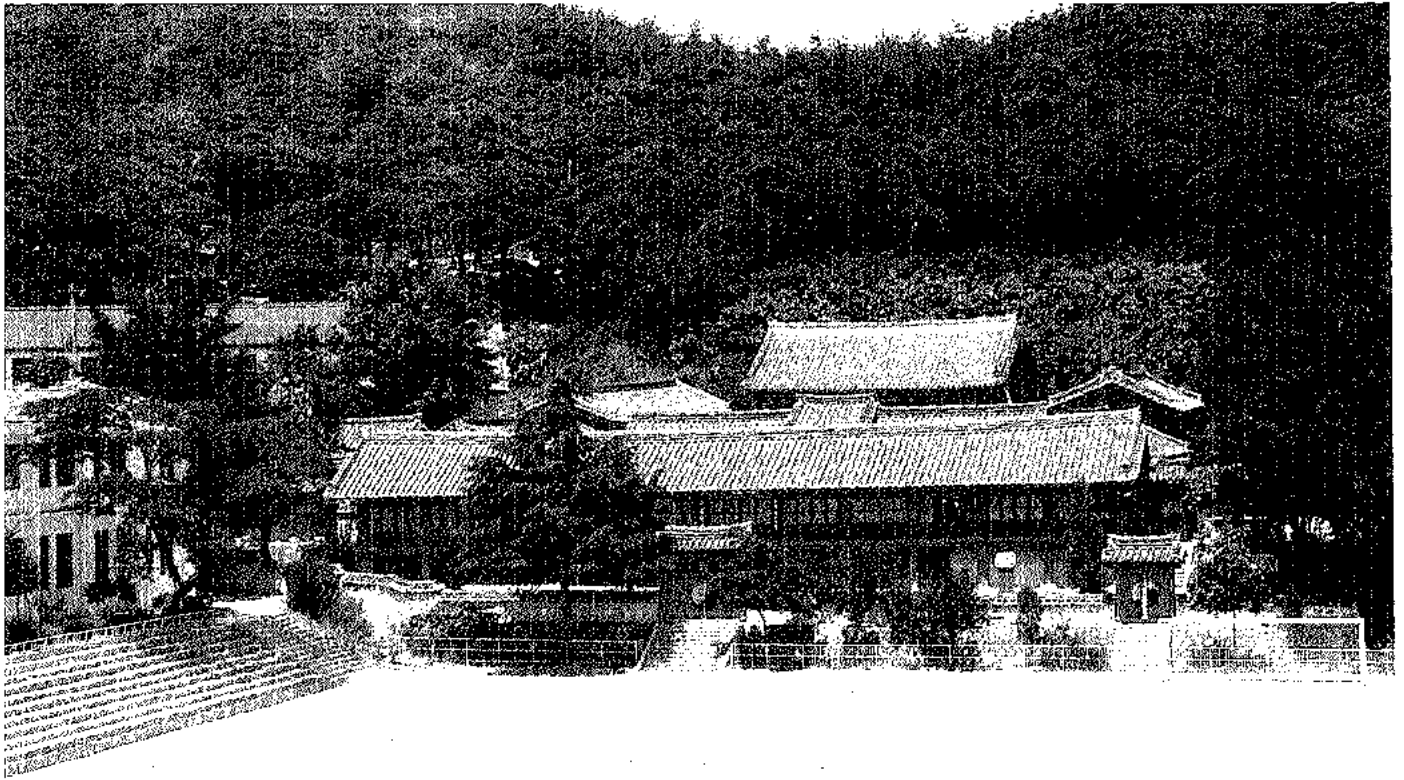
강릉 文廟은 고려말기 향교로 창건되었고 조선초(1486)에는 大成殿과 東·西廡를 중건함으로 文廟로서 面模를 갖추기 시작한 듯하다. 현재의 대부분의 건물의 배치는 조선 중기 이후에 중수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배치는 향교의 일반적 배치인

'前學後廟' 형식을 하고 있음이 서울 文廟의 배치와는 다르다. 대체로 남향하여 南低北高形 지형을 이루어 남쪽에 높은 축대와 계단을 두어 그 위에 정문과 막돌담장을 쌓아 경내외를 구분하였다. 그 뒤로 동서로 길게 놓인 明倫堂이 있고 이 북쪽 內庭에는 左右에 東·西齋가 남북으로 길게 있으며 북쪽에는 大成殿 區域으로 오르는 계단이 놓여 여기에 오르면 회랑이 東西로 길게 놓여있고 이 북쪽으로 內庭을 사이에 두고 대성전이 놓여있다. 大成殿 앞 左·右에는 東·西廡가 남북으로 길게 놓여있다. 전체 배치로 西南 외곽에는 齋房이 있고 동쪽 외곽에는 관리사가 있다.

大成殿은 전면에 층높은 장대석으로 된 기단 위에 정면이 5칸 측면이 3칸 맞배지붕의 주심포계의 건물이다. 측면으로 보아 앞쪽의 한칸은 개방된 퇴칸을 두고있어 건물 내측으로 중앙 3칸에만 교살문을 달아 출입을 할 수 있게 하고 측면의 중앙칸은 측부 중간부에 살창을 달았다. 내부의 바닥은 화강석의 판석을 깔고 건물 전면의 퇴와 기단의 바닥은 전을 깔았다. 천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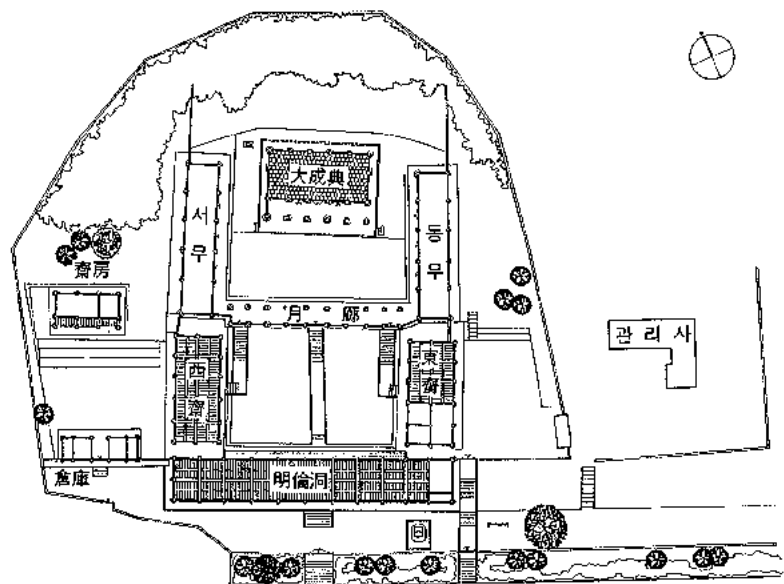


- ⑥ 明倫堂 전경
- ⑦ 동무 정경
- ⑧ 서무 평면도
- ⑨ 명륜당 평면도
- ⑩ 江陵文廟 전경
- ⑪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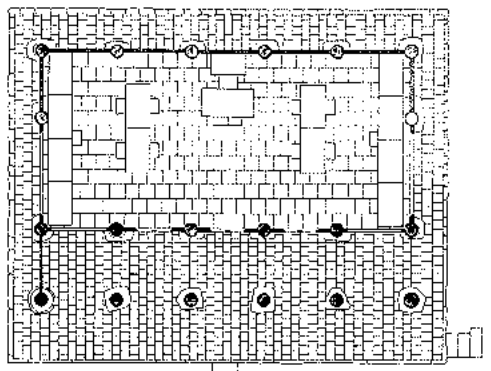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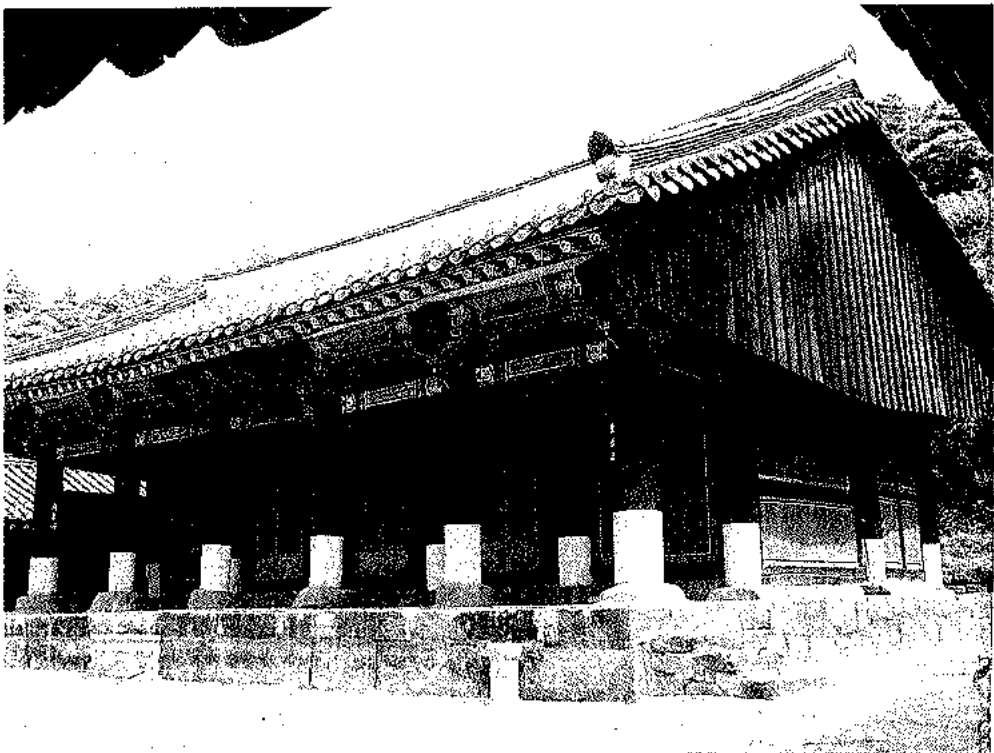


연등으로 지붕 기구가 보이게 하였는데 배흘림 있는 기둥 위에 대들보와 킷보를 두고 그 사이에 고주를 세워 종보가 얹어지도록 짜았다. 공포는 헛침차가 있는 주심보를 짜았는데 쇠서의 끝이 날카롭고 보머리의 三分頭가 세련되고 보의 단면이 향아리형으로 조선 초기적인 수법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 건물은 전체적으로 보아 건실하면서도 아름다운 건물이다. 이곳에는 공자를 비롯한 4聖과 孔門十哲 末朝八賢 등을 봉안하였다.

한편 명륜당은 정면 11칸 측면 2칸의 누각형 건물인데 내부로는 동칸의 대들보를 건너보았다. 바닥은 마루를 깔았으나 동측 끝은 방으로 꾸미었다. 건물전후의 외벽은 변형된 완자 살창을 날았다. 또 내부는 연등으로 기구가 노출되게 하였다. 공포는 초익공을 두어 包間에는 화반을 놓고 익공과 침차 보아지 등의 형식으로 보아 조선 중기 이후의 건물로 판단된다. 지붕은 대성전과 같이 홑처마의 간단한 구조를 보인다. 기타 동·서무나 부속 건물들은 간결한 구조를 하였다.



이상과 같이 鄉校는 敎育기능과 祭祀기능을 겸하여 文廟와 明倫堂을 같이 두었다. 문묘에는 공자를 비롯한 聖賢을 제사하고 그 앞 동·서 양측에는 동·서무를 두어 역시 先賢을 제사하였다. 또



- ① 강릉문묘 大成殿 전경
- ② 전면공포 상세
- ③ 내부전경
- ④ 평면도
- ⑤ 文廟와 明倫堂 사이 중점
- ⑥ 명륜당 전면

明倫堂에서는 儒學을 講學하여 공부하는
곳이었고 그 앞의 左右 양편에는
동·서재실이 있어 儒生들이나 祭官들이
머물거나 경우에 따라 선현을 봉안하기도
하였다. 이 향교의 제도는 과거시험을 보기

위하여 이용되었으나 조선중기 書院이
변영되면서 그 빛을 잃게되다가 19세기말
과거의 폐지로 그 기능을 잃었다.

서원은 원래 중국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는데 漢代부터 지방에서 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경영된 '私塾'이 발전하여 후에 精舍
등의 사설 교육기관이 서원으로 발전되는
前身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서원은
7-8世紀 唐 玄宗代에 발생하였음을
《隨園隨筆》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고
10세기말 宋代에 번성하였다. 우리나라의
서원도 私學의 교육과 廟祠의 두 기능을
합한 기구로 세워진 것인데 조선 중기에
변영하였다. 최초의 서원으로서는 경상도
풍기군수 周世鵬이 관내인 순흥 백운동에
유학자 安珦의 古家가 있음을 기화로 거기에
사우를 세우고 경적을 구입하여 유생을 모아
敎와 祭를 겸한 白雲洞書院을 세운 것이다.
그뒤 退溪 李滉이 풍기군수로 있을때
조정에서 賜額과 田土를 주도록 건의함에
따라 명종(1550)은 이를 권장하는 뜻으로
《紹修書院》이라고 친필로 쓴 額과 서적
그리고 學田·노비를 주고 노비에 대한
면세와 면역의 특권까지 주니 이것이
賜額書院의 시초이다. 그 후 조선의 서원은
당쟁과 더불어 숙종 때에는 전국에 300여
개가 되었고 사액서원만도 130여 개소에
이르렀다. 초기의 서원은 인재를 키우고
선현을 제사지내며 정치를 비판하는
긍정적인 일면이 있었지만 차츰 血緣과 學緣
그리고 地緣 등에 의한 당파 파벌은 물론
사액서원이 많아짐에 따라 조세와 군역 등을
기피하고 양반들의 權益 집단체로
이용되었다. 이때에 유생들은 향교를
외면하고 서원에 입학하는 자가 많았다.
그러다가 18세기 영조때 200여 개소의
서원을 정리하였지만 그래도 당시 700여
개소가 남았다. 1864년 고종이 즉위하자
대원군은 서원의 특권을 폐지하고 서원을
정비하여 47개소의 서원만 남기고 모두
철폐한 사실은 주지된 것이다. 조선초기
서원의 대표적인 예는 소수서원을 비롯하여
陶山書院, 玉山書院 등이 있다.

1) 紹修書院

이 서원은 경상북도 영풍군 순흥면
내죽리에 위치한다. 이미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조선 中宗 37年(1542)에 풍기군수



16

주세붕이 안유를 제사하기 위하여 사당을 세우고 그 다음 해에 白雲洞書院이라 하였으며 명종5년(1550)에는 이퇴계가 이곳 군수로 있으면서 왕의 친필로 '紹修書院'이란 額書를 받아 賜額書院의 시초가 되었다. 이곳은 원래 통일신라시대의 사찰인 宿水寺가 있던 것을 철폐시키고 서원을 건립하여 지금도 그 유적으로 당간지주와 초석 등이 남아 있다. 한편 紹修書院에 관한 문헌으로서 《紹修書院實記》《竹溪志》《慎齋年譜》《晦軒實記》 등이 남아 있다.

서원의 배치는 전성기의 일반적인 배치와는 달리 비교적 자유로운 배치를 보인다. 전체적으로 남향을 하고 있는데 동쪽에는 竹溪가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있다. 정문을 들어서면 '白雲洞'이란 현판을 붙인 講堂이 남북 장방향으로 놓여 있는데 이 내부 대청 북면에는 '紹修書院'이란 편액이 높이 걸려 있다. 강당 북면에는 '直方齋'와 '日新齋'의 편액을 左右로 걸은 장방형의 재실이 있다. 그리고 서쪽에는 별도로 담장을 둘러 祠堂이 남향하고 있고 그 사이에 장판각과 그뒤에 曲祀廳가 국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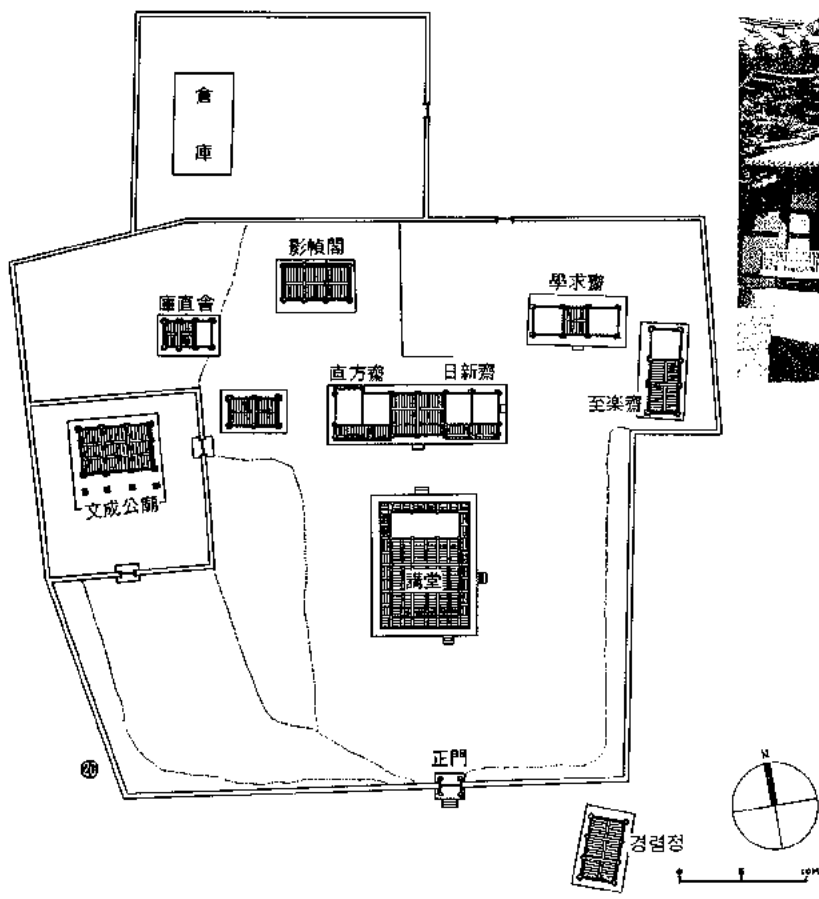


17

安珣의 影順을 보관한 영정각이 있고 동북에는 學求齋와 至樂齋가 축이 직교하여 놓여 있다. 서원은 담장밖 竹溪上의 재월교와 景濂亭 동쪽 계류변에 光風臺 등과 그 주위에 수려한 소나무 등이 壯麗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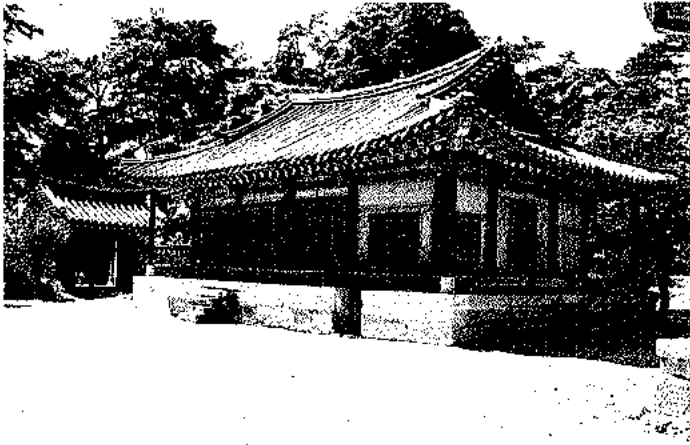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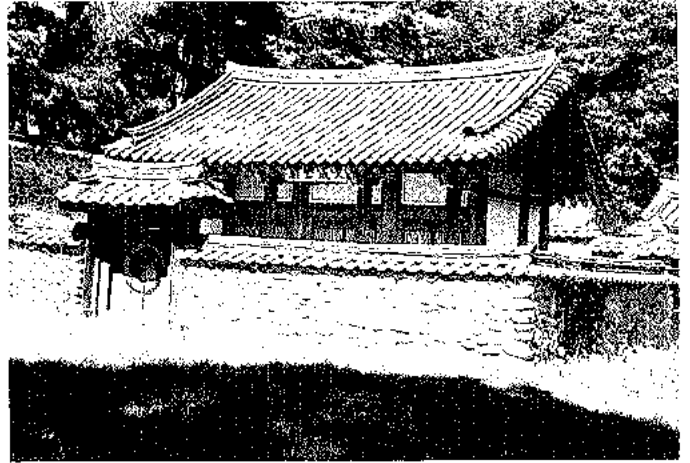
19

2) 陶山書院

경상북도 安東郡 陶山面 上溪洞에 위치한다. 이곳에는 조선시대 대학자인 이퇴계를 향사한 서원으로 퇴계가 죽은 뒤 4년만인 1574년에 유림에서 발의하여 그가 만년에 서당으로 사용한 도산서당 위에 서원을 짓기로 결정하여 그 이듬해 낙성하고 선조로부터 《陶山書院》이란 扁額을 받았다. 이곳에는 600종의 4천권이 넘는 장서와 藏板 그리고 유품들이 있다.²⁾ 도산서원의 배치를 보면 지금은 안동댐으로 그 남쪽 進入空間이 水沒되었지만 서원 앞에서 서남으로 흐르는 洛川을 끼고 가다 서원으로 진입하여 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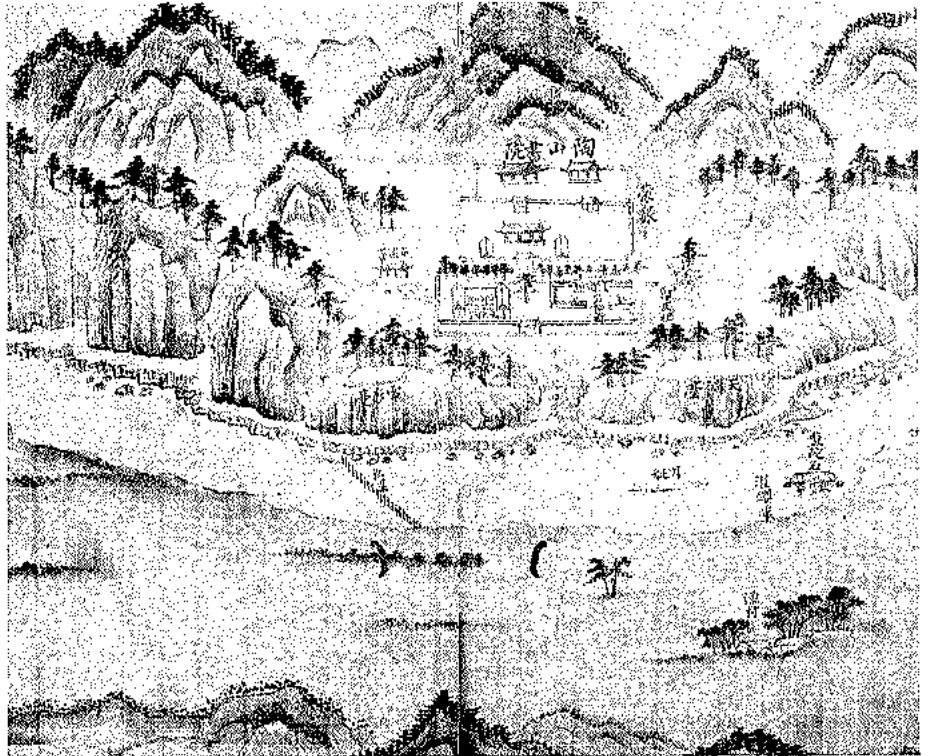
①



②

굽어 올라가는 경사진 길이 있고 이 길을 따라 오르면 오른쪽에 소위 靑龍의 능선이 뻗어 내리고 왼쪽에는 造景樹와 自然樹로 숲을 이룬 넓은 산등과 그 왼쪽에 白虎의 구룡이 뻗어 내려와 있다.

진입 경사로를 따라 좀 오르다 보면 원원으로 꼬부라지면서 정문인 進度門 앞에 서게 되는데 여기서 서편에 따로 떨어져 유일하게 방향을 동으로 약간 틀은 亦樂書齋의 구역이 독특한 配置로 있음을 볼 수 있다. 진도문은 진입 외부 공간보다 높은 지대에 놓여 그 앞의 7~8단의 계단을 올라야 서원으로 들 수가 있다. 진도문을 들어서면 우선 서편에 '工'字形 평면을 한 隴雲精舍가 있는데 건물의 東面은 노출되고 앞뒤로 담장이 연결되어 협문을 통하여 들어가게 되었고 그 뒷쪽에 한단 높은 지대에 下고직사가 있다. 이 하고직사도 주위에 담을 따로 둘러 공간을 分離하였고 이 中央통로 건너 동편에는 陶山書堂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곳은 퇴계가 학문을 연구하고 쉬던 곳으로 주위 담도 원래는 낮고막혀 토담으로 쌓고 東·西·南에 출입문 역시 사립문을 달아 자연과 조화된 공간을 이루고 있다. 서당의 앞 마당은 남북으로 層段을 이루어 북쪽에는 서당을 세우고 남쪽 낮은 지대에는 蓮池 등 정원을 이루었다. 서당의 서쪽에는 온돌방을 들고 동쪽에는 벽없이 트인 마루와 平床을 간를 두고 있으며 앞마당의 동쪽 끝에는 方池인 淨友塘이 있는데 서당의 남편과 동편의 담이 이 方池 끝에 연결되어 언뜻 위에서는 끊겼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출입을 막을 수 있고 서당 내에서는 이 사이로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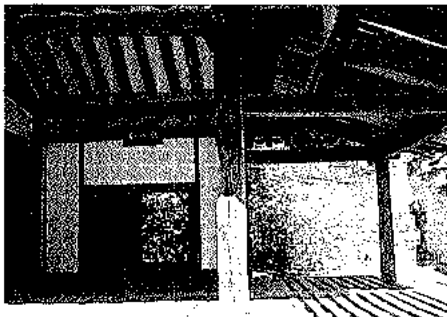
동쪽의 산과 자연을 훤히 바라볼 수 있는 기묘한 계획을 하여 자연적 또는 인위적 공간을 잘 조화시켜 대지의 段差를 두어 자연의 외부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끌어들이도록 한 걸작이라 할 수 있다.

도산서당과 하고직사를 양측에 두고 다시 段을 이룬 계단을 올라서면 講堂格인 典敎堂 구역으로 출입하는 四柱門과 그 앞에 書庫인 樓閣建물을 면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전교당 구역과의 段差는 약 2m로서 진술한 書庫인 東·西 光明堂은 南面은 2層樓이고 뒷면은 전교당 구역에서 보아 단층으로 되어 그

- ① 紹修書院 전경
- ② 日新齋·直方齋
- ③ 배치도
- ④ 명륜당
- ⑤ 인태사묘
- ⑥ 陶山書院도 (김창석작, 19C)



2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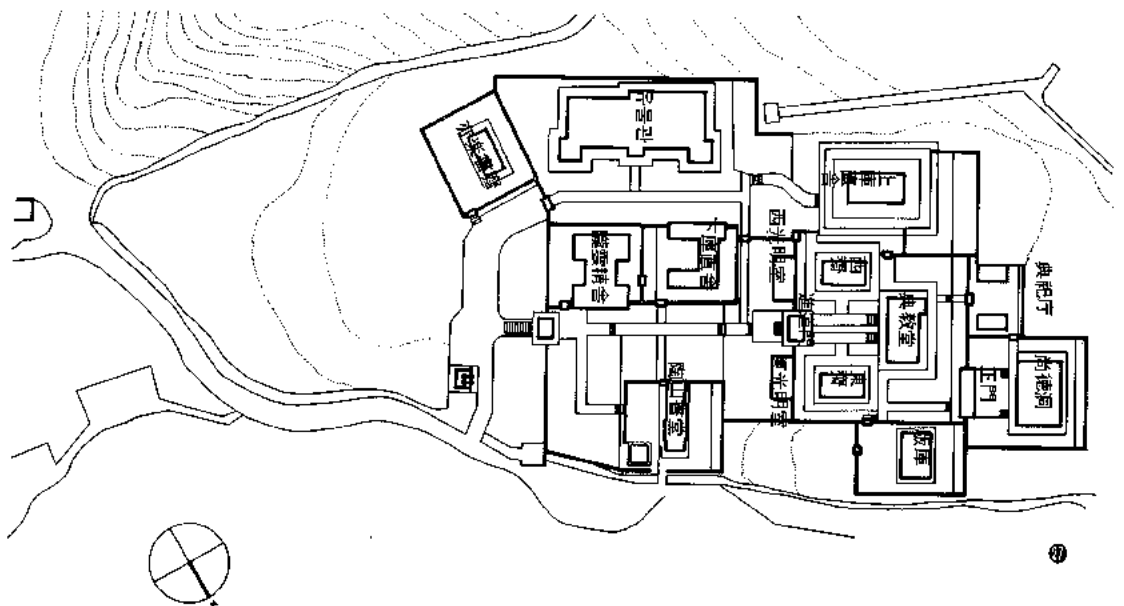


2b



2c

- ㉔ 도산서원 전경
- ㉕ 進道門 앞 석축단
- ㉖ 도산서당 대청
- ㉗ 도산서원 배치도
- ㉘ 典教堂 정면
- ㉙ 架構
- ㉚ 도산서당 평면도
- ㉛ 정면도
- ㉜ 전교당 정면도
- ㉝ 단면도
- ㉞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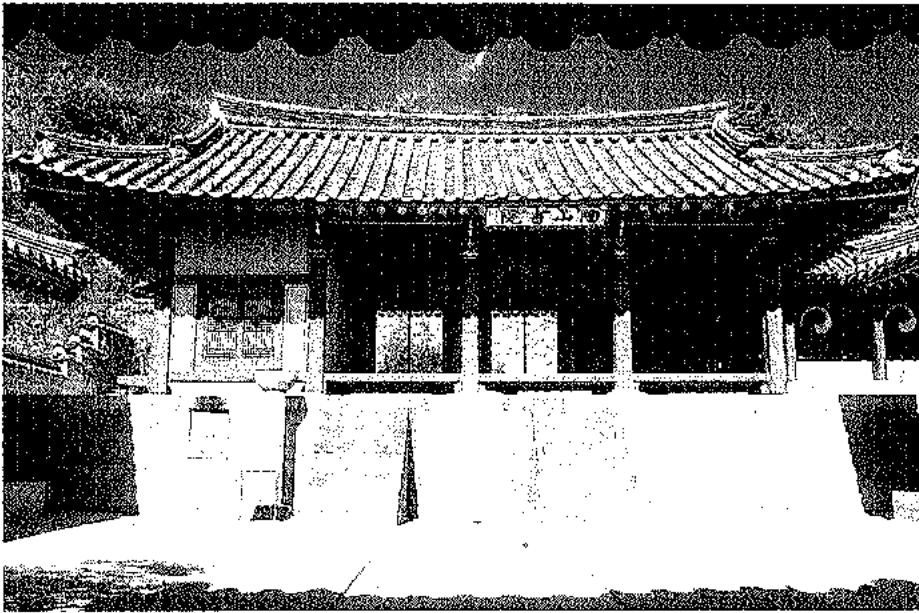
2d

출입이 용이하게 되어 있다. 전교당 구역에 들어서면 정면에 높이 약 2m 内外의 높은 築壇 위에 세워진 전교당이 있고 그 앞 양옆 낮은 곳에는 東·西齋가 마주보고 있다. 이 주위는 담장으로 둘러져 있으며 동쪽에는 따로 담으로 둘러진 板庫의 구역으로 통하고 전교당 동북측에 다시 段을 두어 尙德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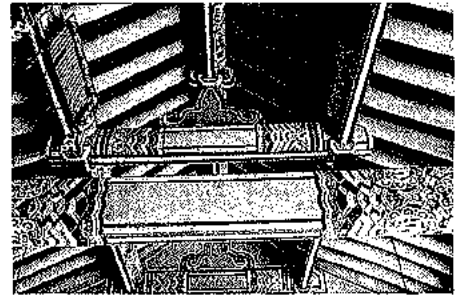
들어가는 三門이 있고 이 문을 들어서면 사당인 상덕사가 한단 높은 위치에 정면하고 그 아랫단 서편에 제기고 2채가 나란히 놓여 있다.”

3) 玉山書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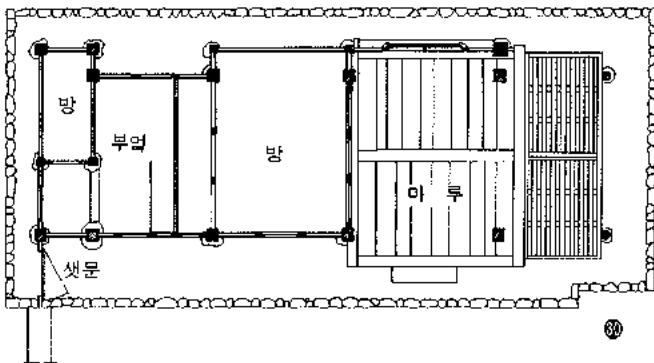
경상북도 慶州郡 安康邑 玉山里 南川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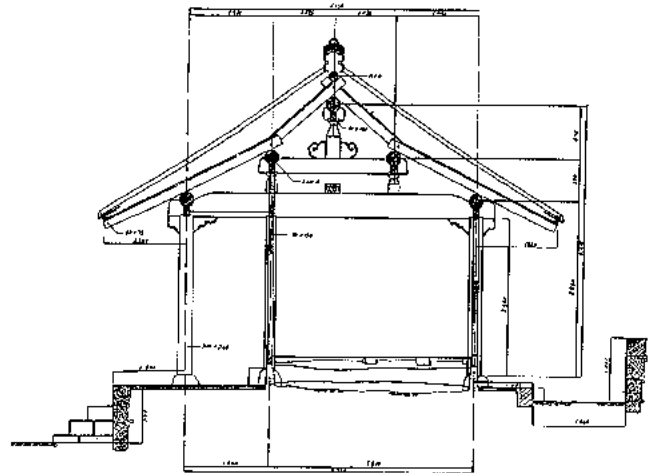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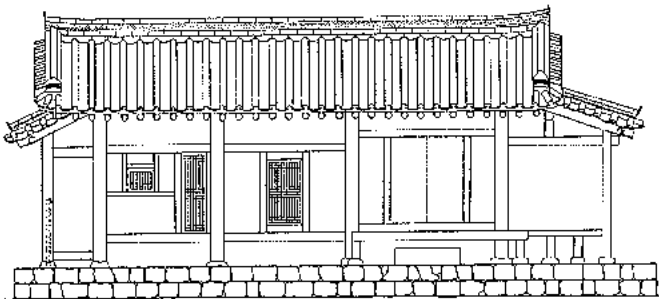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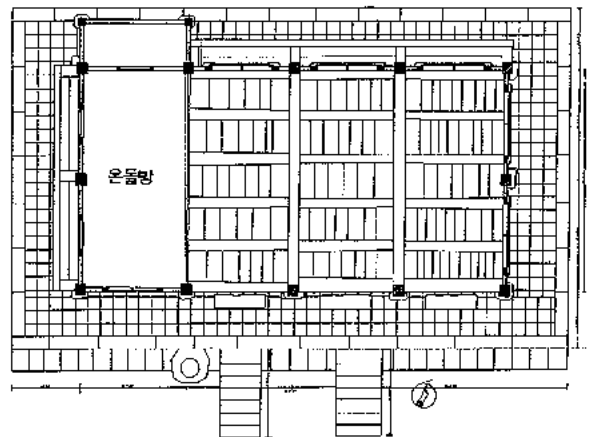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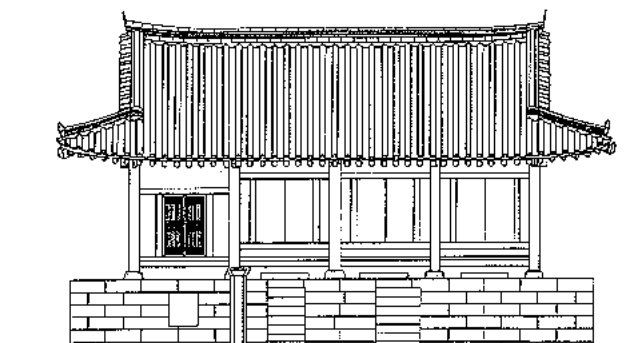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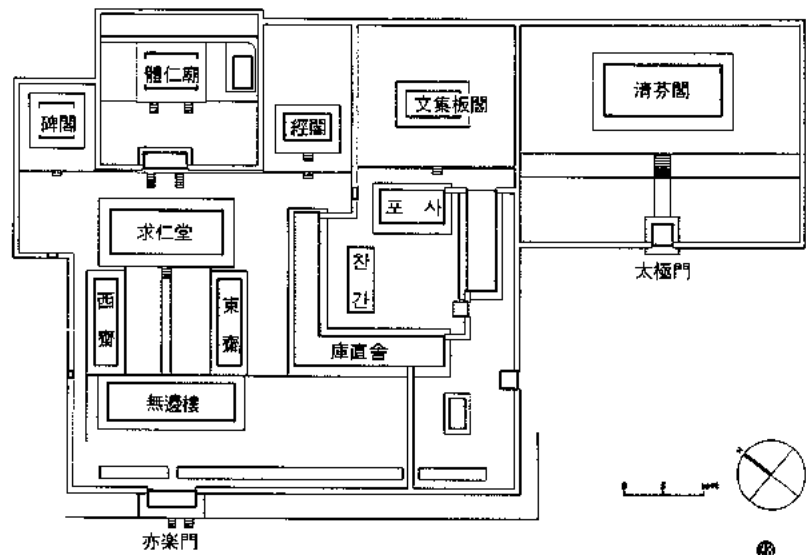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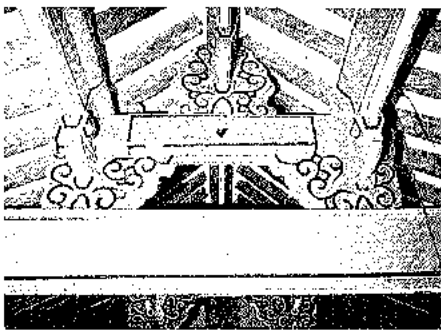
31



34



32



- ⑤ 玉山書院 전경
- ⑥ 敦仁堂
- ⑦ 架橋
- ⑧ 옥산서원 배치도
- ⑨ 無邊樓
- ⑩ 敏求齋
- ⑪ 經閣

위치한다. 이 서원은 조선초 경주府尹 李齊閔이 지방 유림의 뜻에 따라 晦齋 李彥迪의 遺墟에 사당을 짓고 이어서 東·西齋와 講堂 및 樓閣을 지어 1574년 선조의 賜額을 받아 사액서원이 되었다. 전체적인 배치는 西向을 하여 溪流를 끼고, 앞뒤의 동서쪽보다 左右의 남북쪽이 더 넓은 배치를 하고 있다. 삼문인 亦樂門을

들어서면 2층 樓閣인 無邊樓(5칸×2칸)가 있고 그 밑으로 통하여 강당인 求仁堂(5칸×2칸)이 양측 재실을 둔 內庭 뒤에 있고 그 뒤로 돌아가면 별채의 구역으로 담장에 둘러진 사당공간이 한 단 높이 놓이는데 앞에는 內三門을 두었다. 祠堂은(體仁廟라함) 다시 한 단 높여 내삼문을 향하고 그 남쪽에는 전사청이



35



36



37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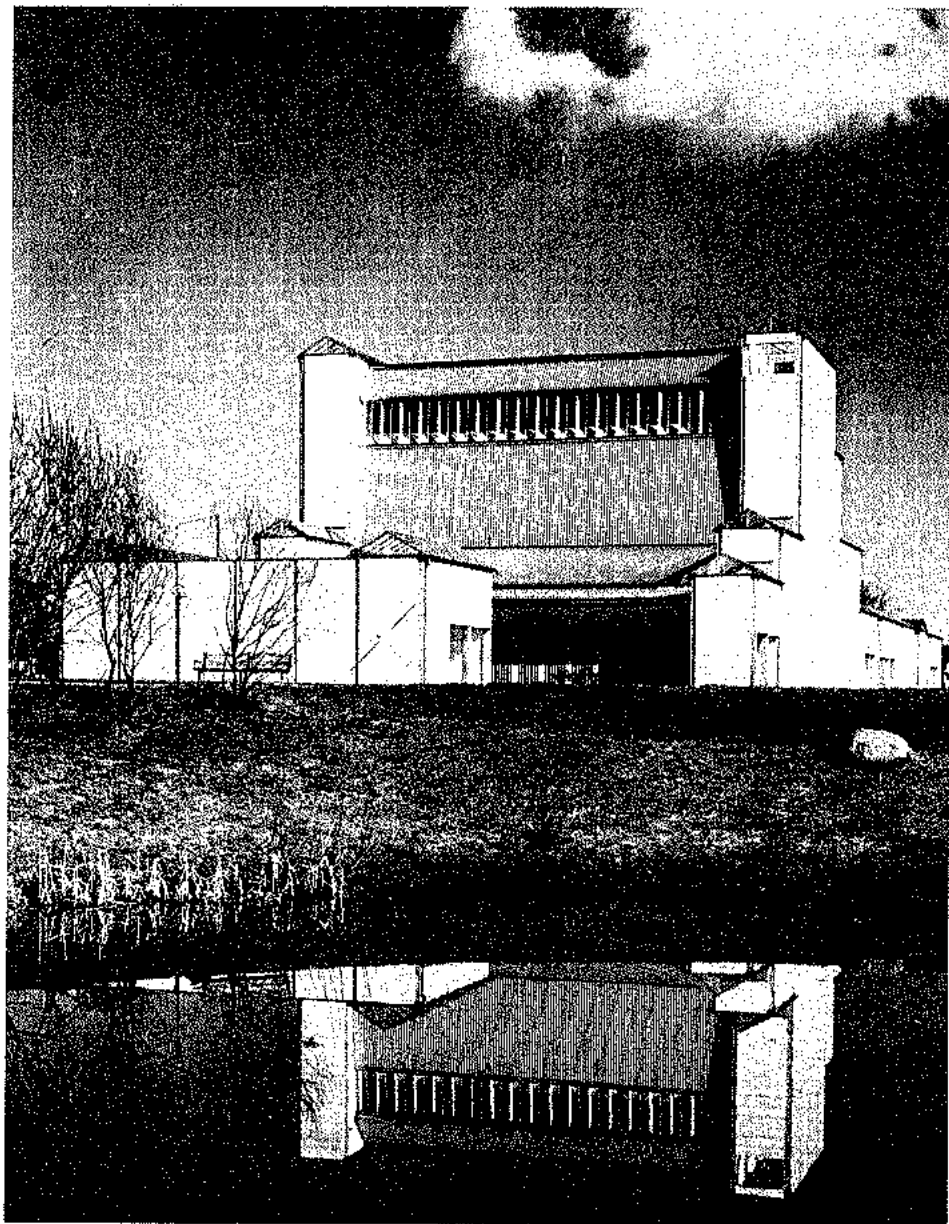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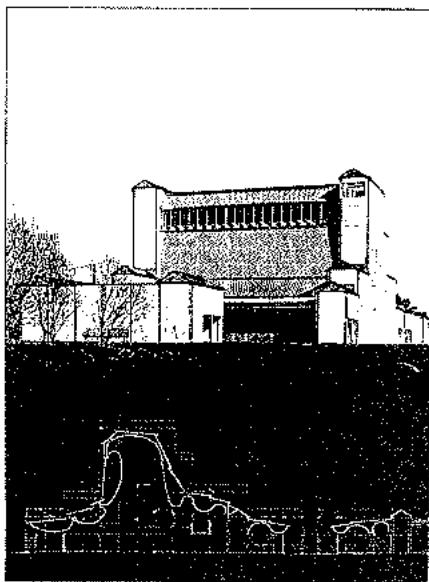
있다. 사당구역의 북쪽에는 비각이 있고
남쪽에는 經閣과 文集板閣이 있고 그 서쪽에
庫舍공간이 있다. 또 판각 남쪽에는
1972년에 세운 淸芬閣이 있어 경각과 板閣에
보관되어 있던 御書, 御筆, 先生手蹟,
退溪手筆 및 內賜本을 비롯한 많은 전적을
보관하였다."

註)

- 1) 金銀重, 朝鮮時代 書院建築에 관한 研究,
고려대학교대학원, 1984.
- 2) 李弘植, 國史大事典, 1978.
- 3) 장경호, 傳統建築의 內部레벨 변화에 의한
空間的效果, 月刊 플러스 8911.
- 4) 文化財管理局, 文化財大觀 史蹟篇, 1976.

Jørn Utzon의 Bagsvaerd 교회

Jørn Utzon's
Bagsvaerd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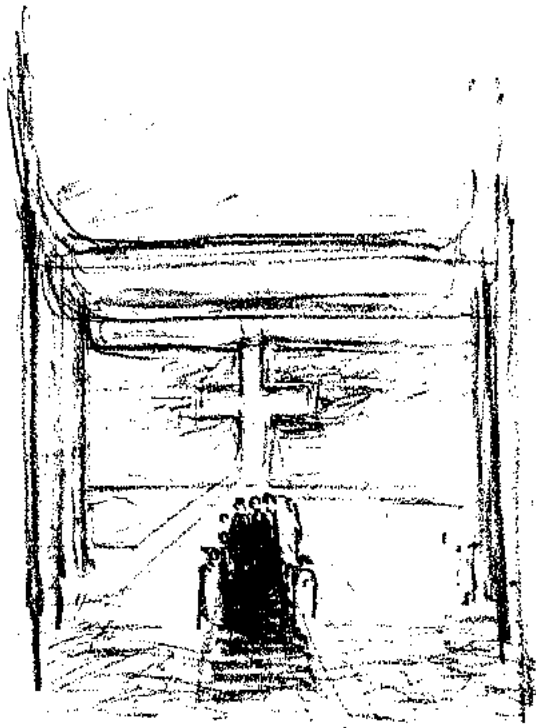
■ 序

핀란드의 알바알토(1898~1976), 스웨덴의 에릭 군나 아스프룬드(Erik Gunnar Asprund: 1885~1940)와 함께 북유럽의 건축을 국제화시키는데 기여한 덴마크의 요른 웃존(Jørn Utzon)은 1918년 코펜하겐에서 태어났고, 코펜하겐 왕립 예술 아카데미에서 S.E.라스문센(Steen Eiler Rasmunssen)에게 사사한다. 아스프룬드나 알토에게서도 일했고(1945년), 미국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나(1949년), 미스 반 데 로에와 접하였고, 많은 여행을 통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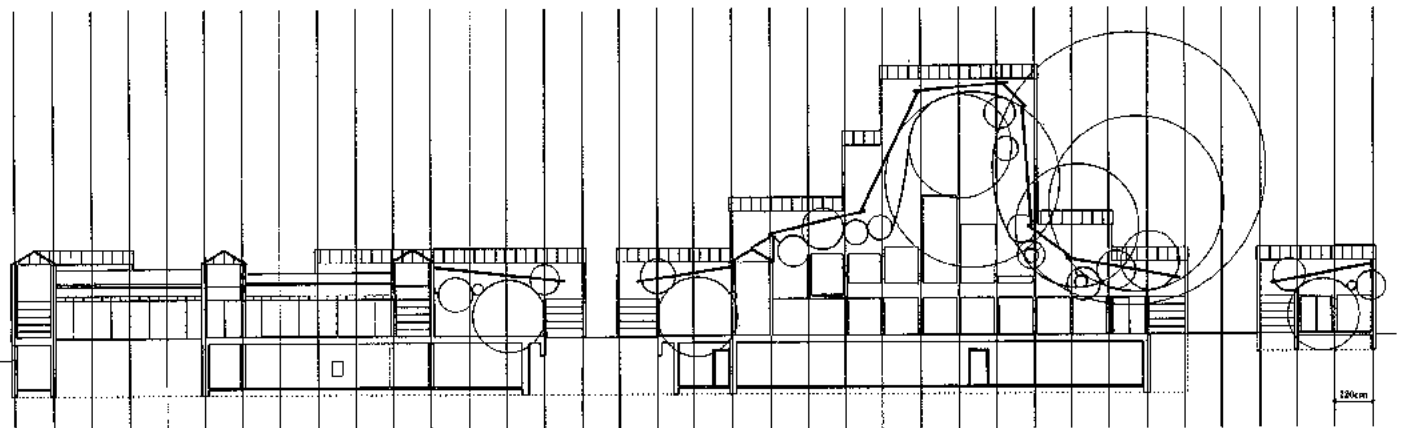
형성된 건축철학을 현상설계 경기에 반영시키게 되는데, 그와 덴마크 건축에 국제적 명성을 가져다 준 1956년의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국제현상경기 1등 당선에서 결실을 맺는다.

우리에게는 S.기디온의 '시간·공간·건축'이나 필립드류의 '건축의 제삼세대'에 기술되었듯이, 현대건축의 새로운 접근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세대의 건축가로서 그리고,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작가이며, 단지계획을 배울때 좋은 사례로 나열하게되는 '킹고 집합주택'의 배치도등을 떠올리게 한다.

朴賢燦/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프랜 설계실
by Park, Hyun-Chan



- ① 교회전경
- ② 웃존의 초기스케치
- ③ 기하학적 단면
220cm 모듈



3

그가 훌륭한 건축가들과 접촉할 기회를 가졌다거나 국제적 명성을 얻은 반면에,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감리 도중에 떠나야 했던 것과 웃존이 조국 덴마크에서 유일하게 완성한 공공건물이 박스베르드 소재의 교회뿐인 것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 이를 덴마크의 토비아스 파버(Tobias Faber) 교수는 '자기가 나라가 금세기 최고의 독창적이고 재능있는 덴마크 건축가를 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웃존의 전세대로 덴마크의 위대한 건축가였던 안 야콥슨(Arne Jacobson: 1902~1971)이 건축가가 건축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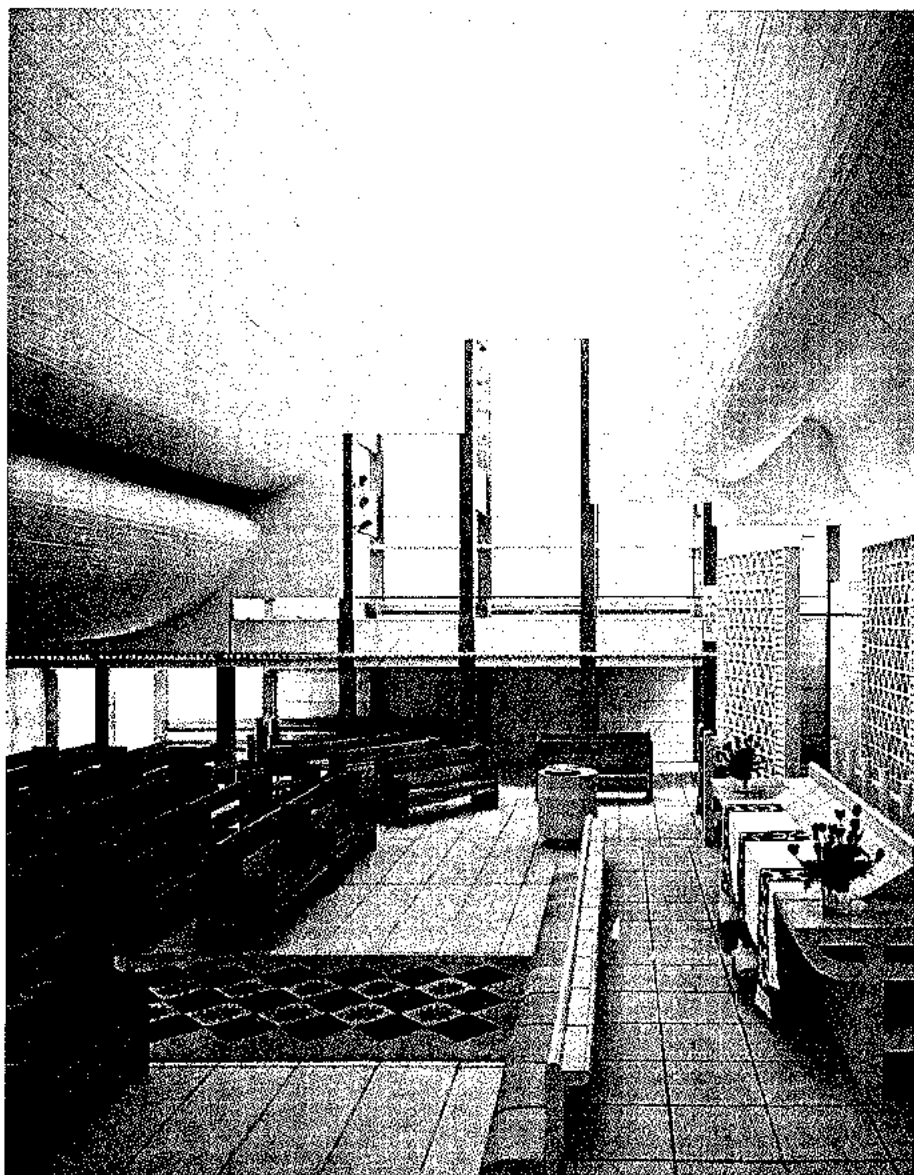
오토파로서 건축물의 전반적인 형성과정을 다룰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건축과 건축가 개인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에 존재하였다면, 요른 웃존은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며, 개인적 역량보다는 공동작업이 중요시되는 새로운 세대에 접어들면서 전세대 건축가와는 다르게 직능을 설정해야 했던 것 같다.

그의 주요작품으로는 '킹고 집합주택'(1959~60),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1957~67), '프리덴스보르의 테라스 하우스군'(1962~63), 64년에 '슈리히 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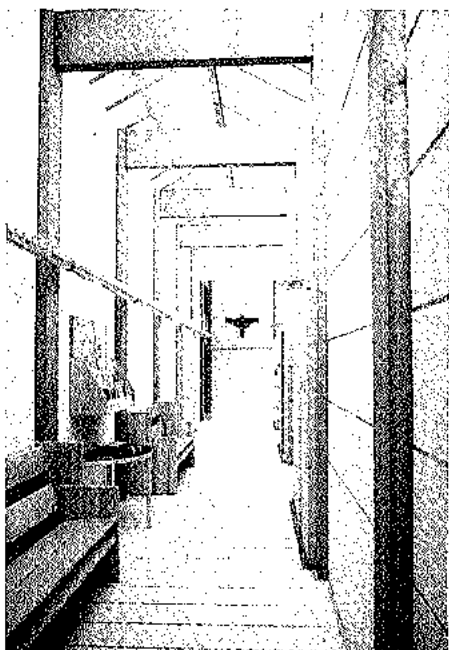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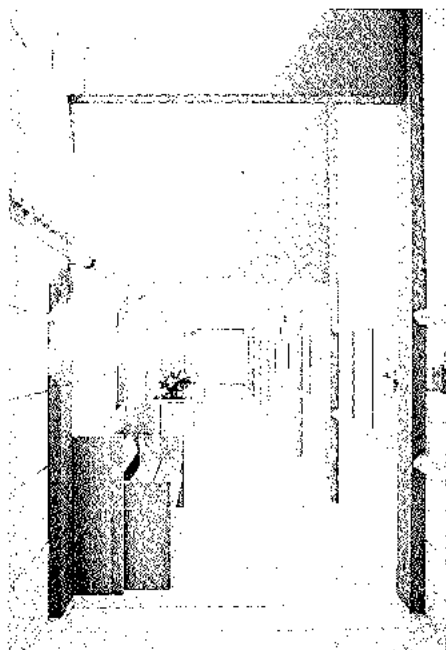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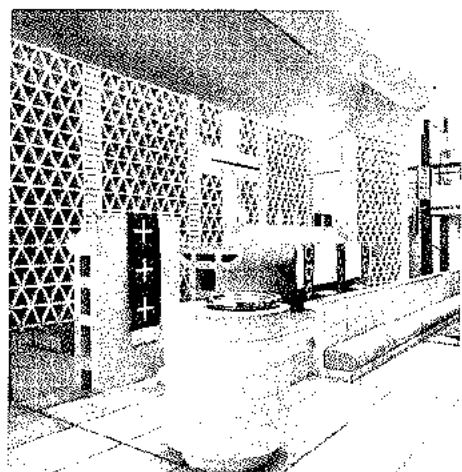
66년에 '헤닝의 학교군'과 '파름의 타운센타', 69년에 '메스판시바 주거유형개발', 69년에 '제다 스포츠 배치안' 1976년에 '루웨이트 정부청사', 그해 가을의 '박스베르드 교회' 그리고, 최근의 가구전시장인 '파우스틴' 등을 들 수 있다.

■ Bagsvaerd 소재 교회(1973~76)

덴마크의 코펜하겐 근처에 위치하는 교회로 도시와는 거리를 두고 있어, 도시에 대한 존경으로부터 건축을 보려는 입장에는 위배가 되나, 이 교회는 북구의 건축적



- ④ 내부전경
- ⑤⑥ 통로부분
- ⑦ 제단상세
- ⑧ 위로부터 배치도, 북측입면도, 단면도, 평면도, 남측입면도
- ⑨ 교회내부
파이프오르간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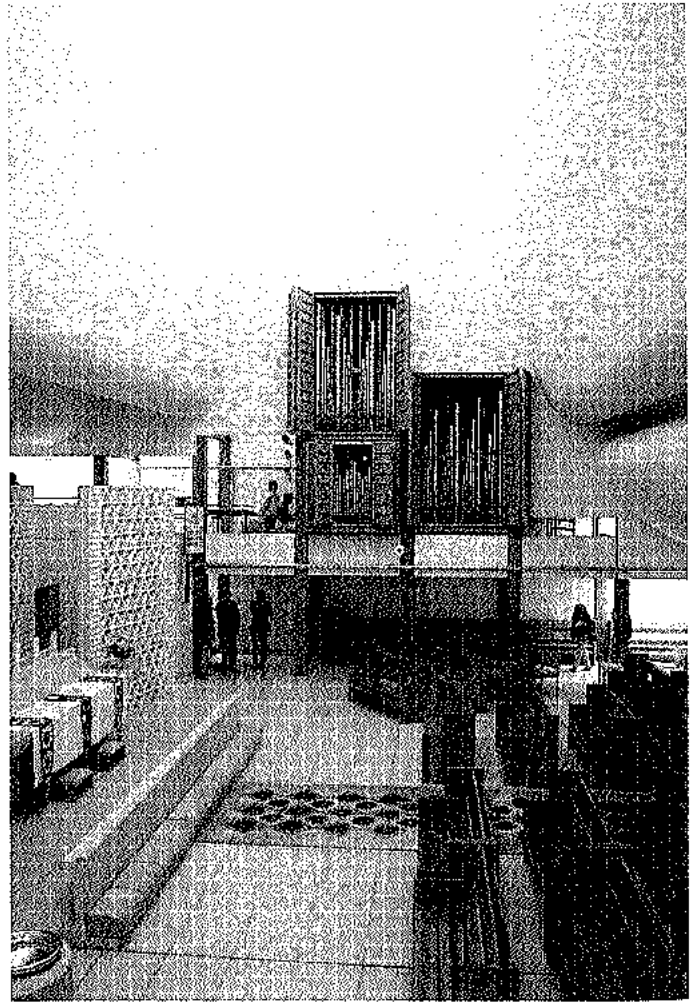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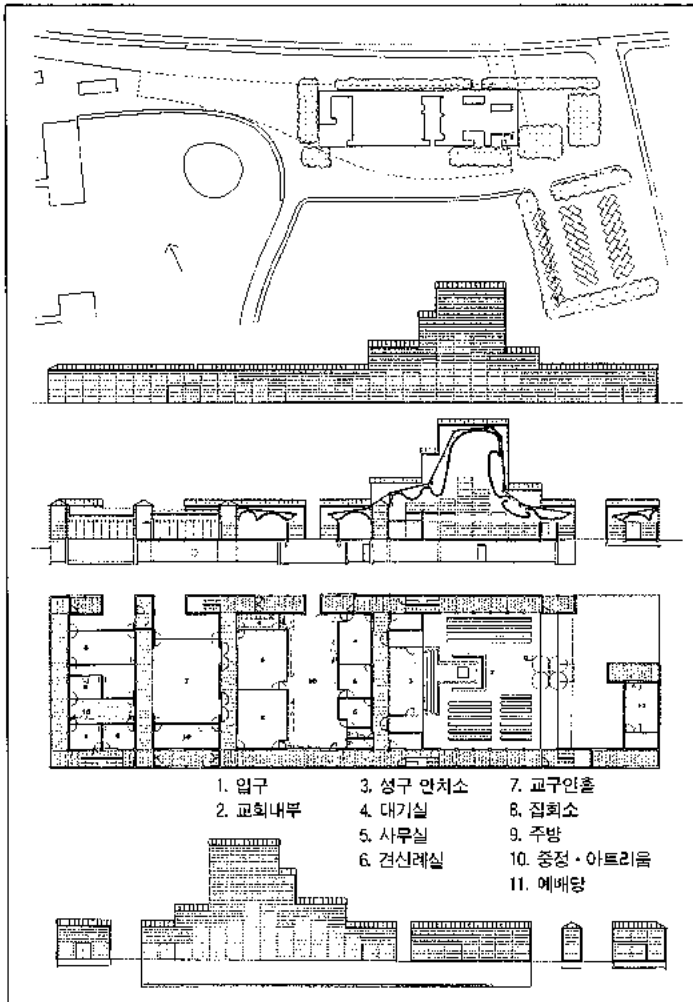
취향을 잘 표현하고 있고, 그 지역의 건축사적 전통 그리고, 그 지역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들을 재구성한 좋은 사례로 판단되며, 방금 지어진 것이 아니라 15년 정도의 시간경과를 통하여 건축가의 명성이나 그 건물에 대한 많은 비평들과 함께 그 건물의 가치가 상당히 명확해지고 있다.

물론, 이 교회 최고의 가치는 그 내부의 공간에 있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Bagsvaerd Kirke 의 외부인생은 창고나 공장같은 단순·평범한 정적인 분위기 그리고, 그와 대조를 이루는 내부의 예기치 못한 풍부한 분위기로 충만되어 상당한 건축공학적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

웃존의 초기스케치(사진2)에서 볼 수 있듯이,

대지-인간-바다(수평선)-하늘(구름)의 연결과 그 장대한 주제가 구체화된 내부공간의 구상을 표현하고 있다. 크리스찬



노베르크 슐츠(Christian Noberg-Schulz)는 이 두 스케치가 '웃존의 발생이 공간적 비전으로부터 출발하였으며, 인간의 기본적인 존재상황에 대한 건축적 내용—Imago Mundi—을 잘 보여준다'고 기술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대부분의 내부사진이 큰 감흥을 주는 천장의 곡면부분과 자연광의 흐름을 기억하기 위하여 작가가 의도한 스케치와는 다른 형적인 각도로 구도를 택하고 있다. (사진3, 4)

내부의 기능을 살펴보면, 교회이외에 크고 작은 4개의 '집회실'과 '교구인출', '건신례실', '사무실'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되어 있는 종교센터로 구성되어 있고(평면도 참조), 그러한 주기능들은 중앙에 형적으로 위치시키고 그 기능간은 중정과 통로를 이용하여 적절히 분리하면서 전체적으로 연결한 단순·명료한 평면을 하고 있다.

각 공간을 이동하면서, 느끼게 되는 에키지 못한 수많은 이미지—메시지—이야기와 전개가 가슴과 머리에 상당한 충격을 주면서 흡인한다. C.N. 슐츠가 주장한대로, 몇세기를 통하여 교회가 '의미있는 환경의 정합(整合)'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강한 이미지의 질'을 소유했기 때문이라 했듯이, 웃존이 이 교회에서 그러한 이미지의 질을 재형성하는데 성공한 것 같다.

본 건물은 웃존의 콘크리트에 대한 선호도와 공업화된 부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조합되었을때 풍부하고 변화있는 구성을 표출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 건물 전체가 상당히 연한 색조의 콘크리트로 시공되어, 큰 매스임에도 불구하고 가볍고 산뜻한 기분을 준다.

전반적으로 현장타설 콘크리트와 콘크리트 부재로 시공되었는데, 전면은 연한색의

콘크리트 부재와 일부는 유광의 자기타일로 조화를 이루며 구성되어 있고, 내부의 곡면부분 천장은 현장타설이며 그 위의 지붕은 끝진 알루미늄 판으로 덮였으며, 양 측면의 평행통로는 유리로 씌워져서 많은 빛이있는 매우 신뜻한 분위기와 풍부한 공간감을 통하여 동행시에 많은 즐거움을, 슐츠의 표현을 빌자면 평온하고 순수한 분위기를 창출해 주고있다. (사진5, 6) 그 종단의 통로는 콘크리트 기둥과 보 구조로 구축되어 프리캐스트 미색 부재로 상부에 끼워져 있는데, 이러한 수법은 코펜하겐의 북쪽 항구에 있는 웃존의 근자인 파우스틴(Paustien)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사진10, 11) 저층부의 바닥은 부드러운 표현을 위하여 철제 거푸집으로 성형된 미색 콘크리트 부재가 사용되어 상부로부터 유입되는 빛과도 좋은 조화를 이루고 있다. 교회의 제단은 큰 콘크리트 탁자로 뒷면의

- ⑩ 파우스틴 전경
- ⑪ 파우스틴 내부 Skylight
- ⑫ 파우스틴 내부 계단
- ⑬ 박스베드교회 내부 계단



스크린은 흰색 페인트를 한 블록으로 훌륭한 효과를 준다. 카펫과 계단의 천은 옷존의 딸인 섬유예술가 린 옷존(Linn Utzon)의 작품인데, 연한 파스텔 색조로 꽃의 모티브에서 형상화 된 것이다. 계단의 난간에도 세심한 자기타일이 기여하고 있다. (사진13-박스베드 교회의 내부계단, 사진12-파우스틴 내부계단)

미색의 콘크리트 부재들과 질감 및 색상에 있어서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든 목공은 소나무의 일종으로 파스한 분위기를 부여하며, 높은 수준의 공예술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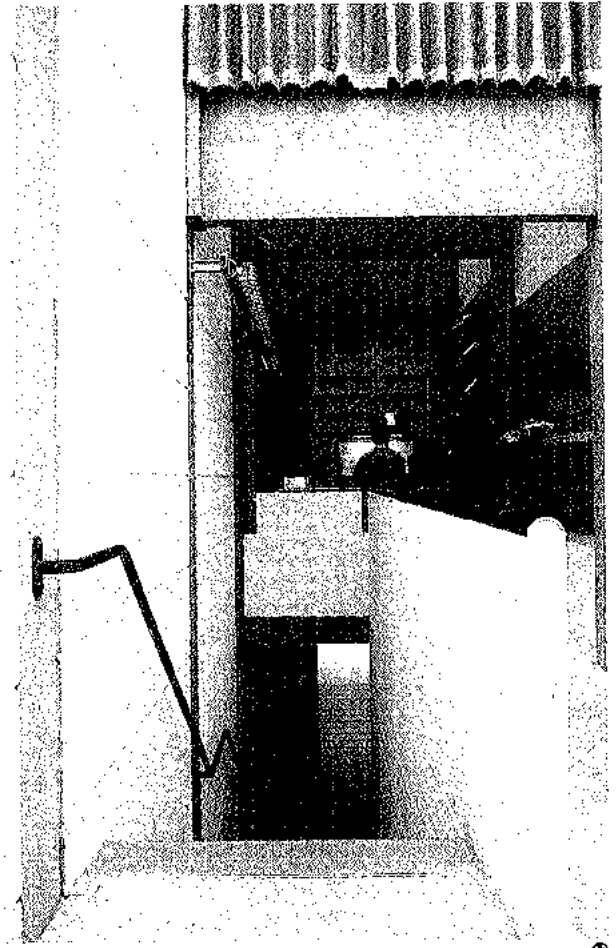
■ 結

우리가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지역주의 건축가들의 작업중 하나로서 옷존의 작품을 살펴 보았는데, 건축의 국제적 유행에 동참하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성이 강한 작품이 국제적으로도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매우 교훈적이다. 덴마크의 건축은 국제적 건축 경향의 영향하에 있으면서도, 그들의 독창성과 지역성을 보존하는데 뛰어난 것 같다. 덴마크의 건축가로 역시 왕립 아카데미 출신인 요한 오토 폰 스프레켈슨(Johan Otto Von Spreckelson: 1929~87)의 경우 프랑스 Paris-La Defense 의 La Grande Arche 국제 현상설계에서 당선되었고, 헨닝 라슨(Henning Larsen: 1925~)의 경우도 국내외적으로 성공한 예인데, 그들이 국제 현상경기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11



12



13

이유로는 국내에서 매년 크고 빈번한
현상설계경기가 있어, 그를 통하여 덴마크
건축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고,
경쟁력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문제점의
해결안을 내는 경험을 꾸준히 축적하기
때문이다.

우리도 국제적 측면과 지역적 측면,
현대적인 요소와 전통적 요소를 통합시키는
능력을 갖추고, 다양하고 공정한 현상설계
방법을 통해 우리건축의 질적수준의 향상과
국제적 관심을 충분히 유도할 수 있으리라
본다.

• 참고문헌

GA 61, Jørn Utzon, Church at Bagsvaerd,
1981

ARKITEKTUR DK nr. 3, 1982

A History of Danish Architecture, Tobias
Faber, 1978

Moderne Dansk Arkitektur, Arkitek, 1987

건축의 제삼세대, 필립드류저, 1972.

최무혁역, 1980

Modern Architecture in Europe, Dennis J. De
Witt and Elizabeth R. De Witt, 1987

La Grande ARCH' Chitecture Danoise, 1989

韓國傳統家屋의 再照明

Review of the
Traditional House



奉化의 黃田마을

■ 黃田마을 概觀

황전마을은 경북 봉화군 봉화읍 거촌리에 자리잡은 의성김씨들의 집성마을이다. 봉화는 옛부터 선비의 정신이 깃든 예절의 고장으로 안동문화권에 속해 유교문화가 일찍부터 뿌리내리면서 선조들의 숭고한 열이 역사의 맥락 속에서 연연히 이어져 오고있는 뿌리깊은 곳으로 많은 반촌을 형성하였고 이른바 名門閥族에 의해 형성된 반촌들은 동족마을로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황전마을은 우리나라의 동쪽을 감싸고 내리뻗은 영산 태백산이 힘차게 뻗어내려 봉화의 중심지에서 분수산을 이루고 여기서 다시 용트림하여 소태산을 놓고 용맥을 좌우로 휘어감아 자연의 명당을 연출해낸 곳이 이곳 황전마을이다.

주봉인 小太山을 등지고 남향으로 자리잡아 鶴飛峰과 九峰山이 좌청룡, 辛峰과 서산이 우백호가 되며 안산인 鶴駕山이 이 마을을 감싸고 있다. 꿈틀거리며 용이 날으는 것 같이 아홉 봉우리를 이루며 병풍처럼 이 마을을 감싼 구룡산에 삼태기처럼 학의 동지를 톤 것 같은 飛龍鶴巢形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이 마을은 남쪽어귀만 빼고 삼면이 말밭굽처럼 생긴 산줄기로 둘러싸여 있어 그 지세가 黃鶴이

내려앉은밭(黃鶴下田)같다고 해서 황전이라 불리기도 하며 또 옛날 이 마을 앞산에 황학이 떼를 지어 서식하였는데 이 황학들이 마을밭에 자주 내려와 장판을 이루었다는데서 누름밭 또는 황전이라고 불린다고도 전한다.

의성김씨들의 집성마을인 이곳은 원래 영양남씨들이 자자손손 문호를 지켜오던 고장이었으나 영양남씨들에 의성김씨들의 이곳 입향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의성김씨들의 이곳 입향조는 조선인조때 무과급제하여 訓練院 奉事를 지낸 松山 金欽(1554~1611)으로 그가 소년시절 노복을 데리고 매를 어깨에 얹혀 구룡산으로 핏사냥을 나갔는데 황전마을 어귀에 이르리 까투리 한마리가 날아 매를 날려 핏을 잡게 하였는데 매에 쫓긴 핏은 급히 황전마을의 큰 집 부엌으로 뛰어들었다.

마침 이집 부엌에서 일을 하던 艸수가 날아든 핏을 치마로 감싸 숨겨주어 무사히 위기를 넘겼는데 이때 핏이 날아든 집이 영양남씨의 종택이고 이 艸수가 남진사(南鎭壽)의 딸로 송산공이 이 艸수에게 청혼을 하여 안동 녹전 둔번으로부터 이곳 황전으로 옮겨 처가살이를 하였다.

그 이후 의성김씨들은 번성하여 이곳에

李王基
목원대학 건축학과 부교수
朴明德
동양공업전문대학 건축과 부교수
by Lee, Wang-Kee &
Park, Myoung-Duck



2

터를 잡았고 반년 영양남씨들은 이곳을 떠나
외지로 나갔는데 이후로 의성김씨들은
외손이 들어오면 본성이 망한다하여
지금까지 외손과 타성의 입주를 거의
허용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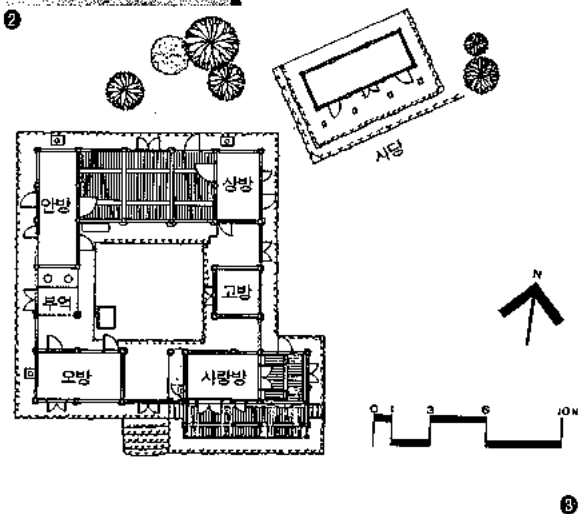
이와같은 인연으로 이곳 황전에 정착한
의성김씨들은 350여년을 世居해온 마을로
오늘에 이른다. 이곳은 의성김씨의 황전
종가를 비롯하여 추원세, 도암정과 이곳과
약간 떨어진 곳에 황과 김종걸을 추앙하기
위하여 지은 봉산이사당의 건축물이
현존하며 한창 번성기때에는 주변의
70여호를 합해 150여호가 모여산
대촌이었으나 지금은 70여호만 모여
살고있다.

1. 義城金氏 黃田宗宅

원래는 영양남씨의 종택이었으나
의성김씨의 이곳 입향조인 송산공이
장인으로부터 물려받아 지금은 의성김씨의
종택으로 내려오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ㄱ자형의 살림채와 살림채
우측의 사당채로 구성되어있으며 거의
남향배치를 하고 있다.

ㄱ자 살림채의 전면에 있는 대문을 지나면
곧바로 안채의 대청과 만나게 되며 대문채의
우측에 있는 사랑채는 4자가 넘는 높은
기단위에 정면3칸, 측면2칸의 홀처마
팔작지붕으로 2칸의 사랑방 우측으로 1칸의



3

마루방이 있으며 사랑방과 마루방의
전면으로는 퇴를 두고 머슴청판을 두른
난간을 설치하였으며 사랑방 위에는 𪛗
嚴軒이란 현판이 달려있다.

이 전퇴는 문앞으로 3자되는 곳에 3개의
방주를 세웠는데 가운데 기둥의 간사이가
퇴간의 간사이보다 훨씬 좁게 되어 있으며
이곳으로부터 전면으로 2자반을 돌출하여
퇴가 구성되어 있는데 기능이나 면적으로 볼
때 퇴라기보다는 마루의 기능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랑방과 마루방이
만나는 부분과 마루방과 전면의 퇴가 만나는
곳은 들어 열개를 날았다. 사랑방
좌측으로는 모서리방의 준말인 모방으로
불리는 2칸의 방이 있는데 이곳은 원래
마굿간으로 쓰던 곳이었었는데 지금은 중손의

① 황전마을 전경

태백산의 줄기인 소태산을 등지고 학가산을
안산으로 남향하고 있으며 웅의 형태를 한
구봉산이 이 마을을 감싸는 형국인 飛龍鶴巢形을
하고 있다.

② 황전 의성김씨 종가

원래는 영양남씨의 터였으나 이곳의 입향조가
처가인 이곳에 자리 잡은 이후 의성김씨들의
집성마을이 되었다.

③ 배치 및 평면도

아랫대가 거처로 쓰고 있으며 앞의
사랑채와는 높이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두었다.

안채는 전면3칸, 측면2칸의 대청을
중심으로 우측으로는 상방이 좌측으로는
안방이 있는데 안방위로는 도장방을
두었으며 아래로는 부엌과 연결되어 있다.

우측의 상방아래로는 1칸의 고방을 두고
사랑채와 만나는 부분은 빈공간으로 그냥
두었는데 지금은 농기구등을 두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처음부터 이곳이 아무 용도
없는 빈공간이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다.

안채로의 출입은 전면의 대문과 안방의
부엌으로 통하는 서향문, 상방아래의
동향문을 통해 출입토록 되어있다.

원래는 안채 대청 위에는 까치구멍이



있었다고 전하나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까치구멍은 안동지방을 중심으로한 그 일대에서 볼 수 있는 형식으로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작은 안마당이고 마루를 중심으로 그 양옆으로 방이 배치되는 형태인데 까치구멍집의 평면규모가 확대되어 안마당을 확대시키면 ㄷ자집이 되어 ㄷ자집의 원초형 주거가 바로 까치구멍집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마을 중앙 상부 계면부에 자리잡고 있다.

2. 陶巖亭

이 정자는 황전마을 입구에 자리잡고 있으며 이곳 입향조의 손자인 黃坡 金宗傑(1628-1708)의 유역을 기리기 위해 건립했다. 정자 오른쪽에 三臺巖이라 불리는 큰 바위 세개가 있다하여 陶巖이라 하고 정자전면으로는 큰 연당을 끼고 있다.

원래 이 연당은 이 마을의 화재를 막는 비보의 기능으로 축조된 것으로 이곳에 입향한 송산공이 입향이후 매년 큰 재앙이 끊이지 않아 고민하던중 마침 이곳을 지나던 스님이 이곳을 보고 이곳의 안산인 학가산이 火山이고 이곳이 누른밭이니 土, 김씨이니 金하여 火, 土, 金은 갖추었으나, 水, 木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겨 이곳에 연못을 파고 동구 밖에 수림을 조성하여 화산인 학가산의 불꽃을 이곳에서 볼 수 없게끔 막아주었다고 한다.

이 정자는 전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으로 가운데1칸의 마루를 두고 그 양쪽으로 방을 둔 단층한 구성을 하고 있다.

온돌방 전면으로는 계자난간을 두른 1칸의 누마루를 두어 앞의 연당과 자연스러운 조화를 꾀하였으며 온돌방의 양측면으로는 측퇴를 두어 출입통로공간으로 쓰고 있다.

정자 앞에 있는 연당가에는 노송을 심었으며 연못 가운데에도 인공섬인 당주를 만들어 소나무를 심었는데 휘늘어진 노송과 연꽃이 만발한 연당, 그리고 그 위에 아담하게 서있는 정자가 함께 하나의 산수화를 연출해내고 있다. 좌측 온돌방 위에는 鳶飛魚躍이라는 현판이 걸려있는데 다른곳에도 많이 볼 수 있는 문구이나 이곳에서는 더욱 실감나게 느낄 수 있다.



- ④ 종가측면
- ⑤ 황전 의성김씨 종가 사당
- ⑥ 안채에서 바라본 부엌과 모방
원래는 마굿간이었으나
지금은 모방으로 쓰고
있으며 안채출입구인
동향문이 보인다.



도암정은 이 마을로의 진입어귀에 자리잡고 있어 이 마을전체를 상징하는 건축물이며 외부인들에게는 하나의 랜드마크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도암정에는 이런詩가 전한다.

老作靑山主 盤旋石一丘

松疎風乍過 塘靜月遲留

늙어 청산의 주인이 되어서 돌 한언덕에 두루하네

소나무 서끄러 바람이 잠깐 지나고 못이

고요하니 달이 더디게 머무노라

約會蘭亭楔行吟桂樹秋

西橋長不斷 來者續茲遊

난정계에 모임을 언약했으며 계수가에올
행해 올었다

다리가 길어 끊어지지 않아 오는자가 이
놀음을 이을 것이다

(原韻)

名區開勝會 鑿沼映層丘

尊凸賢人滿 臺平好客留

이름난터에 좋은 모임을 열어 못을 파니
층언덕에 비치노라

단지가 뽕족하여 어진사람 가득하고 대가

평평하니 좋은 손이 머무른다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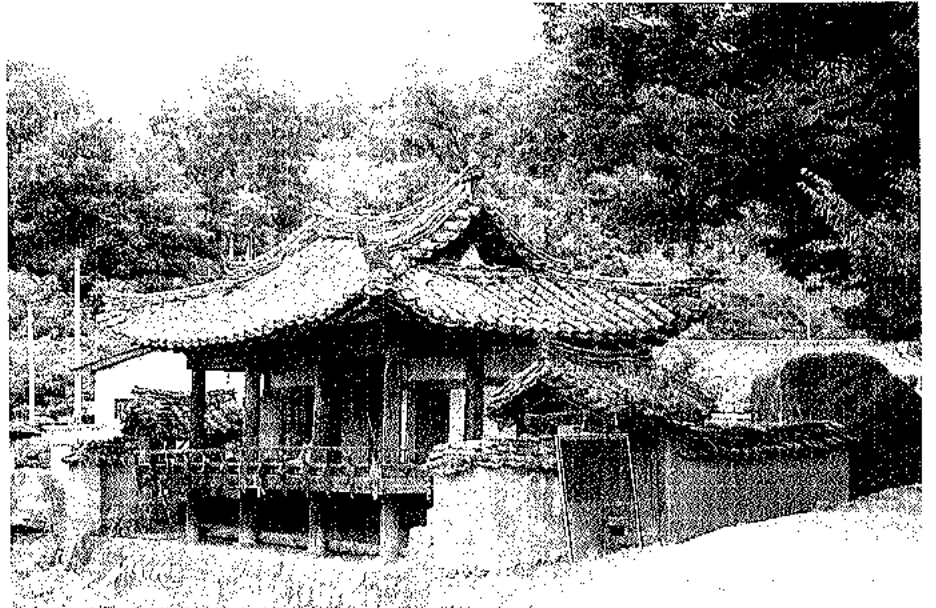
黃雲圍四野 白露近中秋

鶴髮知難老 相期歲歲遊

누른구름은 네 들을 둘렀으며 흰 이슬은
중추에 가깝구나

알거니 학털이 늙기어려우니 서로 해마다
놀기를 기약하게나

(蒼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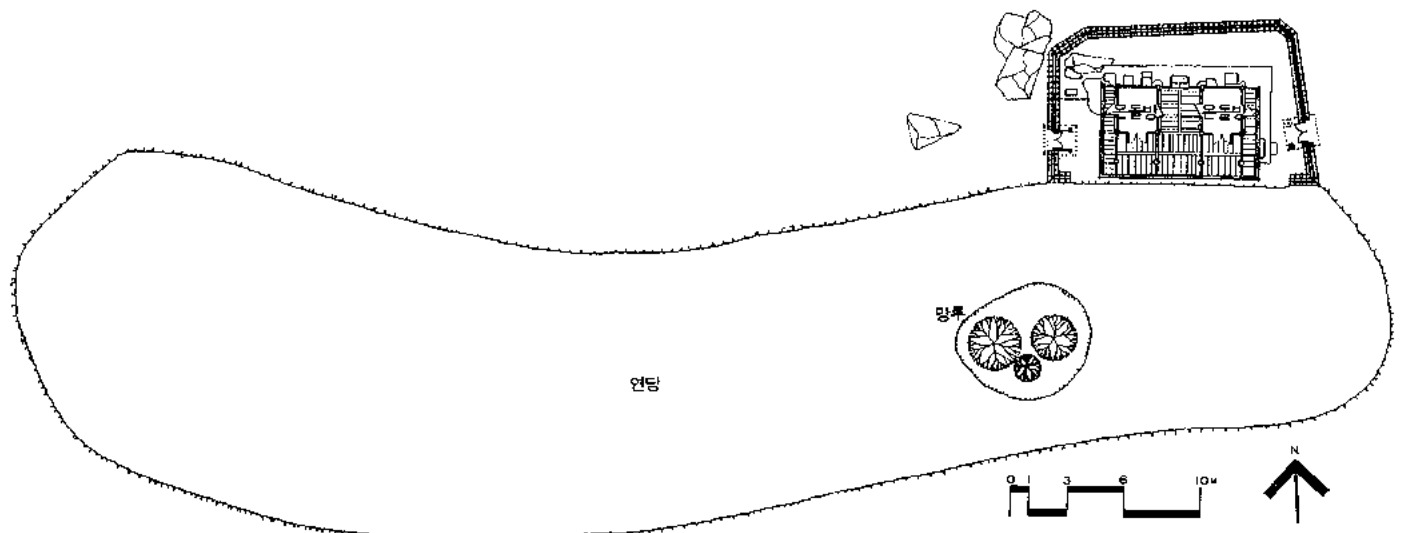
⑦ 도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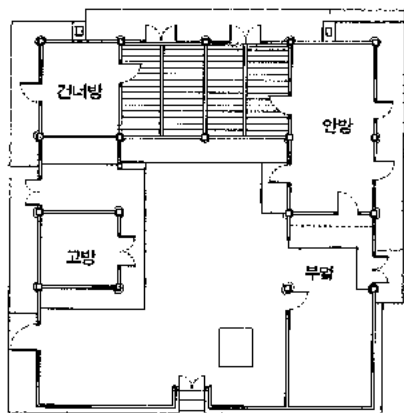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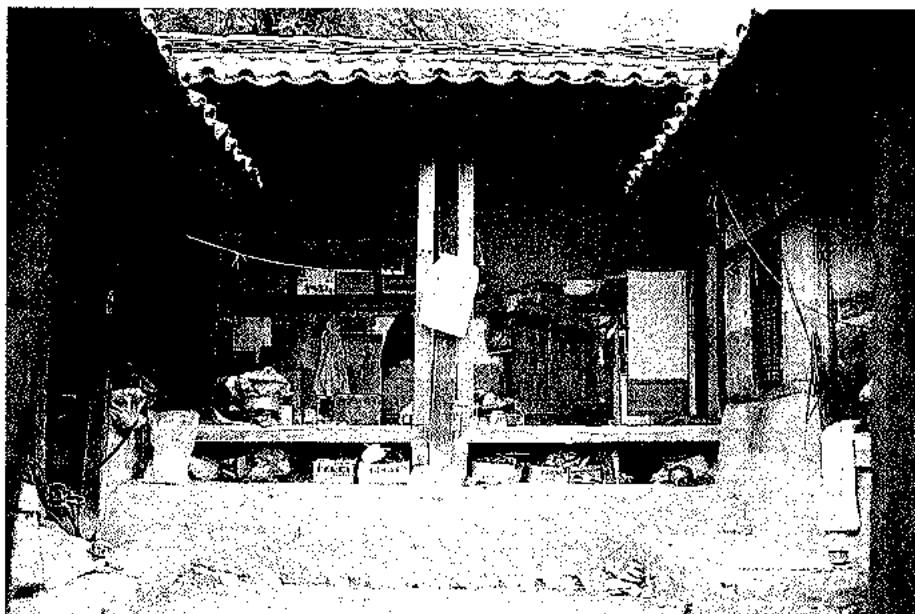
이 마을로의 진입부분에 자리잡고 있어 이 마을의 상징적 기능과 함께 랜드마크적인 역할도 하고 있다.

⑧ 도암정

입향조의 손자가 건립한 정자이다. 정자앞으로는 연당이 있는데 이는 이 마을 앞의 풍수형국이 불을 상징하고 있어 그 비보의 기능으로 연못을 만들었다.

⑨ 배치 및 평면도





- ⑩ 후원제
입향조의 증조인 목계공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지은 것으로 지금은 제사로 쓰고 있다.
- ⑪ 배치및 평면도
- ⑫ 김동대씨 가족 사랑채
- ⑬ 배치및 평면도
- ⑭ 안채

3. 追遠齋

이곳은 입향조의 증조 默齋 金永權(1438~1508)의 학덕과 유행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것으로 목재는 참봉을 지냈으며 안동향약과 천성향약을 만들어 인근 사람의 추앙을 받은 학자로 지금은齊舍로 쓰이고 있다.

종가의 좌측에 자리잡고 있으며 원래의 ㄷ자형 건물에 전면으로 대문채를 신축하여 ㄷ자형태를 하고있다.

이런 ㄷ자집이나 ㄷ자집의 경우 건물의

일부분은 남향을 할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각 방향을 모두 향하게 된다. 즉 사랑채와 안채의 대청은 남향하게 되면 안방과 부엌은 동향하게 되는데 이는 그 집의 가장 어른의 거처인 사랑채가 가장 유리한 방향인 남향을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안대청도 제사, 가족의 식사장소, 음식을 준비하는 장소로 그리고 일반적인 부녀자들의 작업공간으로 쓰이는 다기능 공간으로 남향을 택했다. 그러나 안방이나 부엌이 동향한다는 의미는 새벽의 첫 햇살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고 하루를 가장 먼저 여는 곳이 바로 이 공간이었을 것이다.

2자반의 막돌 허튼층 기단의 3랑 남도리집으로 2칸 대청을 가운데로 두고 양옆으로 2칸방과 1칸방이 있는데 그 앞쪽으로는 부엌과 고방이 있는 간결한 평면구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청부분은 옆의 익랑채보다 높이를 높게 조영하여서 대청 좌측에 있는 방의 상부와 위의 지붕면을 그대로 노출하여 대들보와 서까래가 만나는 강한 구조미와 합각면에 뚫어놓은 통풍구를 대청에서 볼 수 있다.

4. 金東大氏 家屋

종가의 우측에 위치한 가옥으로 ㄷ자형의 안채와 ㄱ자형의 사랑채가 합해 ㄷ자 날개집의 배치구조를 보이고 있다.

3칸의 사랑채는 큰사랑과 작은 사랑이 연이어져 있으며 작은 사랑 옆으로는 사분합이 달린 대청이 그리고 이 방들의 앞으로는 퇴가 있다. 전퇴앞으로는 난간을 둘렀는데 큰 사랑앞으로의 좁은 퇴에는 난간에 돌란대 탄을 두른 간결한 원초적인 형태의 난간구조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작은 사랑과 대청의 전면에는 난간밑으로 통혈을 뚫은 청판을 두른 난간을 설치하고 있다. 이는 같은 난간이라고 해도 난간의 기능에 따라 그 의장에 차이를 두고 만든 경우로 큰 사랑앞의 퇴는 외부나 안채에서 드나들때 쓰이는 단지 출입을 위한 통로 기능을 하는 기능일 뿐이고 작은 사랑과 대청 전면의 퇴는 휴식과 조망을 위한 공간임을 배려하여 이런 의도적인 차등을 주었으리라 생각된다.

사랑채열 대문을 지나 만나는 안채는 2칸 대청을 사이에 두고 안방과 상방이 양옆으로 배치되어 있다. 2칸의 안방 위로는 도장방을



16

두어 생필품을 두는 수납공간을 설치하였는데 이 공간으로 인하여 안방이 이 부분만큼 아래로 밀려 대청과 변하지 않게 되었고 직접 뜰쪽으로 나올 수 있는 문이 있는데 이는 동선상의 편리함과 아울러 측면채광과 통풍등의 복합적인 의도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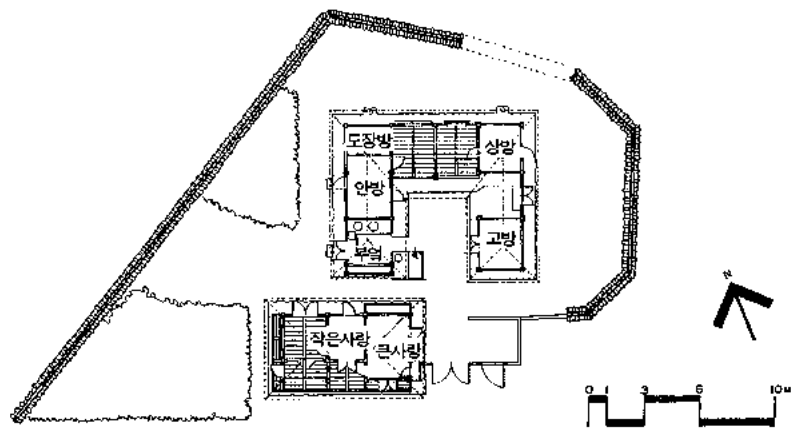
상방 아래로는 이방의 난방을 위한 공간과 고방이 있으며 이곳과 앞의 부엌을 통해 안으로 출입할 수 있는 별도의 중문이 있다.

그리고 사랑대청뒤에도 문을 달아 이집의 측면 모퉁이를 지나 안방으로 직접 출입할 수 있어 옛날 이집 사랑주인의 야간통로로 쓰인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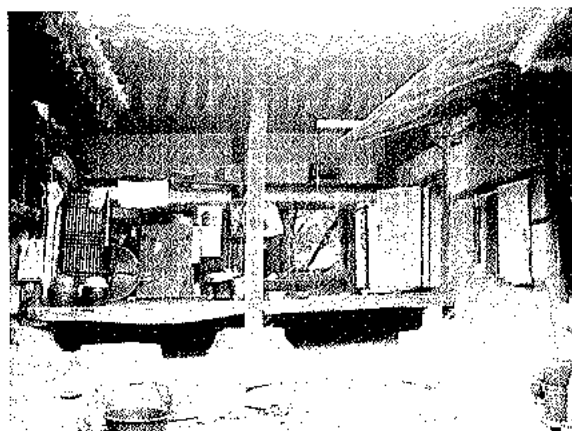
이집은 이 고장과 안동지방 일대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반가 형태이기는 하나 사랑채만은 전체적인 전형에서 약간 벗어난 이 동네의 주 통로를 향해 대청이 돌출된 형태를 취하고 있는 반가로서의 상징성과 사용상의 실용성을 동시에 추구한 가옥구조 형태를 보이고 있다.

5. 鳳山里社

입향조의 손자인 황파 김충건의 효행과



17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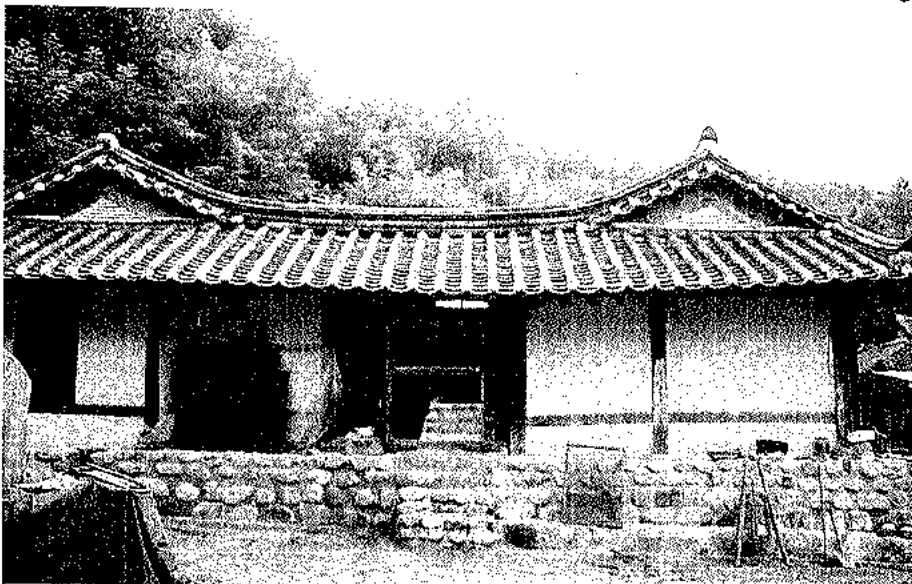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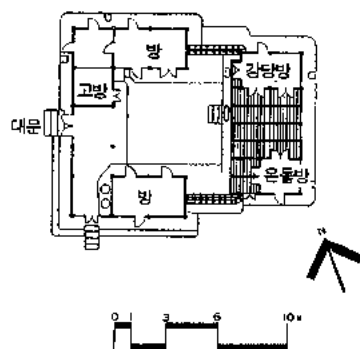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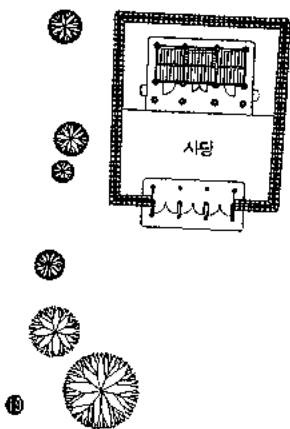
11



12



13



학덕을 기리기 위해 1796년(정조 17년 계축)에 건립하여 위패를 봉안 제향해 오다가 고종5년(1868)에 훼손된 후 1925년 을축년부터 다시 춘추제향을 봉행하고 있다. 또 의성김씨 문종이 후학들의 수학을 위하여 건립한 황전학당이 개화와 더불어 필요없게 되자 이곳으로 옮겨 봉산서당이라 개칭하여 같이 모셔두고 있는데 봉산서당인 강당부분과 향사기능을 가진 覽德祠가 약간의 거리를 두고 직각으로 배치되어 있다. 봉산서당은 2칸 대청 양옆으로 방이 있는데 여기서는 아방을 강당방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그 앞으로는 숙사에 해당하는 2개의 방이 그리고 대문칸에는 고방을 배치하여 전체적으로 ㄇ자 배치구조를 하고 있다.

강당부분은 전면의 숙사부분의 간결한 입면구성과는 달리 80cm의 원주를 사용했으며 3자 정도의 기단위에 남도리를 쓴 5량집 팔작지붕으로 마루의 높이도 80cm나 된다.

이집은 전체적인 배치를 ㄇ자로 맞추기 위해 강당부분과 숙사부분이 만나는 부분의 약 10자 정도는 그냥 담만쌓은 빈공간으로 두면서 전체적인 패턴을 맞추고 있다.

일반적인 향사기능을 갖는 대성전을 두고 교육기능인 명륜당과 숙사인 동재, 서재를 갖춘 향교나 서원의 정형에서 향사기능과 강학기능이 분리되고 산지의 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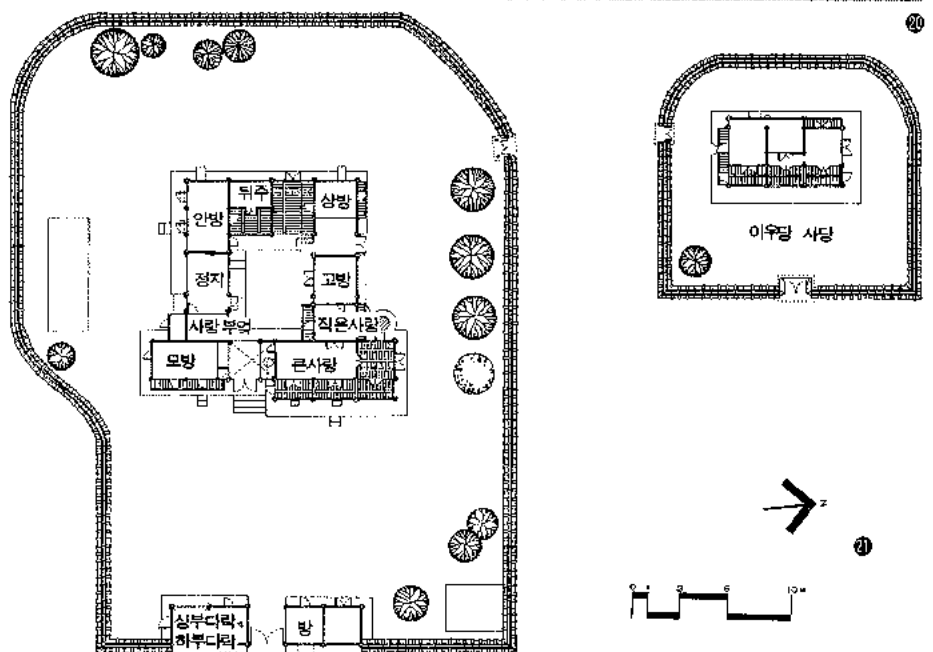
대지형태에 맞춰 축소된 배치형태를 보이고 있다.

6. 二于堂 宗家

이집은 행정구역상 황전에 있기는 하나 외성김씨들의 세거지와는 약간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光山金氏 이우당 종가이다.

이집은 살림채인 본채와 대문채 그리고 이우당선생의 사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동향배치를 하고 있다. 5칸의 소슬대문을 한 대문채를 지나 만나는 사랑채는 가운데 중문을 중심으로 우측으로는 큰 사랑이 그리고 좌측으로는 모방이 배치되어 있는데 평면상으로는 연결된 하나의 채로 보이나 입면상으로 볼 때는 사랑채는 팔작지붕을 하고 있고 옆의 중문과 모방은 안채의 익랑채서 연결된 지붕의 합각면을 마주하고 있다. 따라서 정면에서 보는 입면모습은 정면과 측면이 동시에 보이면서 연결과 분절의 느낌을 주고 있다.

사랑채는 정면3칸 측면1칸으로 3자의 막돌허튼층 기단위에 20cm의 방주를 사용했으며 기둥머리는 외부로는 보머리를



⑮ 봉산이사 원경

⑯ 봉산이사 전경

입향조의 손자인 황피 김종걸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것으로 대원군때 훼손당한 후 지금은 춘추제향의 기능을 하고 있다.

⑰ 측면

⑱ 대청

문중에서 후세의 강화를 위해 지은 봉산서당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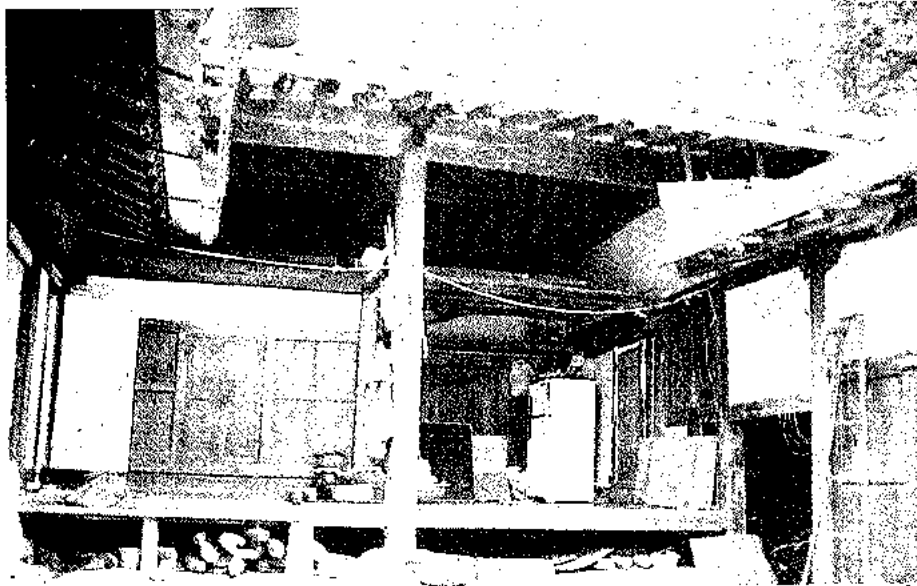
이곳으로 옮겼는데 지금은 향사기능만을 담당하고 있다.

⑲ 배치및 평면도

⑳ 이우당 종가 전경

같은 황전마을에 있으나 외성김씨마을과는 약간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동향을 하고 있다.

㉑ 배치및 평면도



㉑ **사랑채**
사랑채와 옆의 모방채가 평면상으로 보서는 연결된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입면상으로 보서는 별동이 분리된 느낌을 준다.

㉒ **안채**
안대청에 뒤주를 두었다.
이는 산간에 위치한 주택이나 인가와 떨어진 곳에 위치한 건물에서 곡식의 중요성 때문에 대청에다 뒤주를 두었다.

㉓ **이우당 종가 사당**

수직으로 자르고 안쪽으로는 초각된 보아지를 쓰고 있다. 2칸의 사랑방과 1칸의 대청으로 그리고 그 앞쪽으로는 반칸의 전퇴를 내달았는데 대청부분은 사분합문을 달아 대청과 방의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사랑방과 대청이 만나는 부분과 대청전면으로는 들여열개를 달았다.

큰 사랑뒤로는 아랫대의 거처인 작은 사랑상을 두었는데 이방의 전후로 퇴를 두어 안채로 향할 수 있는 실용성과 뒤의 분합문을

열었을 때는 이집의 사당채를 향한 즉 이집의 측면부를 향하는 별도의 조망을 배려하였다.

이집의 안채는 2칸의 대청을 사이에 두고 안방과 상방을 두고 안방맡으로는 부엌을 그리고 상방맡으로는 고방을 둔 형식이 그 지방의 반가서 볼 수 있는 가옥구조와 흡사한 배치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집에서는 안대청 안방쪽으로 쌀 뒤주를 둔 특이한 구성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배치는 대개 집이 위치한 곳이 일반 인가와 멀리 떨어진 외딴곳이라든지 또는 깊은 산지에 집을 지을때 그곳의 형편상 곡식의 중요성이 특히 강하게 필요로 하는 곳에서 볼 수 있는 형식인데 이집도 이러한 이유때문에 이런 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집의 우측 상단뒤쪽에는 이우당 선생을 모신 3칸의 사당이 자리잡고 있다.

메소포타미아

건축 순례(4)

—환상의 성 UKHHLDEHER—

Tour of Mesopotamia
Architecture



1. UKALDHER —세계에서 가장 흥미있고 유니크한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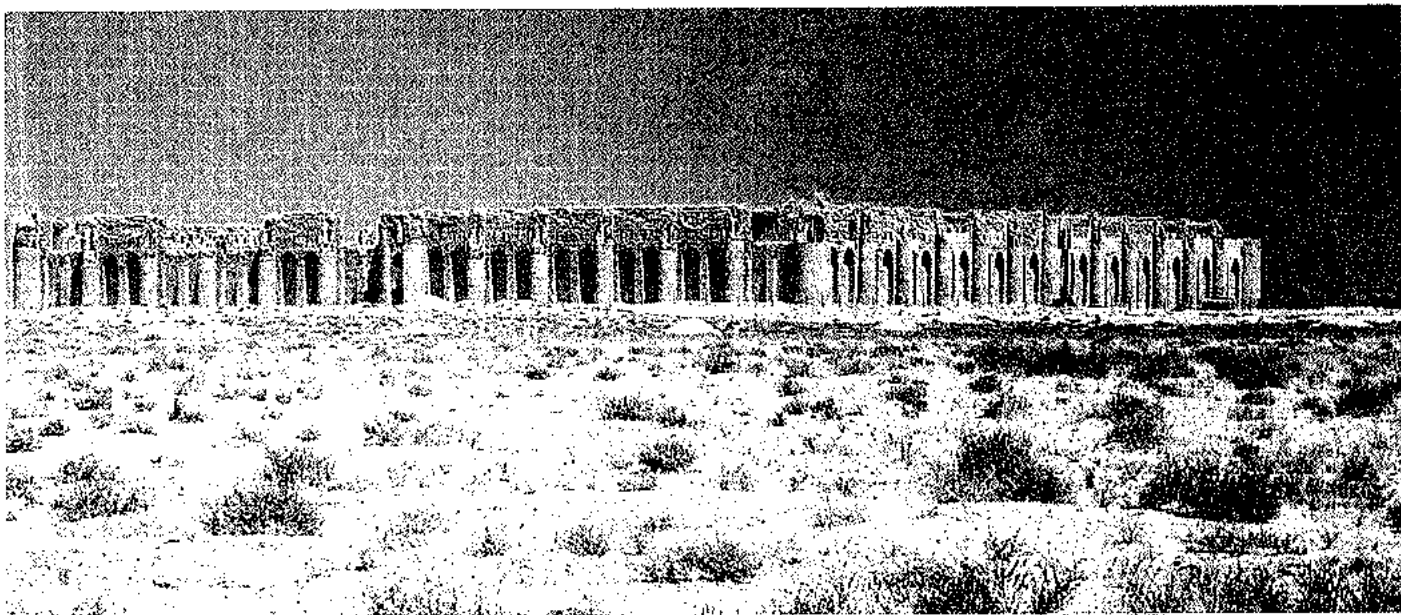
우케이도(Ukaidher)는 거대하게 요새화된 城으로 둘러싸인 왕궁으로서 이슬람 초기의 가장 큰, 기념비적이며 상징적인 궁성 건축물이다.

이곳의 위치는 현재의 바그다드 남쪽에 있는 古都 Karbala 시에서도 남서쪽으로 50km 떨어진 위치에 자리잡고 있는데, 주위는 사막으로 건조한 사막으로, 관개로 물을 인위적으로 끌어야만 1년에 한 번 정도 영농을 할 수 있는 불모지나 다름없는

황야인, 광대한 자평선의 사막 한가운데 동떨어져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약조건의 환경과는 대조적으로 거대한 성곽은 요새화 되었으며 내부의 공간은 각종 용도의 기능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아기자기하게 만든 멋진 공간을 형성하고 있어 매우 인상적인 궁성이었다.

외부의 성곽은 거대한 사각형(out enclosed)으로 그 둘레는 175.8×163.6m이며 높이는 21m로 거대한 규모이다. 이중구조의 성곽은 내부성곽은 내부 건물의 외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둘레는 112×82m의 크기이다.

裴元泰/構美건축연구소 소장
by Bae, Won-Tae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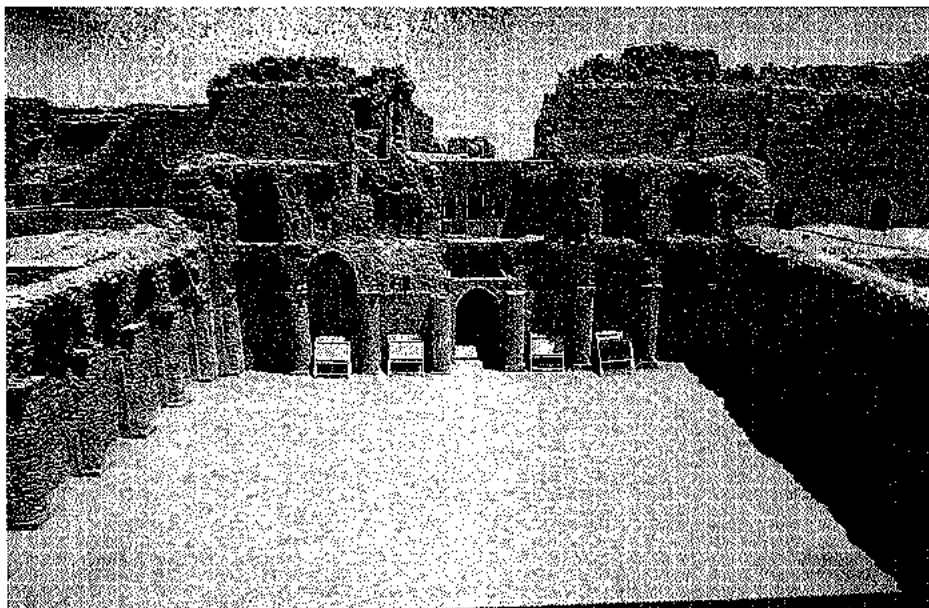
이 성은 Second Abbasid Calif Abu Jaifer al Mansour 왕때 건립(AD 764혹은 AD 778년)된 것으로 성곽의 둘레에는 48개의 탑 즉 방어용 성탑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

원래의 성 정문은 북쪽이었는데 지금은 남쪽문을 주출입구로 쓰고 있다. 남쪽의 정문을 들어서면 큰 공간의 홀에 들어서게 되는데 이 홀은 2개층 이상이 오른된 높고 큰 공간으로 그 구조체가 흙으로만 축조되어 있는 점이 놀라웠다. 이렇게 큰 구조체가 흙과 흙벽돌로만 축조되어 있음을 내·외부에서 그대로 엿볼 수 있다. AD 756년경 당시에 흙으로만 이렇게 높고 큰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이 마치 흙이 하늘에 매달린 천장처럼 보인다. 흙벽돌로만 Barrel Vault 구조를 축조하여 1천2백여년을 견디어 온 것에 경탄을 금할 수 없었다. 1천2백여년전 흙으로 만든 큰 홀로 들어선 것이다.

성곽 내부의 건물은 단층, 2층 혹은 3층으로 된 흙으로 만든 건물이다. 그 당시 흙으로 만든 조적조 3층 건물이 지어졌다는 것도 특기할 만하다. 큰 홀을 지나면 양측에 긴 복도가 Vault 구조의 골목으로 되어 있으며 이 복도를 횡단하여 빠져 나오면 증정이 나타난다.

성곽의 내부도 2층 구조인 주거지역으로 각 방들이 배치된 건물이 남쪽 성곽을 면하여 배치되어 있다. 요새화로 인한 배치

- ① 아름다운 아치로 된 벽과 성곽으로 이루어진 우케이도궁 내부
- ② 우케이도 전경
황량하고 광대한 사막 한가운데 동떨어져 자리잡고 있다.
- ③ 내부 중정에서 정문쪽으로 본 정경
허물어진 벽체들이 흠뻑들로 구축된 3층 건물임을 알 수 있다.
- ④ 중정 전경
- ⑤ 흠뻑들로만 축조된 내부통로
- ⑥ 궁성 벽면
아치 속에 다시 아치가 있고 아치 위에 또 아치가, 트인 아치, 막힌 아치, 크고 작은 아치들이 통일 속에 변화가 있는 재미있는 입면을 구성하고 있다.
- ⑦ 순수 벽들로만 축조된 3층 건물로서 바닥구조까지 흠뻑들로 축조되었다.
- ⑧ 궁성 내부의 Opening된 지붕과 계단들의 일부는 변화무쌍하며, 드라마틱한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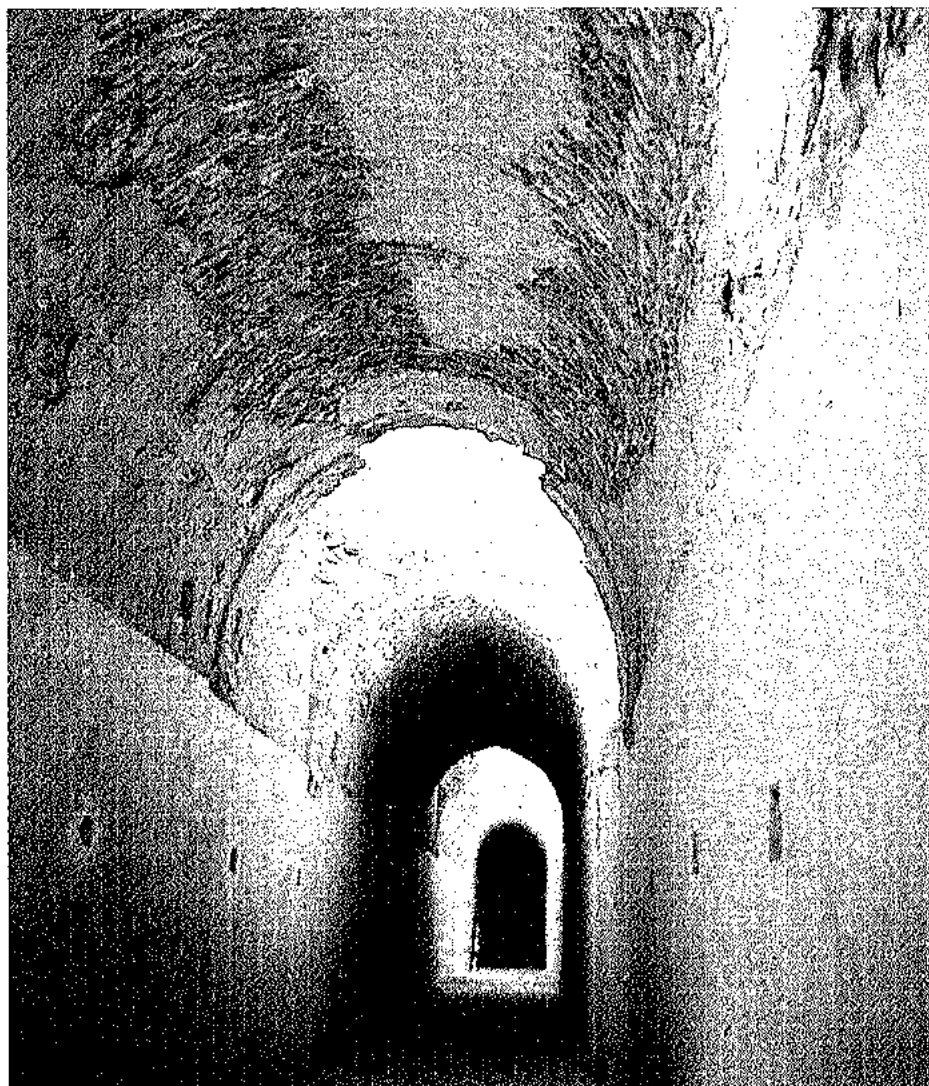
④

개념으로 보인다. 이 주거지역의 Main Part는 Guard Room, Reception Hall, Dwelling Apartments, Mosque 그리고 Bath 등의실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이루는 사각형의 외벽은 112×82m 크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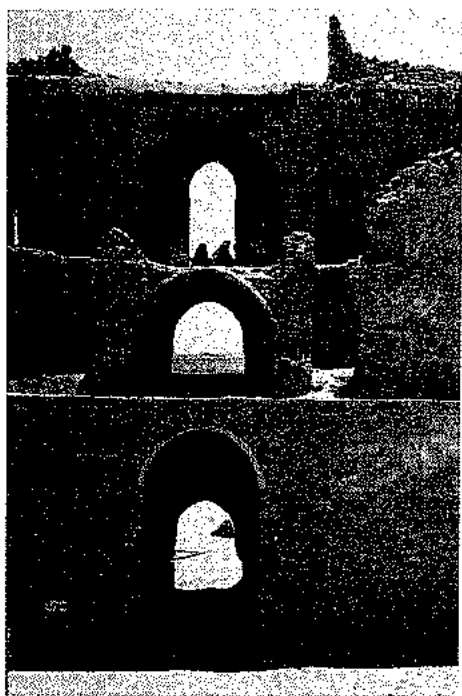
궁성 내부의 평면은 기하학적인 도형에 의한 작도와 모듈에 의한 설계임을 알 수 있다. 확대한 부분의 평면도는 가운데가 중정이며, 그 주위에도 작은 중정들이 섞여 배치되어 있다. 정방형의 평면도에서 보이는 느낌과는 달리 실제 이 건물에 들어가 보면 그 공간감이란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아기자기하며, 드라마틱하여 처음 맞는 새로운 공간감을 느낄 수 있었다.

중정의 트인 공간과 내부공간이 확연히 구분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부공간인지 외부공간인지 모를 정도로 공간 유도가 다양하여 통로나 방을 따라 여기저기 거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팍박한 공간에 부딪치기도 하고 갑자기 확트인 곳에 다다른가 하면 어느새 옥상에 올라와 있게 되기도 하여 마치 아이들이 숨바꼭질 하듯한 동심으로 돌아가게 된 듯하다. 과연 「세계에서 가장 흥미있고 Unique한 디자인」이라고 한 이유를 느낄 수 있었다.

건물의 입면 또한 매우 재미있다. 아치 속에 아치가, 아치 위에 또 아치가 있고, 트인 아치, 막힌 아치, 큰 아치, 작은 아치..... 질서있는 속에 자유롭게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조화라는 것이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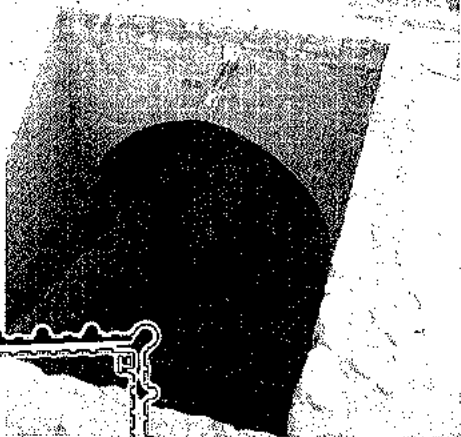
⑧



7



6



⑨ 성의 정문에 들어서면 바로 이런 높은 홀이 나타나는데, 이미 1천2백여년전에 이렇게 큰 홀의 구조체가 흙과 벽돌만으로 축조되어 마치 흙이 하늘에 매달린 것과 같은 느낌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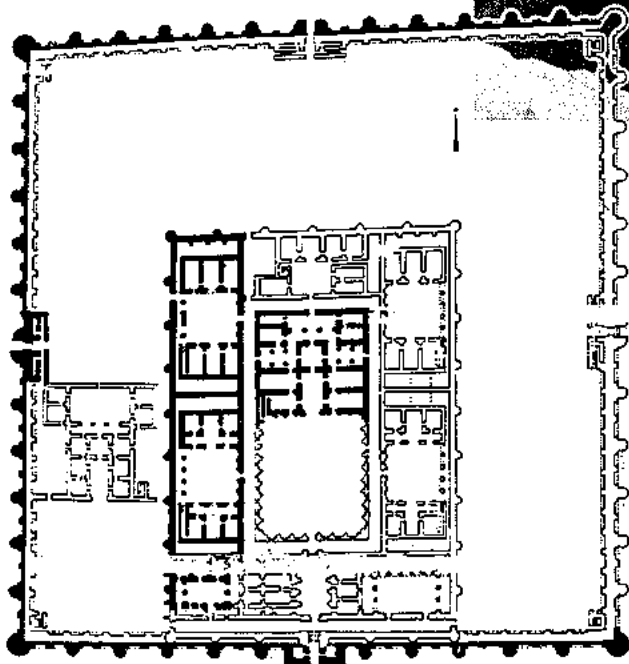
⑩ 우케이드 평면도

⑪ 궁성 내부 통로

⑫ 내부 돔 천장

⑬ 2중성곽 내부의 Palace부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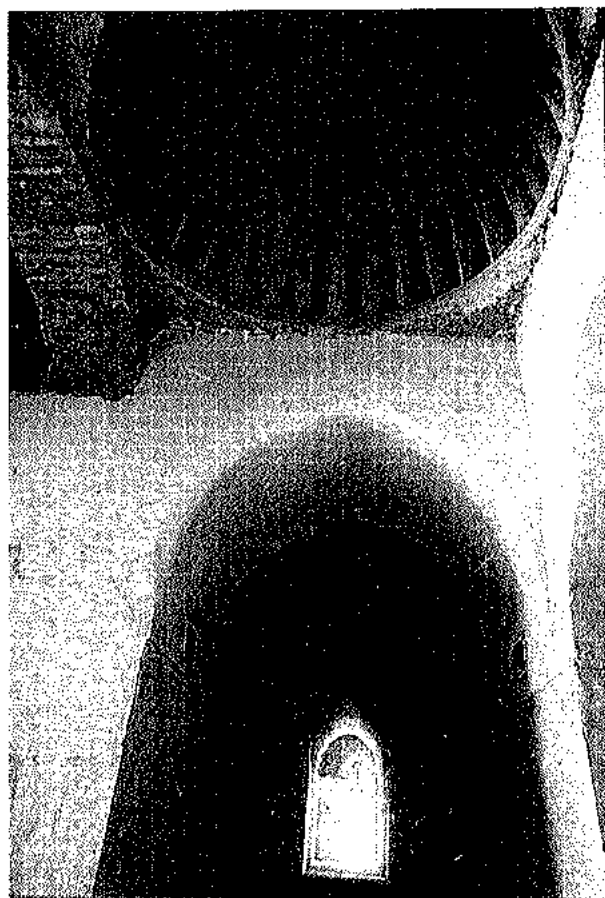
기하학적 도형의 평면인 Redential Part의 Main Part는 각종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것들을 이루는 사각형의 외벽은 112×82m크기이다.



8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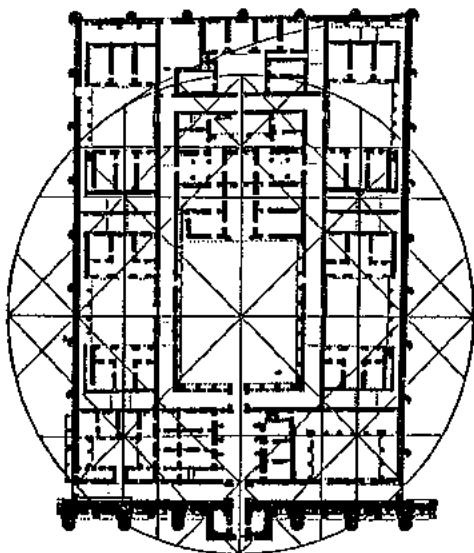
12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똑같은 크기의 아치가 밀렬로 서 있지만 획일적이 아닌, 개구부의 용도와 크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 그 기능의 크기에 맞게 - 같은 모양, 같은 크기의 아치群 속에 - 개구부의 크기는 각각 여러 형태의 크기로 필요에 따라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디자이너의 강제적인, 획일화된 모양과 크기로 창 의 크기를 입면상 똑같이 맞추려고 애쓸 필요가 굳이 없는 것이다. 통일된 개념 속에서 변화가 있고 조화가 있으며 자유스러움이 있다는 교훈을 주는 입면이다.

이 건물의 건축 재료 또한 아주 특징적인 것으로서 관심을 갖게 한다.

구조체가 있고 내장재나 치장재가 있고 마감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직 한가지 순수한 흙재료로만 건축을 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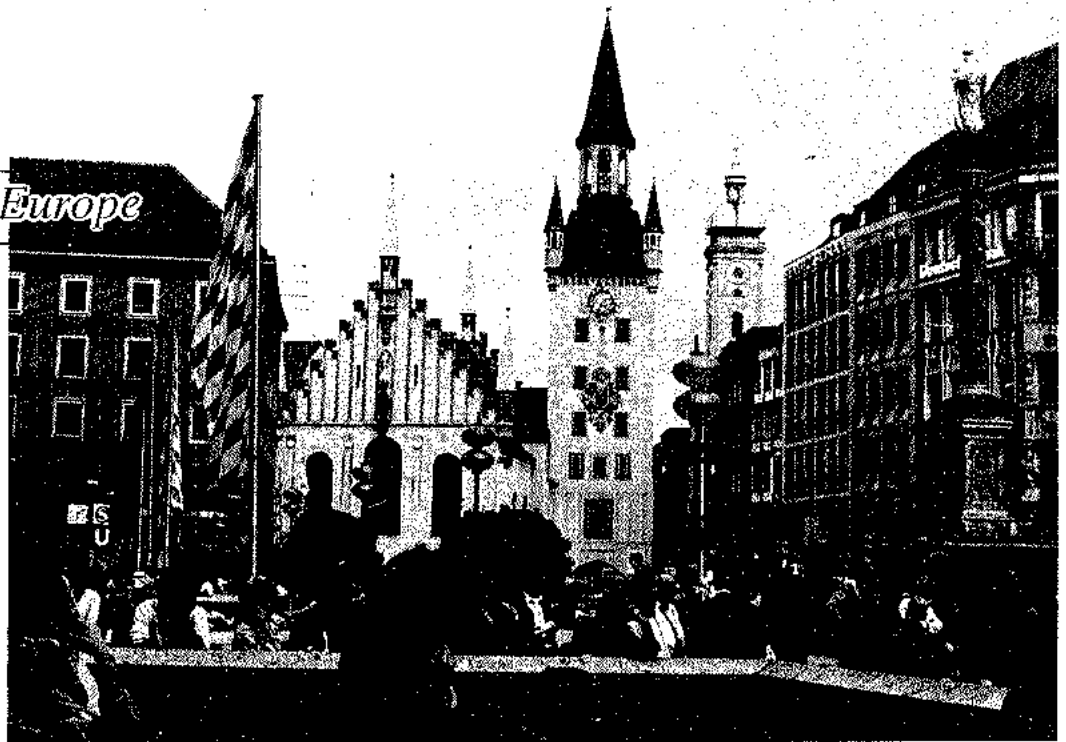
13

구조체와 장식적인 실내장식이 별개가 아니고 일체이다. 구조체가 그대로 노출되어 그것이 내장재이자 구조체의 디자인이 바로 실내장식인 것이다. 보기 싫은 구조체를 감싸야 하고 눈가려야 하는 내장공사나, 장식을 위한 실내장식 공사나 구조체 위에 는 반드시 마감재로 발라야 한다는 것은 일체 없다. 왜 구조가 보기 싫은 것이며 왜 보기 싫게 해야 하는 것인지, 마감재로 꾸며야만 하는지를 이 건물에서만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아기자기한 공간, 드라마틱한 공간, 좁아지고, 없어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확대되고, 막히고, 작은아치와 큰 아치가 있으며 낮은 건물도 높은 성곽도 디즈니랜드의 성처럼 정다운 궁성. 이곳을 다시 가보고 싶은, 그러나 다시는 가보기 어려운 幻想의 城이다.

東歐紀行

Travels of East Europe



◆ 출발

1972년 U.I.A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에 나를 포함한 家協대표 3명이 입국하려다가 당시 국제적 사정으로 파리에서 입국이 무산되고 유럽 각국만을 여행한채 돌아왔고, 공산진영에 입국한 것은 1981년 폴란드의 수도인 바르샤바와 1985년 10월 중공에서의 13박14일의 여행이 공산국가 여행으로서 고작이었다. 물론 上記 여행들은 당시로서는 몹시도 긴장되고 흥분된 여행이었던 기억이 난다. 그동안 世界의 情勢도 급변해서 東西의 冷戰이나 敵對視는 서서히 交流和 共存의 양상을 띄기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동구권국가의 여행이란 우리에게겐 꿈같은 이야기였다.

그러나 의외에도 외부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도 않았는데도 내부에서 스스로 폭발해서 일어난 人類 史上 가장 충격적인 사건인 소련의 돌발적인, 고르바초프의 Perestroika (改革) 정책이 의외로 성공적이었고, 이어서 소련의 위성국가라고나 할까 소위 東歐 共產圈의 Grasenost (開放)과 自由化의 大變動이

世界人을 놀라게 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도 아니다.

70여년간 金科玉條로 아니 하나의 宗教로 믿고 人民들의 未來에 理想郷을 건설하고 人民의 생활이 풍요로워지고 平和와 自由를 누릴 수 있다고 설득 당했고(아니 강요 당했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統制經濟와 노동으로 혹사 당하면서 속아온 그들, 冷戰을 거듭했고 自由陣營을 적대시하며 지식층을 숙청하고 노동자와 농민들이 주인이라고 우겨댔던 칼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에게 속아온 全 共產圈이 일시에 무너진 사실은 全 世界人들을 啞然케 했다.

이젠 冷戰이 필요 없고 敵對行爲가 필요 없으며 軍備擴張이 필요 없고 統制經濟 따위가 없어지고 自由 資本主義 체제의 經濟로 전환했으며, 東獨은 西獨의 經濟力에 굴복하여 하나의 獨逸로 統一을 이루게 되었다. 이에 당당아서 東歐의 共產諸國이 앞을 다투어 開放으로, 體制의 轉換으로 大轉換을 하고 있는 이때에 쿠바, 알바니아, 北韓만이 무식한 고집을 부리고 있는 터이긴 하지만 이런 국가들도 未久에 開放과 經濟崩壞가 이루어지리라는 것은



① 유고의 수도 부다페스트 변화가
② 부다페스트시 청사
③ 시청사 부근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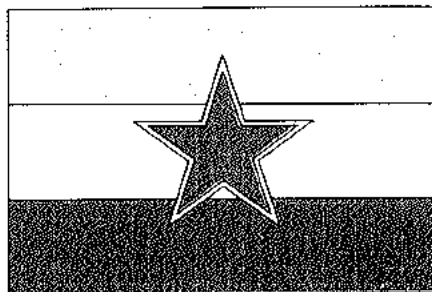
明若觀火한 일이다.

가깝게는 작년부터 불어닥친 소련을
위시한 東歐 各國의 自由陣營과의 交流의
渴望과 國交의 締結은 날로 늘어가고 무언가
이 地球村에도 평화의 비둘기떼가 蒼空을
뒤덮을 것만 같은 예감이 드는 이때, 筆者는
50여개국의 해외여행중에서도 늘 東歐
共產圈의 여행을 꿈꾸어 오던중, 우연히도
금년 하기방학을 이용해서 새로이 문이 열린
東歐를 여행하게 된 것은 아내의 回甲이
바로 이때이고 사위 둘이서 孝道旅行이란
流行語처럼 旅行狂인 나를 부추기는 바람에
큰마음 먹고 아내에게도 이때까지 못다넌
점수를 딸겸, 아울러 西獨에 10년간이나
가있는 자식놈도 만나볼겸 무덤고 지루한 이
여름을 피해 Lufthansa 便으로 김포를 떠나
먼저 유고슬라비아로 향하게 되었다.

8월10일, 학교와 사무실에서 여행 기간에
할 일들과 연락사항을 정리하고
김포국제공항 외국선 출구로 나섰다. 그동안
혼자만 다닌다고 바가지들 금년 아내는
처음의 外國旅行이라 침착한 태도인 것
같았지만 몹시 흥분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年老하다고 생각했는지 사위 둘이
벌써 나와 있었고, 여행사도

前官禮遇단자(이 여행사는 건축가협회 단골
여행사였다) 직원 한사람이 나와 모든
출국수속과 일체의 일을 다 보아 주고야
안녕히 다녀오라고하고 갔다.

참말로 오래간만에 탄 Lufthansa
747機이다. 이 비행기는 홍콩 경유, 인도와
터키 상공을 거쳐 지금 한창 위험하고
어수선한 사우디와 이라크 부근 상공을 날아
일단 프랑크푸르트에 착륙한다니 약
20시간이상의 비행을 해야 한다. 나는
스튜어디스에게 안대를 하나 달라고 해서
눈을 감고 생각하며 잠을 청했다.
惶忙之中에서도 유고에 대해 책을 보았던
것을 머리 속에서 정리하기로 했다. 아내는
그저 恍惚하고 즐겁기만한 모양이다.
다행히도 멀미를 하지 않아서 안심했다.



◆ 유고슬라비아

유고슬라비아! 정식으로는 Socialist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라는 긴
명칭이 붙는 나라이다. 국토면적은 약
26만km², 人口는 2천만이고 言語는
복잡하게도 3개의 언어 즉 세르비아어,
크로치아, 마케도니아어를 사용하는데
公用語는 세르비아어와 마케도니아어를
반반씩 쓰고 있다고 하고 영어는 거의
不通에 가까웠다. 어느 공산국가도
동일하지만 Compus 란 國營 비행사가 있어
모든 외국인의 入出國, 호텔, 비행기표,
비자, 國營 심포지움이나 세미나 등은 모두
이 Compus 가 主管한다. 사복을 입고는
있으나 國家公務員이고 국가의
정보요원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날그날 外國人의 동정을
상부기관에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國土는 우리하고 비슷하게 75%가 山地와
高原지대로 되어 있으며 國土의 東北部를
서서히 흐르는 다뉴브강은 西岸의 平野를
沃土로 만들어 명실공히 이 나라의 젖줄이
되고 있다. 알프스 산맥은 西北部를
지나가고 표고 2,000m가 넘는 高峯들도 이



④

나라의 風光을 아름답게 하고 있다. 기후는
떠날 때의 서울의 습기있는 무더위에서
초가을 같은 기온이어서 살 것만 같았고 마치
피서 나온 것 같다.

호텔은 이름도 거창하게
Palace 호텔이지만 궁전은 커녕
展示效果인지 外樣만 요란하고 내부는
영망이었다. 썩크대는 마개도 없고 욕조에는
오랫동안 사용치 않은 관제로 붉은 녹슨 물만
나와서 목욕도 못했다. 푸른트에 발했더니
어깨만 으쓱하고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개방은 되었다 해도 이 호텔의 지배인은
Compus 의 월급쟁이 직원인 것이다. 거리에
택시가 있지만 탈 수가 없고 호텔에서
부르든지 택시조합에 연락해야 보내주고 탈

수 있다. 물론 미터기는 부착되어 있었다.

이 나라의 歷史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옛부터 東西세력의 接觸地點으로 強大國
마케도니아가 勃興했던 지역이었으며
알렉산더대왕이 활개치고 威風을 날리던
곳이기도 하다. 中世紀에는 十字軍이
이곳을 통과했고, 실크로드의 西部
終點이기도 했다. 한때 獨逸帝國의
오스만대제 治下에도 있었고, 오스트리아나
헝가리의 압력을 받았으며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암살사건으로 제 1 차 世界大戰이
일어나게한 張本人格인 나라이기도 하다.

政治面에서는 일찍이 1차대전 후
共產黨의 승리로 人民共和國이 되었지만
소련 내부에서 스탈린 비판이 일어나자
티토元帥가 선봉에 나서 소련에 항거하고
소위 유고식 또는 티토식 共產國家로
변했고, 공산국가중에서 가장 자유진영의
색채가 농후한 나라였다. 티토는
國家英雄으로 7選 大統領이 되었고 후에
終身大統領이 되었다. 이때 자유진영에서는
눈에 가시같은 공산국가들의 티토化를
온근히 바꿨던 것도 사실이고 보면 '티토'는
유고의 國父格으로 존경 받았음은 마땅한
일이라 하겠다.

황급히 떠난 여행이라 심적 여유도
없었고, 비자는 베오그라드공항에서 직접
준다는 남대문 옆 유고 通商部의 말을 믿고
입국했더니 과연 아무 말없이 공항 직원이
우리 여권에 비자를 찍어주었다.

하필이면 도착한 다음날이 일요일이라서
모든 商街나 官公署가 休務였다. 어수선한
베오그라드의 Palace 호텔에서 하루밤을
지내고 公園에 산책을 나갔더니 물자도
식량도 부족하다는 이 나라에 웬 개를 그렇게
많이 기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公園에
산책나온 사람들의 대부분이 개를 끌고
나왔다. 잔디밭에는 개들의 배설물로
불결하였고 냄새가 날 정도였다. 아마도
이것은 共產國家의 流行인지 후일
헝가리에서도 같은 광경을 보았다.
쇼핑센터라거나 할까 步行者王國이라는
廣路가 이 나라 首都의 중앙을 貫通하고
路上카페에서 아이스크림과 커피를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있다. 가게의
문은 다 닫혀있고 마시고 먹는 점포만이
營業을 한다.

호텔의 朝飯은 검은빵이었다. 형편없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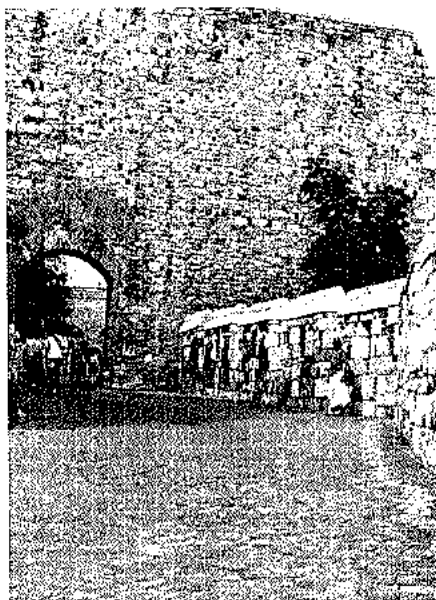
버터나 치즈도 별볼일 없었다. 식사후 지리도 잘 모르고 해서 호텔 푸론트에 부탁해 운전수가 영어를 아는 택시를 불러달라고 했다. 4시간 정도에 우리 돈으로 4만원 정도에 貸切해서 名所를 두루 살피고 中世紀나 現代建築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두대의 카메라중 한 대에는 슬라이드필름을, 다른 것에는 일반 네가필름을 넣고 마구 찍어댔다.

다뉴브江邊의 景致는 너무도 아름다웠다. 사바강이 다뉴브와 합치는 곳에는 수영장과 遊覽船이 많았고 일요일이라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득실거렸다. 옛 성터는 빈약했지만 西歐 中世紀의 築城法대로 構築되어 있었고, 숲이 우거진 公園에는 아낙네들이 色絲로 옥양목 같은 천에 繡를 놓고, 유고적인 紋樣의 수놓은 식탁보 따위를 사라고 觀光客들에게 팔아댔다. 가격은 매우 비싼편이었다. 公園벤치에서 老人들이 10여명씩 모여 떠들고 합성을 지르곤해서 가보았더니 快晴한 하늘 아래 알맞은 우리 초가를 날씨 같은 公園 숲속에서 노인들이 돈내기 서양장기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 옆에는 각국의 대사관들이 中世古風의 建物에 자기네 國旗를 내걸고 있었다.

그들의 現代建築은 造型力이 선결된, 그렇다고 우리의 뿌리도 없는 似而非 폰스트모더니즘의 흉내 같은 것도 아닌, 처음 느끼는 現代建築이란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보니 自由陣營과 斷絶되고 있었던 마우하우스 이후 그들의 現代建築은 우리에게 알려지지도 못했던 소련의 Vesnin 兄弟 建築家가 提唱했던, 1920년대의 構成主義 흐름이라고나 할까

- ④ 우리에게는 다소 생경한 느낌을 주는 현대와 중세기의 건축이 공존하는 부다페스트
- ⑤ 부다페스트부근의 고성터에서
- ⑥ 부다페스트의 노상카페
- ⑦ 노상카페에서 만난 일본인 교사와는 오랜시간 한·일간의 역사에 대해 토론하기도 했다.



⑥



⑥

확실히 現代建築인데도 낯익지 못한, 自由陣營 各國에서는 못보던 무어라 表現하기 어려운 造型이요 外樣的인 色彩의 建物들임에 놀랐다. 이것은 확실히 얼치기 自由서방국가의 흉내나 모방이 아닌 것이고 記號論이나 新古典主義의인 것도 아닌, 다시말해서 東歐적인 독특한 現代建築들인 것이다. 때문에 나는 정신없이 카메라의 셔터를 눌렀다.

Knez Mihailova 街는 유고다운 세루비아, 보헤미안식의 요리도 먹을 수 있다지만 일요일이라 문은 다 닫고 있었다. 北京이란 중국요리집을 찾아서 맵고 뜨거운 국이라도 마실 수 있으리라고 문을 두드렸으나 쉬고 있었다.

나의 日程이 14일 오전에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가야 하겠는데 항공기표를 얻지 못했다. 도착하던 날 베오그라드공항의 Compus 출장소에서 만난 Sasà 란 자가 월요일 아침까지 헝가리행표를 얻어준다고 약속했는데 연락처로 전화해도 불통이다. 이 나라도 公務員의 불성실이랄까 無責任은 여전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東西陣營을 막론하고 公務員이란 족속들은 특수한 生活態度和 意識을 가졌구나 했다. 마침 Compus 본부가 호텔 옆 가까운 곳에 있다가에 몹시 걱정이 되어 13일(月曜日) 아침 일찍이 달려갔다.

Compus 의 본부는 곧 찾을 수 있었다. 나는 헝가리행 표를 못 얻으면 이후의 旅程이 어긋난다는 점에서 몹시 초조했지만 용기를 내서 “쇼”를 했다. Compus 에 들어가자마자 벽에 걸려있는 티토원수의 사진에 멧있는 거수경례를 했다. 여직원(4, 50대 女性들이다) 이상한 東洋人 노인이구나 하는 눈으로 나를 쳐다 보았다. 나는 서투른 英語로 공항에서의 이야기이며 비행기가 텅텅 비어 자리가 많은데도 왜 좌석을 안주는냐 등을 손짓 발짓 설명을 했더니 Sasà 나 카라리나라는 Compus 공항파견직원을 잘안다고 하면서 친절하게 메모지에 확인서를 써주며 “空港에 가서 Yugo Airline 카운터에 이 메모를 주면 틀림없이 비행기표를 줄 것”이라고 자기의 署名까지 해 주었다.

공항에 가면서도 사진을 찍었다. 공항에서 Sasà 를 찾았다. 그는 웃으면서 미안하다고

- ① 다뉴브와 사바강이 합치는 곳은 항상 관광객이 모이는 곳이다.
 - ② 서구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유고의 현대건축물
 - ③ 부다페스트 구성당 전경
 - ④ 왕궁 전용 성당의 천장과 천막
 - ⑤ 로마황제 디오크레티아누스가 스플리에 세운 궁전 유적
- 지금은 대성당으로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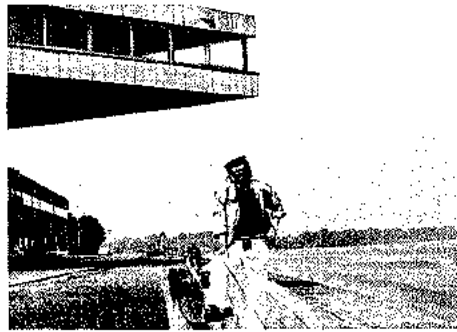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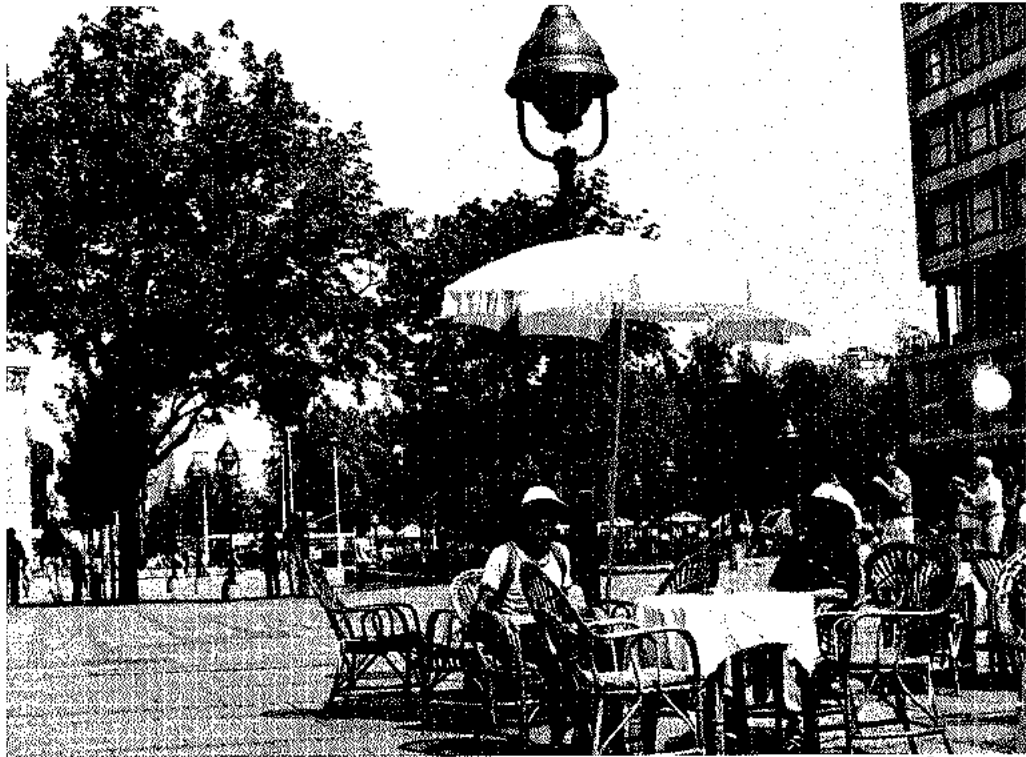
악수를 청해 왔다. 나는 화물 내면서 손을 뿌리치고 Compus에서 얻어온 메모지를 내밀었더니 그는 머리를 긁으며 Checking Counter에 가서 부다페스트행 표 2매를 Boarding Card와 같이 가지고 왔다. 나는 한숨을 쉬고 '아 이젠 되었구나'했다.

부다페스트행 Yugo Air line(JU)은 13일 오전 11시에 베오그라드공항에 도착했다. JU기는 텅 비어 있었고, 여객도 많은데 왜 비행기표를 배정 안해 주었는지 지금도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관광객이나 기타 국내객들이 많아서 좌석이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베오그라드 공항에 내릴때도 손님은 20명도 되지 않았고 기내에도 1/3정도의 좌석은 비어 있었으며 공항에도 사람이 없어 마치 시골의 손님 없는 정거장 같이 한적했는데도 왜 그랬을까?

유고슬라비아의 전체적인 인상은 가난한 나라, 국민들의 웃음 없는 표정, 생기 없는 거리..... 어쩐지 불쌍한 기분이 들었다.

공항을 다녀온 뒤 들른 Kaiemegdam 공원은 市內의 사바강과 다뉴브강이 합치는 곳 언덕 위의 숲이 우거진 공원인데 王朝時代의 城郭과 戰爭博物館, 옛 성터들이 있어 觀光客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다.

Knez Mihailova 街一歩行者天國은 우리 서울로 치면 동숭동 대학로 같은 곳이다.露天카페에서 주스로 목마름을 달래고 있는데 웬 東洋人이(日本人같은) 지나가기에 日本語를 했더니 반가히 다가와서 人事를 한다. 아마도 우리를 日本人 夫婦로 안 모양이다. 그는 놀라며 어떻게 韓國人이 완벽한 日本語를 할 수 있느냐고 한다. 나는 대답해 주었다. "나는 소위 大日本帝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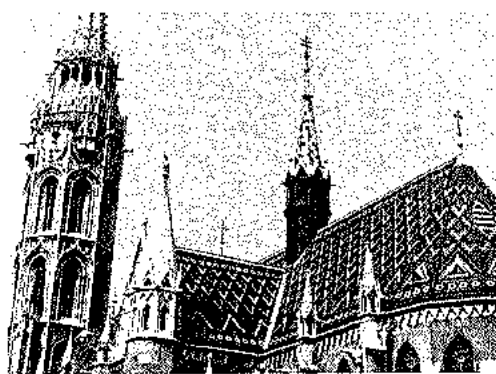
文部省 檢定教科書로 小學校서부터 大學까지 다녔다. 너는(그는 24~5세 정도의 靜岡縣 어떤 시골 中學 先生이라고 했다. 그것도 歷史先生이라고 했다) 日本 歷史를 나만큼 아느냐. 특히 日本 古代史를 어떻게 學生들에게 가르키느냐. 남의 나라를 侵略하고 그것을 進出이라고 한 日本 帝國主義가 40여년전 東洋의 隣接各國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나 있는가. 徵用이 무엇이며, 女子 挺身隊가 무엇인지 아느냐? 日本의 古事記, 萬葉集, 太平記를 다 읽었는가? 天照大神이란 韓國에서 건너간 무당이라는 것을 알고나 있는가? 古松古墳을 內視鏡으로 보고 3종의 철조망을 쳐놓고 우리 考古學者들이 공동으로 發掘하자고 제안하니 절대로





10

못한다고 한 日本 考古學者들은 內視鏡으로 무엇을 보고 그리는지 너는 아느냐? 너희 紀元으로 1212년 推古天皇時 百濟의 王仁박사가 千字文 2권과 論語 1권을 가지고 가서부터 日本에 文字란게 생겼다는 것, 文字가 없이 文化란 성립되며 概念조차 있었는지? 日本의 原始人은 九州쪽에 長跼彦이고 중부의 山地에 山寡와 熊素와 북부에 아이누가 있을 뿐 그것이 日本 列島의 원주민이고 飛鳥(아스카)문화가 무엇이며 繩文문화가 무엇인지 또는 어디서 전래된 것인지 아느냐. 너희들은 우리를 처음엔 渡來人이라 했고 다음은 歸化人이라 했으며 經濟大國이 된 후론 뭐 제 3 국인이라고 한다면서. 過去라는 지나간 時間帶에 속하는 사실들은 인간의 힘으로 歪曲하거나 誇張이나 抹消시킬 수 없는 것인데 너희들이 島嶼 거주의 小人輩들이기 때문에 감히 그런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일 신이 있다면 天罰을 받아 마땅하고 日本 列島가 어느날 太平洋 물



11



12

속으로 沈沒 안한다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라고 考證을 대면서 2시간 이상이나 다그쳤더니 그는 얼굴이 파래지며 “저는 나이 어려서 아무 짓도 모르고 책에 쓰인대로만 했는데 막상 外國人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뉘우치는 바가 많습니다. 歸國하면 더 공부해서 眞實을 學生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고 하면서 목이 마른지 물 두컵이나 마시고 나의 住所와 姓名을 적어 달라고 한다. “歸國 후에도 편지할 터이니 많은 가르침을 바랍니다”라고 했다. 마누라도 옆에 앉아서 가끔 한두마디씩 미쳤다.

快晴한 초가를 유고슬라비아 베오그라드의 거리에서 歷史 講義를 한 셈이 된다. 그래도 日本人을 혼내주니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歸國하거든 學生들을 데리고 韓國으로 修學旅行을 오라. 내가 學生들에게 歷史의 이야기를 해주마”고 했더니 꼭 그리하겠노라고 했다.

《다음 號에 繼續》

대통령령

제13,055호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 建築法施行令 改正理由

中小企業의 立地難을 緩和하기 위하여 아파트형工場을 自然綠地地域중 垜地造成이 가능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準工業地域안에 工場을 建築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垜地안 空地의 범위를 縮小하며, 이와 아울러 住宅建設을 촉진하기 위하여 商業地域안에서 共同住宅 建築時 隣接垜地境界線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距離를 地域實情에 따라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도록 하는 등 現行 規定上의 未備點을 補充하려는 것임.

◇ 主要骨子

가. 아파트형工場을 현재는 一般住居地域·準住居地域 및 近隣商業地域에서 主務

都長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建設都長官이 同意하면 地域別로 延面積合計5千 내지 1萬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안에서 設置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自然綠地地域에도 市長·群守가 指定·公告하는 區域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이와 아울러 아파트형工場의 規模制限은 市長·群守가 地域 및 工業用地의 需給狀況에 따라 自律的으로 판단하여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中小企業의 立地難을 緩和할 수 있도록 함(令 第66條 第2項).

나. 共同住宅을 建築할 때에는 日照權確報를 위하여 都市計劃上 모든 用途地域에서 建築物높이를 隣接垜地境界線으로부터 띄운 距離의 2배이하로 建築하도록 一律的으로 規定하고 있으나, 都心 土地利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商業地域안에서는 距離制限을 緩和하여 당해 지역의 住宅普及率 등 地域實情에 따라 隣接垜地境界線으로부터 띄운 距離의 4배 이하의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는 높이로 함(令 第90條 第3號가目).

다. 公害工場을 建築할 경우 현재 準工業地域에서는 道路境界線으로부터 6미터 이상 띄어 建築하여야 하나, 一般工業地域안에서는 이에 대한 제한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準工業地域의 경우에는 다른 用途地域의 2분의 1 수준으로 緩和하여 道路境界線에서 3미터이상을 띄어 建築하게 함으로써 用途地域間 規制의 衡平을 도모하고, 工場用地의 土地利用度를 높이도록 함(令 第92條).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 제2항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공장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제3호·제6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지역안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가 공장용지 조성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 한한다.

제66조 제2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장의 규모 : 용도지역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이하인 것.

제90조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축물(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16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15층이하의 각 부분은 2배, 16층이상의 각 부분은 2.5배). 다만,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

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각 부분으로부터 4배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로 한다.

제92조 제1항의 표중 "대지가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띄어야 하는 건축선 부분 등"란을 "적용대상 건축선"란으로 한다.

제92조 제1항의 표의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 해 공 장 (전 용 공업지 역 및 일반공 업 지 역에서 건축하 는 것 을 제 외 한 다)	6이상(준 공업지역 에서는 3 이상)	모 든 건 축선
--	-------------------------------	-------------

제92조 제2항의 표중 공해공장·위험물제조소·위험물저장소(공해공장은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해공장· 위험물제조 소·위험물 저장소 (공해공장 은 전용공 업지역 및 일반공업지 역에서 건 축하는 것 을 제외하 며, 당해용 도에 해당 하는 부분 을 말한다.)	4.0이상 (준공업 지역에 건축하는 공장은 2.0이상)	3.0이상 (준공업 지역에 건축하는 공장은 1.5이상)
--	---	---

[부표]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동주택(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공동주택)

1. 연립주택
2. 다세대주택
3. 아파트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조례위임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제66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90조 제 3 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

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대통령령

제13, 056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住宅建築促進法施行令 改正理由

無住宅庶民의 傳·月賃價格安定 및 住宅供給촉진을 위하여 多世帶住宅等 共同住宅의 建築規模를 확대하고, 近隣生活施設과 共同住宅을 동일 建物에 함께 建築할 수 있는 複合建物の 허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限定된 地地의 효율적 이용 및 住居環境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主要骨子

가. 聯立住宅 및 多世帶住宅의 供給 촉진을 위하여 그 建設規模를 聯立住宅의 경우는 現行 동당 建築延面積 330제곱미터 초과·3層이하에서 동당 建築延面積 660제곱미터 초과·4層이하로, 多世帶住宅의 경우는 現行 동당 建築延面積 330제곱미터 이하·3層이하에서 동당 建築延面積 660제곱미터 이하·4層이하로 각각 上向·調整하

고, 이에 따라 아파트는 그 建築規模를 4層 이상에서 5層이상으로 調整함(令 第 2 條의 2).

나. 住宅建設綜合計劃을 수립할 때에 交通 및 環境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효율적인 檢討를 위하여 住宅政策審議委員會의 委員에 交通部長官과 環境處長官을 추가함(令 第 6 條 第 8 項).

다. 現제는 指定業者 指定時期에 관한 規定이 없어 指定業者 지정을 非定期的으로 함에 따라 指定業者로 지정받고자 하는 者는 지정에 관한 豫測이 不可能하여 住宅建設事業의 專門化 및 大型化誘導를 위한 制度의 취지에 어긋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3年마다 1회 이를 定期的으로 지정하도록 함(令 第11條 第 3 項).

라. 都市計劃法에 의한 아파트의 地區指定權限은 이미 市·道知事에서 委任되어

있고, 아파트地區開發 基本計劃도 아파트地區 指定의 목적에 부합되게 수립되어야 하므로 아파트地區 指定權限의 委任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아파트地區開發 基本計劃에 관한 建設部長官의 承認 權限을 서울特別市長 및 直轄市長에게 委任하도록 함(令 第45條 第 3 項).

마. 現제는 共同住宅團地안의 동일 建物 안에 住宅과 住居用이 아닌 施設과의 複合建築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共同住宅團地가 劃一化되고 日常生活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合理的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商業地域이 아닌 地域에서의 共同住宅의 경우에도 福利施設·近隣生活施設등의 日常住居生活에 필요한 施設을 複合的으로 建築할 수 있도록 하여 一般共同住宅團地안에서의 土地利用度의 提高를 유도함(令 別表4).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 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법 제 3 조 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아파트: 5층이상의 주택
2. 연립주택: 동당 건축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4층이하의 주택
3. 다세대주택: 동당 건축면적이 660제곱

미터 이하인 4층이하의 주택

제 6 조 제 1 항 제 5 호의 3 을 제 5 호의 4 로 하고, 동항에 제 5 호의 3 및 제 5 호의 5 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 제 10 호중 “4 인”을 “2인”으로 한다.

5의 3. 교통부장관

5의 5. 환경처장관

제 6 조 제 8 항 제 1 호중 “위원(부위원장을 제외한다) 및 환경청장”을 “위원(부위원장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 11 조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건설부장관은 3년마다 1회 지정업자를 지정하며,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정신청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또 지정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 45 조 제 3 호중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별표 2] 제 1 호 나목 및 다목중 “지정신청의 공고가 있는 날”을 각각 “지정신청의 접수마

감일"로 한다.

[별표4]제1호 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업지역·특정지구정비지구 또는 재개발구역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건축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있다.

[별표4]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숙박시설·위락시설·공연장·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기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주거환경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축할 수 없다.

[별표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6]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
(제35조 제4항관련)

1. 도로

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로부터 동단지경계선(단지의 주된 출입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로 하되, 그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에 한한다.

2. 상하수도시설

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상·하수도시설로부터 동단지경계선까지의 시설로 하되, 그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에 한한다.

3. 전기시설

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택지 또는 공동주택의 단지경계선까지로 한다. 다만, 단지안에 개설예정인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까지로 한다.

4. 가스공급시설

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

부터 동단지경계선까지로 한다. 다만, 단지안에 정압조정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설의 시설물까지로 한다.

5. 통신시설

가. 공중전화시설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다.

나. 세대별 전화시설

관로시설은 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동단지 경계선까지, 케이블시설은 동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동단지의 최초단지까지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케이블시설의 경우 그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이 체신부장관과 따로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우편함

체신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설치기준에 의한다.

質疑 · 回信

▶ 1층은 근린생활시설, 2~3층 단독주택인 3층 건축물이 중간검사 대상인지?

▷ 건축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해 3층 이상의 건축물(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제외) 또는 연면적이 1천㎡이상 건축물은 중간검사 대상이며 중간검사에서 제외되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은 타용도와 복합되지 않고 단일용도로서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을 말하는 것인 바, 문의의 경우에는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와 복합된 것이므로 중간검사 대상입니다.

▶ 다세대주택의 복합용도 건축 가능 범위는?

▷ 다세대주택과 기타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다세대주택의 부분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시설, 기계실 등 부대시설의 면적제외)의 1/2 이상이면 동 건축물의 용도를 다세대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 건축물의 외벽에 돌출하여 설치한 쓰레기투입구의 면적이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 건축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해 바닥면적 산정시 굴뚝, 쓰레기투입구 등 이와 유사한 것의 면적은 바닥면적에는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 대지 안의 공지 규정 운용은?

▷ 건축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표'중 종교시설의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이격거리에 대한 규정중 "당해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에 대한 적용은 건축물의 외벽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동 건축물중 당해용도(부속용도 포함)로 사용되는 부분까지의 이격거리를 말하는 것이니 동 규정의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新入會員



李相泳(55年)
울산공대, 연세대학원 건축
응원건축
서울 강남 논현 64-16
515-5498



金泰植(55年)
홍익대, 同대학원 건축
두리건축
서울 강남 논현 122-22
549-8952



白淳甲(61年)
대림공전 건축
미래건축
경기 안양 안양 491-7
49-0012, 9918



崔義英(56年)
동아대 건축
준미건축(종합)
서울 강남 논현 175-31
540-5311



安承碩(56年)
서울산업대 건축공
옴원건축
서울 송파 송파 19-8
412-2215



朴贊賢(46年)
동아대 건축
구성, 성, 이공, 신도시(종합)
부산 동구 초량 1204-7
466-9999



蔡洙一(54年)
청주대 건축공
우일건축
인천 남동 만수 948-7
426-2886



權李遠(58年)
대전공대 건축
아트건축(종합)
대전 중구 신화 371-2
255-7465



孫雄翼(58年)
한양대 건축공
엄미건축(종합)
서울 서초 양재 399-1
576-0638



李相穆(46年)
한양대 건축
한창건축
서울 서초 반포 745
512-1540~1



金保澤(52年)
울산공대 건축
서인, 예진건축(종합)
서울 서초 반포 1-8
532-1861



金善吉(56年)
단국대 건축공
(주)한주건축(종합)
서울 강남 삼성 114-11
569-4292~3



鄭均泰(58年)
홍익대 건축공
(주)한주건축(종합)
서울 강남 삼성 114-11
569-4292~3



金洪寬(43年)
한양대 건축
(주)한주건축(종합)
서울 강남 삼성 114-11
569-4292~3



李範烈(55年)
부산공대 건축
범, 거상+진건축(종합)
부산 동구 초량 1163-9
466-6464

“국토대청결운동”실시

I. 目的

全國의 山, 河에 대한 國土 大清潔運動을 持續的으로 推進
擴散시켜 凡國民의 健全社會 氣風을 振作하고, 自然環境 및
生活環境을 快適하게 維持 保全함.

II. 推進方針

—環境保全凡國民運動推進協議會等 民間團體 주관하에 各급
행정기관의 지원과 언론 기관의 협조로 民間主導 運動이
活性化되도록 함.

—民, 官, 軍 합동 추진으로 國民的 和合과 一體感 形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지역주민의 적극 참여를 통해 내고장 환경 가꾸기 사업과 연계
추진.

—식료품제조업체등 오염원인 제공자의 自律的 淨化 努力 促求

—지방자치단체장이 關聯機關과 積極的인 協調하에 추진.

III. 重點 對象 地域

—행락철 쓰레기가 적체되는 공원, 산, 계곡, 댐 등 유원지

—침수 피해지역 주변과 하천변

—上水保護區域 상류지역

環境處長官

1990년 9월분 도서신고현황

全國圖書申告 概況(地域別 増減狀態)

(연면적기준-전년동월비)

(단위/㎡)

구분	1989년도	1990년도	증·감	비율(%)
증가지역				
서울지부	1,485,467	1,604,724	119,257	8.03%
부산지부	496,663	860,899	364,236	73.34%
대구지부	278,296	457,611	179,315	64.43%
광주지부	206,751	654,455	447,704	216.54%
대전지부	212,324	271,109	58,785	27.69%
경기지부	1,244,634	6,069,461	4,824,827	387.65%
강원지부	328,768	444,368	115,600	35.16%
충남지부	289,954	388,672	98,718	34.05%
전북지부	493,629	524,441	30,812	6.24%
전남지부	270,703	726,330	455,627	168.31%
경북지부	458,658	548,146	89,488	19.51%
경남지부	960,405	1,290,440	330,035	34.36%
제주지부	71,060	93,715	22,655	31.36%
감소지역				
인천지부	542,032	533,359	(8,673)	-1.60%
충북지부	357,901	325,831	(32,070)	-8.96%
합계	7,697,245	14,793,561	7,096,316	92.19%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 9월분 7백69만7천2백45㎡보다 92.19%(7백9만6천3백16㎡)증가한 1천4백79만3천5백61㎡의 실적을 보였다.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1~9월 누계 7천4백9만5천9백4㎡보다 47.45%(3천5백16만7백63㎡)증가한 1억9백25만6천6백67㎡의 실적을 보였다.

다. 전월비

8월분 1천2백42만1천9백7㎡보다 19.09%(2백37만1천6백54㎡)증가한 1천4백79만3천5백61㎡의 실적을 보였다.

全國圖書申告 概況(用途別 増減狀態)

(연면적기준)

(단위/㎡)

종별	8월분	9월분	증·감	비율(%)
단독주택	1,106,185	1,059,263	(46,922)	-4.24%
다세대주택	672,581	570,225	(102,356)	-15.22%
연립주택	198,516	202,694	4,178	2.10%
아파트	5,875,502	8,581,448	2,705,946	46.05%
근린생활시설	1,650,269	1,490,581	(159,688)	-9.68%
종교시설	50,689	66,155	15,466	30.51%
의료시설	8,937	30,757	21,820	244.15%
교육연구시설	238,359	143,477	(94,882)	-39.81%
업무시설	371,836	580,075	208,239	56.00%
숙박시설	42,757	60,700	17,943	41.97%
공장	1,142,112	1,343,782	201,670	17.66%
기타	1,064,164	664,404	(399,760)	-37.57%
계	12,421,907	14,793,561	2,371,654	19.09%

支部別 全國圖書申告 概況(9月分)

구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계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서울지부	1,949	2,119	1,566,950	80	84	37,774	0	0	0	2,029	2,203	1,604,724
부산지부	1,304	1,584	790,823	286	343	57,779	36	36	12,297	1,626	1,963	860,899
대구지부	727	806	426,498	514	519	22,792	25	25	8,321	1,266	1,350	457,611
인천지부	258	370	515,791	28	37	16,163	17	17	1,405	303	424	533,359
광주지부	454	521	613,763	143	148	37,683	11	11	3,009	608	680	654,455
대전지부	415	442	219,887	62	68	34,048	111	114	17,174	588	624	271,109
경기지부	2,160	3,249	5,894,617	173	198	118,554	61	61	56,290	2,394	3,508	444,368
강원지부	517	645	409,634	124	129	30,477	16	16	4,257	657	790	325,831
충북지부	588	697	256,629	107	146	57,926	42	45	11,276	737	888	325,831
충남지부	471	497	302,017	153	161	77,998	37	37	8,657	661	695	388,672
전북지부	421	518	469,251	105	118	45,660	26	26	9,530	552	662	524,441
전남지부	605	756	542,017	131	167	172,457	34	35	11,856	770	958	726,330
경북지부	684	814	403,635	210	278	130,068	31	31	14,443	925	1,123	548,146
경남지부	1,671	1,926	1,146,072	274	306	132,692	30	30	11,676	1,975	2,262	1,290,440
제주지부	191	206	81,218	88	92	12,497	0	0	0	279	298	93,715
합계	12,415	15,150	13,638,802	2,478	2,794	984,568	477	484	170,191	15,370	18,428	14,793,561

支部別 全國圖書申告 概況(1~9月 合計分)

구분 지부별	신축·개축·재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지부	37,694	38,660	18,930,485	1,050	1,141	535,357	0	0	0	38,744	39,801	19,465,842
부산지부	11,815	14,409	7,960,998	2,618	3,303	471,872	418	441	273,484	14,851	18,153	8,706,354
대구지부	8,000	8,465	4,100,785	4,048	4,160	447,506	288	290	91,880	12,336	12,915	4,640,171
인천지부	7,403	8,760	6,741,171	388	508	173,453	167	205	62,868	7,958	9,473	6,977,492
광주지부	3,690	4,135	3,231,408	1,213	1,297	318,052	113	113	40,057	5,016	5,545	3,589,517
대전지부	3,779	4,151	3,298,244	490	497	152,634	843	865	293,486	5,112	5,513	3,744,364
경기지부	28,669	32,710	25,600,447	2,066	2,289	1,175,934	693	700	518,340	31,428	35,699	27,294,721
강원지부	4,635	5,604	3,026,537	1,159	1,364	426,406	148	155	33,718	5,942	7,123	3,486,661
충북지부	5,729	6,516	2,531,328	1,004	1,216	563,009	424	435	269,878	7,197	8,167	3,364,215
충남지부	4,328	4,595	2,925,415	1,147	1,162	461,367	264	267	165,339	5,739	6,024	3,552,121
전북지부	3,723	4,322	2,987,983	912	1,004	263,528	206	207	58,150	4,841	5,533	3,309,661
전남지부	5,005	5,941	3,471,858	1,456	1,736	541,627	215	221	79,781	6,676	7,898	4,093,266
경북지부	7,075	8,363	4,544,222	2,002	2,349	1,026,468	229	229	148,754	9,306	10,941	5,719,444
경남지부	13,456	15,320	9,132,670	2,964	3,380	1,172,870	294	297	175,085	16,714	18,997	10,480,625
제주지부	1,973	2,290	746,758	535	547	85,455	0	0	0	2,508	2,837	823,213
합 계	146,974	164,241	99,230,309	23,092	25,953	7,815,538	4,302	4,425	2,210,820	174,368	194,619	109,256,667

用途別 全國圖書申告 概況(9月分)

구분 용도별	신축·개축·재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 독 주 택	5,766	5,921	984,237	1,163	1,222	70,099	84	84	4,927	7,013	7,227	1,059,263
다 세 대 주 택	1,301	1,420	559,601	60	61	7,914	19	22	2,710	1,380	1,503	570,225
연 립 주 택	131	174	201,656	5	5	1,038	0	0	0	136	179	202,694
아 파 트	300	1,967	8,559,729	10	10	18,672	4	4	3,047	314	1,981	8,581,448
근린생활시설	3,219	3,306	1,355,244	465	486	76,632	214	215	57,705	3,898	4,007	1,490,581
종 교 시 설	124	135	53,404	49	54	11,123	10	10	1,628	183	199	66,155
의 료 시 설	4	5	6,122	8	8	23,987	2	2	648	14	15	30,757
교육연구시설	49	70	102,372	58	64	35,120	15	15	5,985	122	149	143,477
업 무 시 설	99	124	525,828	46	48	33,801	8	8	20,446	153	180	580,075
숙 박 시 설	22	26	50,106	9	9	2,369	9	9	8,225	40	44	60,700
공 장	495	804	756,279	264	417	556,998	61	61	30,505	820	1,285	1,343,782
기 타	905	1,198	483,224	341	410	146,815	51	51	34,365	1,297	1,659	664,404
합 계	12,415	15,150	13,638,802	2,478	2,794	984,568	477	484	170,191	15,370	18,428	14,793,561

用途別 全國圖書申告 概況(1~9月合計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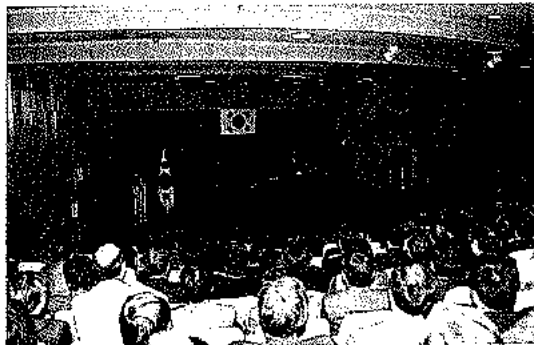
구분 용도별	신축·개축·재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 독 주 택	72,694	74,173	13,124,730	10,811	11,135	733,009	613	617	44,014	84,318	85,925	13,901,753
다 세 대 주 택	18,310	19,631	5,908,528	866	877	69,684	95	106	9,655	19,271	20,614	5,987,867
연 립 주 택	1,006	1,354	1,524,475	32	38	19,611	7	7	2,350	1,045	1,399	1,546,436
아 파 트	2,203	10,351	40,832,405	112	172	302,595	37	47	198,880	2,352	10,570	41,333,880
근린생활시설	38,393	39,297	19,089,188	4,700	5,180	972,275	2,060	2,074	665,468	45,153	46,551	20,726,931
종 교 시 설	845	967	507,713	464	520	180,052	66	70	63,035	1,375	1,557	750,800
의 료 시 설	64	69	143,416	81	90	103,352	32	32	25,602	177	191	272,370
교육연구시설	382	535	1,095,016	629	749	711,788	196	205	166,495	1,207	1,489	1,973,299
업 무 시 설	1,416	1,542	5,013,489	459	473	334,038	93	94	101,429	1,968	2,109	5,448,956
숙 박 시 설	634	684	1,311,609	179	185	93,946	91	91	179,953	904	960	1,585,508
공 장	4,395	7,245	6,303,852	2,186	3,388	3,124,711	456	498	482,854	7,037	11,131	9,911,417
기 타	6,432	8,393	4,375,888	2,573	3,146	1,170,447	556	584	271,085	9,561	12,123	5,817,450
합 계	146,974	164,241	99,230,309	23,092	25,953	7,815,538	4,302	4,425	2,210,820	174,368	194,619	109,256,667

全國 市道支部 定期總會 開催

本協會 15개 市·道 支部가 10월중 第25回 定期總會를 개최하고 新任 任員選出등 主要 會務를 의결, 처리하였다. 支部別 總會 附議事項 처리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特別市支部

- * 개최일시 : 1990. 10. 30(화)
- * 개최장소 : 본협회 강당
- * 참석인원 : 재직회원 1천6백 6명중 9백8명
- * 의결내용 :
 - '9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에 산(안)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임원 선출
 - 會長 :李文雨
 - 副會長 :朴昌浩
 - 幹事 :金基哲, 金文圭,



서울 지부

金永德, 金永雄, 金鍾鎬, 閔中植
監事 : 張述, 金麟(보선)

- 대의원 선출
- 지역 대의원 정원중 50%는 해당본소에서, 50%는 집행부에서 선출토록 위임

釜山直轄市支部

- * 개최일시 : 1990. 10. 26(금)
- * 개최장소 : 해운대 파라다이스비치호텔
- * 참석인원 : 재직회원 3백81명중 2백92명
- * 의결내용 :
 - '90년도 제 2차 추가경정 수지에산(안) 승인
 - 지출예산과목 [(항)직립금 (목)임의적립금]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연구해서 합리적인 집행을 하는 조건으로 원안 승인
 - '9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에 산(안)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會長 :成勳燮
 - 副會長 :卞京烈

'90 全國市道支部 定期總會

激勵辭

尊敬하는 支部會長을 비롯한 任員 및 會員여러분, 그리고 이 뜻깊은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公私業務로 바쁘신 중에도 기꺼이 參席하여 주신 來賓여러분. 오늘 貴支部의 '90年度 定期總會를 맞이하여 本人이 여러분을 모시고 激勵의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아울러 평소 本協會와 支部 發展에 많은 關心을 가지시고 聲援해 주신데 대하여 眞心으로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本人이 大韓建築士協會의 會長으로 就任하면서 會員여러분들께 就任所感과 함께 業務推進計劃과 覺悟를 피력한바 있습니다만 어느덧 2年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本協會의 發展과 會員의 權益伸張을 위하여 제나름대로는 微力하나마 最善을 나해왔다고 생각하면서도 과연 會員여러분들께 얼마나 滿足할만한 成果가 되었는지 걱정과 함께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本人이 會長으로 就任하면서 強調했던대로 우리의 協會를 「힘있는 協會」로 浮刻시켜 나가는데 力點을 두고 內적으로는 協會를 求心體로 結束을 다지면서 對外的 活動을 強化하여 상당한 成果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어 지난 3月 開催한 全國建築士大會를 통하여 全國

會員이 同心團結하여 보여주시는 그 커다란 힘은 우리 協會의 앞날에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하며 社會 곳곳에 作用하였고, 그 힘이 바탕이 되어 建築士를 바라보는 社會의인 視角 또한 많이 달라졌음은 물론, 그에 따른 權益伸張에도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協會를 向한 會員여러분의 정성어린 聲援에 힘입어 本人이 對外的으로 推進하기로 約束드렸던 各種 懸案問題들도 그동안의 努力으로 하나씩 그 結實을 맺어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建築士試驗制度에 있어서 당초 시행목적과는 거리가 멀게 운영되면서 우리 建築士界에 항상 混亂과 謗議의 소지가 되어왔던 公務員 特別銓衡制度는 本協會에서 廢止를 強力히 推進한 結果, 이미 廢止된 바 있으며, 建築行政處分制度의 完善과 單獨建築士事務所의 業務범위를 上向 調整하여 單層建築物 20層以上, 延面積 3萬제곱미터까지 遂行할 수 있도록 建議한 바 있고 그에 對하여 關係當局에서는 그 뜻을 充分히 수용한 建築士法 改正案을 作成하여 오는 11月中에 立法豫告 豫定으로 推進중에 있습니다.

또한, 종전규정에 의한 2級 建築士 모두가 全員 구제될 수 있도록 推進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會員業務와 밀접한 關係에 있는 建築法에 對하여는 關係當局과의 수많은 協議를 거쳐 最終적으로 調整完了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事前設計變更는 事後設計變更으로 調整하였으며 施工誤差를 認定하고 特別 調査·檢査

協會消息

支部總會消息

幹事：嚴泰佑, 李龍欽,
朴信昱
監事：宋珍浩
• 대의원 선출
- 신 집행부에 위임함

大邱直轄市支部

- * 개최일시 : 1990. 10. 27(목)
- * 개최장소 : 대구 파크호텔
- * 참석인원 : 재적회원 2백35명
명중 1백95명
- * 의결내용 :
• '9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수지에산(안)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9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에산(안) 승인
- 원안대로 승인



대구지부

仁川直轄市支部

- * 개최일시 : 1990. 10. 25(목)
- * 개최장소 : 부평 여산부페
- * 참석인원 : 재적회원 98명중 83명
- * 의결내용 :
• '90년 결정세출예산(안)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9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에산(안) 승인

- 일부사업비등은 '91년도 총회시 추경에서 다루기로 하고 총규모 2억4천5백만원 규모의 예산(안) 승인
- 임원 선출
- 임기만료 임원 3인 전원을 유임키로 함
- 대의원 선출
- 김一鎬회원 등 4인 선출

光州直轄市支部

- * 개최일시 : 1990. 10. 30(화)
- * 개최장소 : 지부 회의실
- * 참석인원 : 재적회원 1백15명중 1백명
- * 의결내용 :
• '9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에산(안) 승인
- 총 예산 규모내에서 일부 항목 액수 조정하여 승인
- 임원 및 대의원 선출
- 會長 : 徐廷珉
副會長 : 鄭在京
幹事 : 閔成基, 襄澤一
監事 : 尹頌相
대의원 : 朴永憲회원 등 8인 선출

代行機關을 大韓建築士協會로 명문화하면서 建設部令으로 定하는 機關을 별도로 정해두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結論을 맺은 바 있습니다.

또한 違法行爲者에 對한 罰則도 現在 2年以下 징역 또는 壹千萬원以下 罰金으로 되어 있는 것을 貳百萬원以下의 罰則金만으로 하도록 하였고 建築行爲에 있어서 違法事項이 발생되었을 경우 施工者 및 違法行爲者 위주로 處罰하면서 工事現場 爲害防止 및 土地掘鑿部分에 對한 整理와 道路 안에 建築制限을 違反한 者에 對한 處罰對象에서 工事監理者는 면책하는 것으로 調整되었습니다.

이외에도 都市設計 再整備期間의 下向調整과 建蔽率·容積率완화등 우리의 意見이 대폭 받아들여진 改正案이 곧 國會에 상정될 예정으로 있어 머지않아 그 結實을 보게 될 것으로 期待됩니다.

本協會에서는 또한 消防法, 停車場法등 建築關聯法規의 改善을 위해서도 적극 努力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루과이라운드, 綜合建設業免許制 등으로 인하여 우리 建築士들의 權益이 侵害당할 우려가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도 多角度로 對策을 마련하고 強力하게 對處하고 있으며, 그와 함께 政府 豫算編成指針상의 設計費 現實化 문제와 稅率引下 調整문제등, 내년 1년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한 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本協會가 重點적으로 推進했던 主要事項들에 대해서는 그 內容을 '90年度業務推進現況으로 作成하여 全國 會員님들께

작성 發送한 바 있어오니 그 內容을 檢討하시고 더많은 關心과 聲援을 부탁드립니다.

本協會는 올해로 創立 스물다섯 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名實共히 우리나라 建築文化를 先導하는 代表的인 團體로 成長해 왔음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제부터는 協會가 안고있는 모든 潛在力을 일깨워, 크게 일하고 앞서가는 團體로 成長 發展시켜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바램은 會員여러분들의 積極的인 協調가 없이는 所期의 成果를 期待할 수 없다고 보아 會員여러분께서는 協會를 中心으로 同心團結하여 聲援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각자가 우리나라 建築文化暢達의 主役으로서 矜持와 自負心을 가지고 맡은 바 所任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本人은 앞으로 여러가지 推進中에 있는 일들을 하나씩 마무리하는 가운데 그 成果가 倍加될 수 있도록 最善의 努力을 다해서 有終의 美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많은 聲援에 다시한번 感謝를 드리며 오늘의 이 總會를 通하여 貴支部의 發展方案을 함께 모색하고 會員여러분 모두가 和合과 結束을 다지는 가운데 더 큰 발전의 계기로 삼는 값진 時間이 되여지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貴支部의 무궁한 發展과 會員여러분의 健勝하신과 家庭에 幸運이 充滿하시기를 祝願하시면서 이만 激勵辭에 갈음합니다. 感謝합니다.

大韓建築士協會 會長 宋基德

KIRA NEWS

支部總會消息



광주지부



대전지부

大田直轄市支部

- * 개최일시 : 1990. 10. 26(금)
- * 개최장소 : 충남예식장
- * 참석인원 : 재적회원 1백5명 중 97명
- * 의결내용 :
 - '90년도 제 1 차 추경예산(안)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9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에 산(안)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임원 및 대의원 선출
 - 會長 : 宋昇鎬
 - 副會長 : 林根洙
 - 幹事 : 卓光鎬, 李瑛淳, 金公烈
 - 監事 : 張昌浩
 - 대의원 : 康祐植회원 등 10인 선출

京畿道支部

- * 개최일시 : 1990. 10. 29(월)
- * 개최장소 : 수원 브라운관광 호텔
- * 참석인원 : 재적회원 3백명 중 1백84명
- * 의결내용 :
 - '90년도 제 1 차 추가경정 수 지예산(안)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임원 선출
 - 會長 : 李一濶(유임)
 - 副會長 : 禹鍾善
 - 幹事 : 金鎮烈, 朴 權
 - 監事 : 李鍾薰(유임), 朴孝男(보선)

江原道支部

- * 개최일시 : 1990. 10. 26(금)
- * 개최장소 : 지부 회의실
- * 참석인원 : 재적회원 43명 중 33명
- * 의결내용 :
 - '9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에 산(안)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임원 및 대의원 선출
 - 會長 : 洪永培
 - 幹事 : 閔庚秀
 - 監事 : 朴永鳳
 - 대의원 : 趙貞鎬
- 분소직원 관리 문제
- 차기 총회에 시행(안)을 부의 키로 함



충남지부

忠清北道支部

- * 개최일시 : 1990. 10. 30(화)
- * 개최장소 : 지부 회의실
- * 참석인원 : 재적회원 69명 중 50명
- * 의결내용 :
 - '90년도 제 1 차 추경예산(안)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9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에 산(안) 승인
 - 일부항목 조정후 원안 승인
 - 임원 선출
 - 會長 : 李容鐵(유임)
 - 幹事 : 吳洙福
 - 監事 : 吳駿敎
 - 대의원 : 崔浩珍회원 등 5인 선출

忠清南道支部

- * 개최일시 : 1990. 10. 26(금)
- * 개최장소 : 공주 산성파크호텔
- * 참석인원 : 재적회원 50명 중 47명
- * 의결내용 :
 - '90년도 제 1 차 추경예산(안)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9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에 산(안)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 한편, 이날 정기 총회에서는 충남지부의 "새질서 새생활 실천 결의대회"를 병행하였다.



경기지부



전북지부



전남지부

全羅北道支部

- * 개최일시 : 1990. 10. 17(수)
- * 개최장소 : 서귀포 KAL호텔
- * 참석인원 : 재적회원 72명중 68명
- * 의결내용 :
 - '9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에 산(안)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회원 복리 증진 방안 수립 시행
 - 회원 복리 증진을 위한 창구 단일화 등의 시행방안을 원안대로 시행키로 함
 - 예비비 사용 추진
 - 원안대로 승인
 - 임원 선출
 - 副會長에 李相澈회원을 선포하고 그외 임기만료 임원은 유임키로 함.
 - 대의원 선출
 - 嚴柱浩회원 등 3인 선출

全羅南道支部

- * 개최일시 : 1990. 10. 30(화)
- * 개최장소 : 지부 회의실
- * 참석인원 : 재적회원 44명중 38명
- * 의결내용 :
 - '90년도 제 2차 추경예산(안)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임원 및 대의원 선출
 - 會長 : 金洗鎬
 - 副會長 : 金容正(임기 1년)
 - 幹事 : 吳龍甲, 金泰柱, 鄭洛球(임기 1년)
 - 대의원 : 姜引秀회원 등 5인 선출



慶尙北道支部

- * 개최일시 : 1990. 10. 30(화)
- * 개최장소 : 경주 조선호텔
- * 참석인원 : 재적회원 86명중 79명
- * 의결내용 :
 - '90년도 제 2차 추경예산(안)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9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에 산(안)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임원 및 대의원 선출
 - 幹事에 林炳昱, 金俊植회원을 선출하고 그외 임원들은 유임키로 함

慶尙南道支部

- * 개최일시 : 1990. 10. 19(금)
- * 개최장소 : 지부 회의실
- * 참석인원 : 재적회원 1백75명중 92명
- * 의결내용 :
 - '9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에 산(안)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임원 및 대의원 선출
 - 會長 : 崔鳳亨
 - 副會長 : 朴文星
 - 幹事 : 裴東權(유임), 金相烈, 金奎寅
 - 監事 : 柳在新
 - 대의원 : 金在振회원 등 7인 선출

濟州道支部

- * 개최일시 : 1990. 10. 30(화)
- * 개최장소 : 제주 오리엔탈호텔
- * 참석인원 : 재적회원 38명중 35명
- * 의결내용 :
 - '9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에 산(안) 승인
 - 일부 자구 수정하여 원안 승인
 - 임원 및 대의원 선출
 - 會長 : 金昌祐
 - 幹事 : 金白敦, 金石崙
 - 監事 : 康堯俊
 - 대의원 : 李世院회원 등 3인 선출

「에너지節約型 建築設計 핸드북」發刊

本協會 에너지분과위원회(위원장 金鎭成)에서는 장차 예견되는 에너지파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역량을 키우고 일반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90년도 연구과제로 주택에너지 절약형 건축설계 핸드북」-주택편을 발간·배포하였다.



本冊字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건물에너지에 대한 학술

적 기초연구가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어느정도 이루어져 왔으

나 일선 건축관계 실무자가 손쉽게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책자가 없는 가운데 본 협회에서 이의 필요성을 느껴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도에 주택편을 설정하여 국내외의 에너지관계 이론 및 우수설계사례를 엄선하여 소개하고 있어 건물에너지 절약 설계방향의 혼란을 극소화하는 한편, 창의적이고도 합리적인 설계를 창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제 8 회 支部會長會議

제 8 회 지부회장회의가 지난 7일 본 협회 회의실에서 新·舊 지부회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91회계년도 회계별 예산현황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이번 지부회장회의에서 실적 회비 산출기준표 개정(안)에 대하여는 지부별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 취합하여 재검토 협의키로 하였다.

제 8 회 지부회장회의



理事會 개최

'90년도 제10회 理事會가宋基德회장 주재로 지난달 15일 본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또한 제11회 理事會가 지난 7일 개최되어 정기총회 의제결정등 주요 부의안건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이날 협의된 주요 안건의 처리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회 이사회>

- ◆윤리위원회 결정사항 승인
- 이재철회원의 윤리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원안대로 승인
- ◆건축선용 CAD교육센터 설립 승인
- 교육센터 운영은 본 협회에 담당하고 그에 따른 제반 시설 및 비용은 서동AI사업부에서 부담토록 하고 교육센터설립을 승인

<제11회 이사회>

- ◆제25회 정기총회 의제 결정
- '9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 등 7개 의제의 상정을 결정함.
- ◆지부명칭변경 및 참여임원 제도 승인
- '지부명칭변경 및 참여임원 제도 승인의 건'으로 하여 승인하고 同사항을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함
- ◆보수규정개정(안) 승인
- 회상 및 박성규, 우남용, 장성진이사에게 위임함.
- ◆예산목간전용 및 예비비 사용 승인
- 예비비의 관공비전용사용은 추후 다시 협의키로 하고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승인
- ◆추대회원 추대승인
- 김종만회원등 11명의 추대회원 추대를 승인함
- ◆표창대상자 승인
- 일부 공로 및 감사패 수여자를 추가하여 승인

全羅南道支部(會長 金仁模)

건축사보 보수교육 실시

全南지부(회장 金仁模)는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업무 수행에 있어 건축사의 업무보조를 적법하고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한 '90년도 건축사보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지난달 5일 추선회관 5층 회

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보수교육에는 총 35명이 참석하여 건축관계법령 및 질의응답, 건축행정건설화대책에 관한 교육, 정신교육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5년이상 장기근속자 4인에 대한 모범건축사보 표창이 겸해졌다.



경북지부 건축사보 교육

전남지부 건축사보 보수교육



경남지부 건축관계관 교육

慶尙北道支部(會長 崔種培)

건축사보 전산통계교육 실시

慶北지부(회장 崔種培)는 건축행정건설화대책의 일환으로 전산기법인 OMR제도를 건설부로부터 도입함에 따라 지난

23일 경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책임 건축사보 72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물 통계 개선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다.

慶尙南道支部(會長 金東準)

건축관계관 교육 실시

慶南지부(회장 金東準)는 경남도청과 공동으로 건축물부설 주차장 단속·정비·건축사보 및 건축통계관계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지난 24일 지부 회의실에서 실시된 이번 교육에는 소속회원 및 건축관계공무원등 2백80여명이 참석하였다.